한국전력공사 공인협의업체
한국전기연구소 품질인정업체
심야전력
기기제조 설치전문점
▶용도 : 사찰, 목욕탕,숙박업소,식당,병원, 관공서,모든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쏠/레/이 051)743-3376

현대불교

'98 지엉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 / 논설고문: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12월 30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04 호



비극의 교훈 검은 화염에 휩싸인 것은 총무원 청사뿐이 아니다. 한국불교의 자화상이다. 이제 이 부끄러운 얼굴을 말끔히 씻어내고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갈 빛나는 얼굴을 만들어 내는 일에 사부대중이 마음을 모아야 한다. 오늘의 비극은 내일의 희망을 싣는 교훈이 되어야 한다. 고영배 기자

"총무원장 선거로 종단안정"

청사 되찾은 총무원 '범불교도 참회법회' 등 계획

23일 총무원청사를 반환 받은 조계종 총무원이 종단 안정의 갈 닦기에 분주하다.

청사반환과 제29대 총무원장 선거를 종단사태 해결의 실마리로 여겨온 총무원은 29일 선거를 예정대로 치르는데 업무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새로 구성된 집행부가 종단사태로 들끓은 여러 현안들을 중앙종회와 함께 풀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시급한 현안으로는 각종 선거관련 종헌 종법개정과 종단 구조의 개편등.

총무원은 11월 11일 승려대회 이후 심하게 훼손된 청사 건물의 완전 복구에 최소한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우선 40일 이상 공백 상태로 지속된 업무를 복구하고 각 교구본사와의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무엇보다 총무원은 이번 사태로 실추된 불교의 대사회적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와관련 총무원은 26일로 계획됐던 범불교도대회를 일단 연기했다가 시기를 봐서 범불교도 참회법회 형식으로 대규모 법회를 봉행하는 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3일 정오 총무원장 권한대행 도법스님은 중회의장 법등스님, 박광서, 김재일 범불교연대회의 공동대표가 배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종단 안정의 설계도를 내 놓았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도법스님은 사태의 수습과 총무행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종단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특히 도법스님은 "원로스님과 중진스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화합으로 종단의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님은 정화회의측 스님들의 징계문제와 관련 "진심으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을 진다는 입장으로 참회한다면 관용적이고 화합적인 처분을 해야 할 것"이라 말해 이번 사태로 인한 무더기 징계사태를 희대한 파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미 사법부 차원에서 처벌 대상으로 지목되는 스님들에 대한 구제는 총무원으로서도 함들 것이란게 주변의 관측이다.

11월 30일 승려대회에서 불신임을 당한 종정 월하스님의 후임 종정 추대문제도 일각에서는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종단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새집행부 출범 이후에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운만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23일 총무원청사를 반환 받은 직후 총무원장 권한대행 도법스님(가운데)이 기자회견을 통해 종단 안정을 위한 계획을 밝히고 있다


고산스님

29일 조계사서 총무원장 선거

고산-지선스님 '출마'


지선스님

29일로 예정된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선거에 방계사주지 고산스님(64)과 백양사주지 지선스님이 입후보 했다. 지선스님(52)은 21일 오전 9시경에 등록했으며 고산스님은 22일 등록마감 직전인 오후 4시 30분경에 등록했다. 따라서 지선스님은 기호1번 고산스님은 기호2번으로 입후보 했다.

고산스님은 1945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범어사 해인사등 선원에서 18하안거를 성만했으며 범어사, 청암사에서 강사를 맡기도 했다. 중앙종회의원과 조계종 초대 호계원장을 역임했으며 조계사 은해사 등 주지를 거쳐 동국학원 이사를 맡고 있다.

지선스님은 1961년 백양사에서 석산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운문선원에서 3하안거를 성만했다. 중앙교육원 1기 졸업생인 스님은 종정사서실장과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주지, 6대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92년부터는 실천불교승가회 의장을 맡으며 불교사회운동의 일선에서 활동했다.

한권 후보들은 후보등록에서 선거공약을 제출하지 않았다. 선거기간이 짧고 종단 상황을 감안해 대오적인 선거운동을 자제한다는 내부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임연태 기자

결국 총무원 청사에 공권력

23일 새벽 경찰투입…정화측 스님들 강제연행 해산

11월 11일 이후 43일간 조계종 총무원 청사를 점거해 온 정화개혁회의측에 대한 법원의 퇴거 강제집행이 23일 법원 집행관과 경찰병력에 의해 이뤄져 총무원 집행부가 청사를 다시 반환 받았다.

이날 청사퇴거 강제집행은 경찰이 50개중대 6천여명의 병력과 불도저, 물대포차, 포크레인 등 장비를 새벽 4시 30분경 조계사에 투입하면서 시작됐다. 정화회의측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힌 경찰은 일단 물러 났다가 5시 50분 집행관들과 다시 경내에 진입해 정화회의측과 극적인 공방을 벌이다 오전 10시 15분경 저항하던 정화회의측 스님 등 77명이 연행됨으로써 4시간 30분만에 작전이 종료됐다. 경찰은 연행자들을 시내 7개 경찰서로 분산해 조사를 벌인후 28명의 폭력혐의자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퇴거집행 과정에서 경찰 15명과 스님 2명 신도 2명등 1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총무원 청사 옥상으로 고가사다리를 이용해 투입되다 15미터 아래 땅으로 떨어진 특공대 소속 경찰 5명중 2명은 중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5시 50분경 법원 집행관및 용역자등 2백여명과 경찰병력이 다시 조계사 경내로 진입하자 정화회의측 스님들은 청사 각층 난간에서 화염병과 유리병, 석유통, 가스통을 던지며 강력 저항했다. 일부 스님들은 난간에 선 채 분신과 투신을 하겠다며 위협했으며, 스님 3명은 배에 흉기로 자해를 하는 등 거세게 저항했다.

경찰과 집행관의 청사진입이 몇차례 진행되며 공방을 벌이던 중 정화회의측 스님들은 오전 9시 30분경 청사 1층에 불을 지르며 저항했다. 순식간에 검은 화염에 휩싸인 청사로 경찰특공대가 투입된 것은 9시 50분경. 5층 옥상을 점거한 특공대는 차례로 저항하는 스님들을 제압했으며 이와 동시에 경찰 기동대 병력 2백여명은 1층을 통해 청사를 점거했다.

4시간여동안의 공방끝에 청사를 장악한 경찰은 건물을 수색한 후 법원 집행관은 총무원측 합동 조사 이후 청사 밖으로 철수했다. 강석영 집행관도 총무원측과의 건물 수색이후 "12월 11일 서울 지방법원 51부의 관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경찰력의 도움으로 완결됐다"고 밝힌 뒤 청사를 총무원측에 인계했다.

경찰과 정화회의측이 대치 된 상황에서 법원측은 방송차량을 통해 "민주국가의 정당한 법집행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법원의 관결에 승복하기 바란다"고 몇차례 권고방송을 했다. 정화회의측은 "종정스님의 교시와 원로스님들의 뜻을 따라 정화불사를 진행중"이라며 "종교 내부문제에 공권력이 간섭하지 말라"고 맞섰다. 특별취재팀

관련기사 2 · 3 · 23면

"정당한 법집행 환영"

교계단체들 성명 잇달아

23일 법원과 경찰에 의한 정화개혁회의측의 총무원청사 강제퇴거를 환영하는 성명서들이 잇달아 발표됐다.

종단안정과 개혁을 위한 범불교도연대회의(공동대표 도법 등6명)와 조계종 포교사단은 "공권력 투입은 사회악 일소차원으로 이뤄진 정당하고도 불가피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해인사 방계사 범어사등 3개교구본사 주지스님과 대중들도 공동 성명을 발표, "불법폭력 세력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란 점에서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불교바로세우기 범불교 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 등3명)와 전국선원수좌회도 23일 논평을 냈으며 부산불교 20개 신도단체와 통도사말사 및 신도대중 명의의 성명서도 발표됐다. 임연태 기자

화합승가 촉구

종단협 성명 발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대표들은 24일 간담회를 갖고 '조계종단의 화합승가 구현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종단협은 성명을 통해 "조계종 사태가 공권력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화합정신으로 종단의 대화합을 이루는 지혜를 모아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종단협은 또 "이후로 폭력과 불법이 난무하고 불교를 실추시키는 일이 발생한다면 재종단들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태고종 · 천태종 · 진각종 · 관음종 등 23개 종단 대표가 참석했다. 임연태 기자

98년 빛을 본 불교문화재 11면
베스트불서 200자 명사 독후감 8면
'작은 실천 큰 기쁨' 1년 반응 22면

동화로 만나는 푸른 자연의 친구들

장비아동문고 166
풀꽃과 친구가 되었어요
이상권 생태 동화집/정수영 그림
모든 풀꽃에는 다 이름이 있어요. 여기똥풀, 씀바귀, 제비꿀……
어떻게 이런 재미있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풀꽃들과 무엇을 하고 노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값 6,000원

장비아동문고 161
하늘로 날아간 집오리
이상권 생태 동화집/장양선 그림
물위신 소동을 일으킨 수달, 고양이 잡을 먹고 자란 다람쥐,
청둥오리와 결혼한 집오리 등 흥미롭고 감동적인 우리 나라
야생 동물 이야기가 한가득 펼쳐집니다.
값 6,000원
● 어린이도서연구회 선정 과학의 달 추천도서
● 중앙일보 선정 '98 좋은 책 100선

(주)창작과비평사 전화 718-0541~4 팩스 713-2403 인터넷 홈페이지 www.changbi.com

완역
장비아동문고 164 · 165
삐노끼오의 모험 1, 2
까를로 골로디 지음/이현경 옮김
말썽꾸러기 삐노끼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인형극을 보러 갔다가 땔감이 될 뻔하고, 노는 것만 좋아하다 당나귀로 변하고, 상어 뱃속에 갇히기까지 하는 삐노끼오.
우리 친구 삐노끼오가 들려주는 모험의 세계에 귀 기울여 보세요.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선정 청소년권장도서(아동부문)
값 각권 6,000원
(주)창작과비평사 전화 718-0541~4 팩스 713-2403 인터넷 홈페이지 www.changbi.com

사 설

그래도 희망을 말하자

달포를 끌어온 조계종 사태는 결국 공권력 투입이라는 최악의 방법으로 매듭지어졌다. 법원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항하던 정화개혁회의측은 공권력에 의해 '정화'되는 부끄러운 최후를 장식했다. 수십개 중대의 경찰병력이 동원된 '총무원청사 탈환작전'은 목불인견 바로 그것이었다. 이를 바라보는 불자들은 이제 눈물마저 말라버린 상태였다. 더 이상 종교적 권위나 체면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참담한 현장이었다.

그러나 현실이 아무리 비관적이라 하더라도 언제까지나 패배주의에 발목잡혀서는 안된다. 부처님 당시에도 육군비구가 있었고 데바닷다와 같은 사문난적이 있었다. 그래도 불교가 일패도지하지 않은 것은 바로 무너지지 않는 정법에 대한 신념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오늘의 사태를 반드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절망해서는 안된다. 그럴수록 필요한 것은 정법을 호지하기 위한 불교적 사명의 자각이다.

현 단계에서 불교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먼저 종단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정화개혁회의가 총무원청사를 점거한 이후 종단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무정부 상태에 있었다. 전국 사찰들도 우왕좌왕 갈피를 못잡아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빨리 절차에 따라 새 집행부를 구성하고 종무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자면 우선 종단의 대표를 선출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새 총무원장 선출과정에 어떤 세력이든지 절대 몽니를 부려서는 안된다. 이번 사태가 총무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촉발된 것이므로 이 문제를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일의 순서일 것이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이번에야말로 대각성운동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종단은 지금까지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달랑 사과성명 한 장으로 모든 것을 없던 일로 돌려왔다. 그러나 이렇게 불교를 만신창이로 만들어놓고도 '지나간 일이니 잊어주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뻔뻔스러운 일이다. 연말까지 전국 사찰의 모든 스님들이 새 출발을 다짐하는 특별참회법회라도 가져야 한다. 백번 말로만 잘못됐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는 불자들의 응어리진 마음을 풀지 못한다. 오늘의 종단문제가 종교적 양심의 부재에서 초래된 것이니만큼 과거에 없던 대참회법회가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는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 이번 기회에 종단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몇차례의 개혁논의가 있었지만 그것은 모두 종권중심의 행정개혁이었다. 종정중심제냐 총무원장중심제냐, 중앙집권적이냐 지방분권적이냐는 개혁의 핵심대상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종단체제를 '수행과 포교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스님이 되고도 수행과 포교 의무를 지지 않으니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는 주지직이요, 종권이다. 이런 종단구조로는 불교중흥도 백년하청이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언제 또다시 이런 불상사가 생길지 모른다.

'땅에 넘어진 자는 땅을 딛고 일어선다'고 했다. 금년 한 해는 불자들의 모든 기대가 한판싸움으로 송두리째 날아갔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새로운 희망의 철학을 잉태시켜야 한다. 그러자면 이번 사태를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밑바닥까지 떨어진 불교가 L자로 가라앉지 않고 다시 V자로 솟아오를 수 있을 것이다.

한 해가 저물어간다. 가는 해와 함께 모든 아픔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맞이하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정말로 희망만을 말하자.

조기수습 새 집행부 '과제'

공권력 투입이후 조계종 행보

징계최소화등 관용적 해결 여론
일부 교구본사 선거참여 여부 '주목'
정화회의 장외활동 '불씨' 될듯

총무원 청사를 반환 받아 종단사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한 조계종은 어떤 수순으로 안정세를 찾아 갈 것인가.

종단 사태 수습은 제29대 총무원장 체제가 떠안아야 할 짐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29일 총무원장 선거를 여법히 치뤄내는 일이 조계종의 최우선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고산스님과 지선스님의 경합 구도로 형성된 선거는 별다른 무리없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그간 정화회의측에 손을 들었던 일부 교구본사들이 선거에서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 불분명하다. 정화회의측은 '장외'에서 계속 활동을 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통도사, 은해사를 비롯한 교구본사들이 정화회의와 계속 행보를 같이 할 경우 이번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현행 법상의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새 집행부의 종단화합에 부담은 될 수 있다.

종단의 상징인 종정이 불신임 당한 상태에서 총무원측은 신임 종정 추대 문제 역시 새 집행부 구성 이후로 미뤄 놓고 있다.

정화회의측에 가담한 스님들에 대한 징계문제도 종단 안정화 노정에 중요한 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총무원장 권한대행 도법스님은 "진심으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참회할 경우 관용과 화합의 기조 속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 집행부는 이런 불상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단단히 해야 하는 임무도 지고 있다.

총무원측은 이번사태로 실추된 종단의 위상을 회복시킬 과제도 안고 있다. 이와관련 대규모의 참회대법회가 검토되고 있다. 참회대법회를 통해 국민과 불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종단 내부적인 결속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월하스님이 "정화회의가 이대로 손들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화회의는 서울에 사무실을 내고 계속 활동할 방침이다.

새로운 집행부가 이미 돌출된 문제와 정화회의측의 행보를 어떻게 융합시키며 종단을 안정세로 이끌어 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동화-선운사 정상화
정화회의측 자진철수

21일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를 접수했던 정화개혁회의측 스님들이 23일 오후 4시경 자진 철수함으로 동화사 점거사태가 해소됐다.

정화회의로부터 임명장을 받아 동화사를 접수했던 지근스님 등은 주지 성덕스님에게 직인등을 인계하고 동화사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동화사 주지 성덕스님은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정화회의측 스님들이 물러난 것은 정법이 살아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며 "부주지직을 없애는 등의 종무행정 개선, 불법접거자 문책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4교구본사 선운사에도 대우스님이 정화회의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접수를 시도했으나 전주지방법원이 22일 선운사측이 신청한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데 따라 일단락됐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마음까지 청소 24일 아침일직 출근한 총무원 직원들이 병과 기와조각이 수북히 쌓인 총무원청사를 청소하고 있다.

28명에 구속영장
검찰, 조직폭력배 색출

검찰은 23일 총무원청사에서 연행한 77명의 스님과 신도 가운데 조직폭력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 조직폭력배 연관자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24일 현재까지 연행자들의 조사를 마치고 28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중에는 11월 11일과 30일 승려대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스님 3명과 폭력혐의 18명, 무승적자(승적발탈) 5명, 종무원 2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연태 기자

태국불교 지도자들 조계종사태 우려

태국의 불교지도자들은 조계종 사태를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불교계의 승왕 사무총장은 프라마하랏차몽콘 디록씨는 23일 "이번 사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밝혔다.

구룡사나 조계사 인근 '정화총무원' 설치계획

정화회의측 월탄, 혜총, 성문, 영하스님등은 24일 오전 통도사로 월하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서울의 적합한 장소에 총무원을 설치할 것을 인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월하스님은 24일 오후2시 대한불교종정협의회 소속 종정 12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자리에서 종정협의회는 조계종의 종정교시 봉행 촉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임연태 기자

가처분 불복 강제진압 초래

공권력투입 배경

'종교문제 불개입 원칙'을 고수해 오던 경찰이 23일 전격적으로 병력을 투입, 강제집행을 단행한 배경은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엄정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풀이된다. 가처분 판결에 대한 법집행을 2차례나 실패한 법원은 18일 경찰병력을 요청했으며 이때만 해도 경찰은 적극적인 개입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경찰은 21일 밤 강경진압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의 강경진압은 정화회의측이 자초한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화회의측이 선운사에 새 주지를 임명하고 동화사를 접수하는 등 지방 사찰 접수에 나섰기 때문이다. 임연태 기자

목어 참회대법회 열자

악종같았던 조계종사태 43일. 차라리 꿈이길 바랬던 그 현실은 급기야 일간신문 1면과 사회면 머리를 장식하고서 일단락 되었다. 세상을 정화해야할 종교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공권력에 의해 정화개혁측이 총무원 청사에서 물러난 12월 23일, 스님이 웃옷을 벗고 복부 자해소동을 벌였다. LP가스통에 불을 당기고, 신나를 뒤집어 쓰고…. 경찰은 이러한 저항진압에 불도저, 물대포, 고가사다리 등을 동원해야만 했다. 조계사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이제 한국불교 조계종이 세상을 향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저 참괴스러울 뿐이다.

사태의 주역들은 그동안 여러차례 말과 글로 국민앞에 사과했다. 그러나 불자들과 국민들이 그 사과를 진정한 뉘우침으로 받아들였을까. 입으로는 사과를 하면서 사과해야할 일을 멈추지 않았으니…, 부처님을 욕되게 하고 성전을 폐허로 만들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불자들과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으니 그 값을 무엇으로 어떻게 치뤄야 할까.

경전에서는 뉘우침도 善이라고 했다. 이제 조계종은 국민앞에 크게 참회하고 그 참회를 계기로 새 살 돋는 아픔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이미 제방의 여러 사찰에서는 이 참담한 사태를 보다못해 참회정진에 들어갔다. 조계종의 사부대중은 뼈와 살을 깎는 참회를 해야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 또 반성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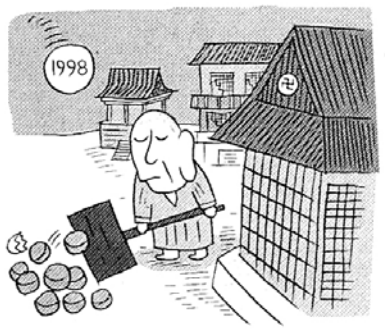
"참회는 능히 번뇌의 섶나무를 태우며 참회는 능히 천도(天道)에 이르게 하며 참회는 능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즐거움에 들게 한다. 참회는 능히 삼계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며 보리의 꽃을 피어나게 하며 지혜의 거울을 열어 보배의 장소(열반)에 이르게 한다." 〈心地觀經〉에 있는 말씀이다.

조계종은 참회대법회를 열어 지옥같았던 43일의 악몽을 씻자. 내편 네편 갈랐던 골 깊은 불신을 참회법회로 일소하자. 그래야만 화합승단을 이룰 수 있다. 나아가 조계종사태 43일을 잉태했던 원인과 업식마저 녹여내자. 무너져 내린 교권의 탑을 다시 쌓아 국민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 묵묵히 더 정진하고 더 전법할 것을 다짐하자.

곧 기묘년 새 아침의 동이 튼다.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온 조계종도 그렇게 새 아침을 맞자.

현대만평

박구원



청정도량으로 다시…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삼화불교대학 학생 및 편입생모집

1.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야간■통신	· 고등학교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1통 · 본교 소정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포교사(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 한민족 불교진흥회 스님, 단체추천자.
	4년	■통신		
유아교육과 (유아포교과)	2년	■주간■통신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		
중국어과	2년	■주간■야간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주간■통신		

2.학교연혁

1989.7.3 학교설립공고
90.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4년제 개교
90.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8 본교학생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증 취득
91.3 전문부 주간,야간2년제 개설
91.8 본교학생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수
92.2 제1회 졸업생 배출
92.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93.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8 본교학생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4.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5.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8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분교체결
95.11 본교학생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6.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0명취득
96.11 본교학생36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7.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0명취득
98.2 제 7회 졸업생 배출
98.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1명 취득
99.2 제 8회 졸업생 배출예정
99.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22명취득 예정

3.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불교유아포교사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4.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1999년 1월 28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우편당일 소인 유효)

5.원서교부및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 511-2026~8 FAX. 511-108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랍.(511-2026~8)
◑ 인터넷홈페이지:WWW.Buddhapia.Co.Kr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 화 불 교 대 학

◈ 교육부 학력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만 60세까지)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중·고 통신과정	3년	야간 및 통신 강의 병행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졸업 후 중앙승가대학 입학 가능 방송대학 입학 가능
■ 특전 : 성적에 따라 단기간에 졸업 가능
■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1999년 1월 부터 수시 모집
■ 문의처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02)511-2026~8, FAX : 02)511-1080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 삼화불교대학 부설 ◈
영어 · 일어

- 개강일 : 1999년 1월 4일(월) -

부처님의 큰 뜻을 온 세계에 전하고자 합니다.
외국어 공부에 뜻이 있는 스님들과 불자님들께 영어·일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강사진의 "1대 1 강의"로 꼭 뜻하는 바를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단계별 강좌 안내

영어
■Step 1 기초반 : ABC 처음부터
■Step 2 초급반 : 문법과 초급회화
■Step 3 중급반 : 중급회화와 문법
■Step 4 고급반 : 주제별 Free Taliking

일어
■기초 : 히라가나부터, 기초문법
■초급 : 기초회화
■중급 : 실용회화
■고급 : 다양한 회화표현

- 대학원 준비반
- 각 과정 3개월
※ 월·수반, 화·목반, 주말반(각 120분 수업)
- 시 간 : 오전 10:00 ~ 19:00
- 문의처 : Tel. 02)511-2026~8

★ 사찰별 그룹지도 가능 ★

"이 비극의 교훈 결코 잊지말자"

조계종 사태 43일

조계종 총무원이 23일 정화회의에 의해 점거됐던 총무원청사를 되돌려받음으로써 조계종사태는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 불자들은 한결같이 "다시 시작하자"고 뜻을 모으고 있다.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한다. 이번 사태로 불교는 불자들과 국민들에게 엄청난 분노와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 주었다. 다시 불자들과 국민들의 정신적 귀의처로서의 올곧은 불교의 모습을 세워야 하는 과제가 우리 불자들에게 주어졌다. 조계종사태가 남긴 교훈과 후유증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불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각계의 목소리를 듣는다. 〈편집자 주〉

■ 교훈

출가정신 · 수행풍토 되찾아야

부처님께서는 "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를 주나, 뱀이 먹은 물은 독이 된다"고 경책했다. 뒤늦게서야, 너무나 많은 것을 잃으면서 우리는 부처님 말씀의 뜻을 깨달았다.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고 전법하는 불제자들이라면 초발심의 출가정신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이었다.

한 재가불자는 조계종사태가 터진 직후인 11월 중순 "개혁종단 4년의 가장 큰 실패는 건전한 개혁세력의 조직과 지원을 소홀히 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종헌종법 수호'라는 명분이 많은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명분을 뒷받침할 힘이 없었음을 두고 한 말이었다. 건전한 개혁세력의 형성이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임을 다시한번 일깨워 주었다. 또다른 스님은 "조계종의 오랜 분규 역사 중 명분보다 물리적 우위 또는 정치적 절충으로 결론지어졌다"는 분석은 이같은 이유에서 나온다. 광범위한 개혁세력이 없었으니 끝내는 경찰력에 의존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종단도 유기적 질서로 유지되는 생명체임을 알 수 있게 해준 것도 교훈이다. 종헌종법 질서가 일부세력의 의지나 폭력만으로 깨질 수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혁과 변화의 기틀을 다져나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운 것이다. 물론 상반된 의견을 대화와 양보로 풀어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화합을 위한 기본적인 의지가 현실에 반영되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이번 사태를 통해 얻은 교훈이다. 이와 함께 불교 고유의 전통과 관습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도 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에 대해 여러 분석이 있겠지만, 경선을 도입한 선거 제도에 있음을 부정하지 못한다. 때문에 산중공의, 장로에 의한 의사 결정 방법 등의 부활이 시급하다는 여론도 조심스레 대두되고 있다.

돈과 권력이 부패하거나 잘못 쓰이면 모두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점도 확인시켜 주었다.

■ 후유증

포교 · 불사 차질…상호불신 우려

"불교인이란 것이 흉이 돼버렸다." 많은 불자들의 한탄이 아니어도 불교와 불교인은 부끄럽다. 성철스님의 열반으로 한국불교 포교 10년을 이뤘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몇 십년을 후퇴시켰다. 폭력으로 얼룩진 불교의 얼굴을 씻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불자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었다. 훼손된 불교이미지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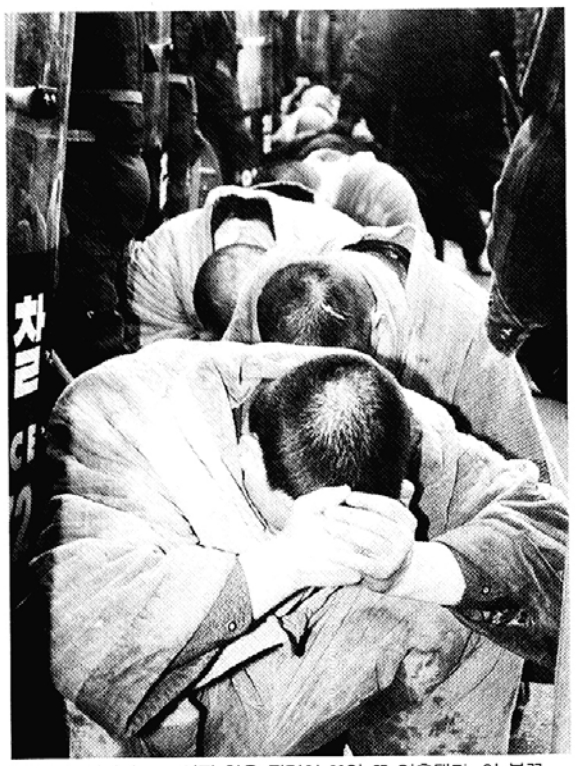
포교 및 각종 사회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말뜻불심의 이탈은 크지 않더라도 잠재 불자의 동요는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 약화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및 자치단체의 위탁 사업 기피현상도 우려된다.

이번 사태로 승가 내부는 너무 깊은 골을 만들었다. 한국불교의 구심점인 원로들까지 이번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재가 사이의 편가르기도 상처로 남아 있다. 불교 내부의 갈등과 불신을 완전히 씻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불교내부에서 자행되는 훼불사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한 신도의 말에는 불교계가 자성하고 새로운 발심을 하지 않는다면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긴박함이 서려 있다. 이교도들의 훼불에 보다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불교계 스스로가 호법신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찰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터진 도박사건에 이어 이번 사태에도 삼보정재가 대량으로 유실됐다. 사찰 재정의 투명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주 저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이미 지연되거나 포기된 각종 불사들의 지속과 복구에 설상가상의 타격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은 종단의 부담금 수급도 원활치 못할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두번다시 보고싶지 않은 장면이 23일 또 연출됐다. 이 부끄러움은 내일의 희망이어야 한다. 경찰의 진입에 격렬히 저항하던 정화회의측 스님들이 연행되고 있다.



◇아수라장으로 변한 총무원 청사 1층.

■ 종단 정상화 위한 각계 목소리

총무원 권한 교구본사에 대폭 이관

법장스님(무진법장사 주지)=책임있는 분들은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세를 대중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만약 참회를 못하겠다면 화합승가도 좋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종단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총무원 권한과 조직을 축소한 뒤 역할을 최대한 교구본사에 이관하고 위치도 서울외곽이나 산중사찰로 이관하는 것을 고려했으면 한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가 새로워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행불교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종정스님도 더욱 상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앞으로 불교계의 대사회적 참여를 강화하여 이번 일을 반전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돈과 권력 좇는 스님 승단서 축출

윤청광(작가, 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이번 사태를 무승부로 끝내야 한다. 모두 일불제자요, 도반이지 않은가. 그러기에 승패가 있을 수 없다. 원수일지라도 용서하라고 했다. 돈과 권력이 욕심나는 스님들은 승단을 떠나야 한다. 출가해 먹물옷을 입음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혹, 수행자의 본분을 다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속퇴를 결정하기 바란다. 분규의 근원을 일소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사찰의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이상의 세 가지가 이제부터 우리 불교계에 맡겨진 과제이다.

사부대중 모두 주인의식 가지자

박광서(우리는선우 대표, 서강대 교수)=아직 반쪽해결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는 이번 종단사태가 승단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부대중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내가 바로 불교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재가자의 종단참여문제는 새 총무원체제 출범이후 불교바로세우기를 위한다는 신념으로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종단 운영체제속에서 점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재가자들은 권리찾기가 아니라 진정한 불제자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되새기고 주체적인 자세로 종단 정상화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번 종단 사태 해결을 위해 결성된 범불교재가연대는 앞으로 상설기구로 정착해 상시로 종단 발전과 안정을 위한 활동을 도모하고, 종단 외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어서 기대된다.

소수 스님에게만 권한 집중이 잘못

박원순(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종교단체의 경우 현대화와 민주화는 재정 및 신도관리,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것들이 지나치게 극소수의 스님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기득권과 소외계층이 분명하게 구별된다는 것이다. 견제와 균형이 상실된 사회는 계층간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 불교도 마찬가지다. 스님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수행과 신도들에게 영적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다. 또 신도는 재정과 조직을 투명하게 관리해 스님의 가르침에 보답해야 할 것이다.

참회 · 자비행으로 본래모습 보여야

김동흔(경불련 운영위원장)=IMF관리체제에 따른 영향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생존권을 위협하는 실업의 문제는 여전하다. 따라서 불교의 대사회적인 자비실천행은 조계종사태와 관계없이, 아니 오히려 더욱 꾸준히 진행돼야 한다. 불교의 떨어진 위상을 되찾는 길이기도 하다. 그리고 대참회운동을 벌여야 한다. 부처님과 스스로와, 국민들에게 깊이 머리 숙여 참회해야 한다. 일정 기간을 정해 모든 사찰과 단체, 불자들은 참회기도를 올리고, 새로운 불교와 불교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짐을 해야 한다.

사태 발단에서 수습까지

11월11일	승월주총무원장 3선반대 전국 승려대회 개최, 정화개혁회의 출범, 총무원 청사 접수.
11월12일	월하종정 "제2의 정화 독려" 담화문 발표, 중앙선관위 선거 연기 공고.
11월13일	중앙종회 길상사서 제135회 정기종회.
11월14일	구룡사 원로회의서 원로의장 불신임, 종회 해산결의, 원로의장 혜암스님, 종회의장 법등스님 "구룡사 원로회의 무효" 주장 대각사서 기자회견.
1월16일	총무원, 조계사 건너편 천마빌딩서 업무 시작.
11월18일	중앙선관위 총무원장선거 재연기.
11월19일	월주스님측 청사 탈환시도. 월주스님 후보사퇴.
11월20일	종회 봉은사서 속개, 전국승려대회 결의, 종단협 조계종 사태 조속한 종식 촉구.
11월21일	정화개혁회의 상임위원회 명단 발표(2백92명)
11월23일	총무원 광화문일대서 폭력방조 공권력에 대한 항의시위.
11월24일	중앙종회 종단사태 수습안 방침 발표.
11월25일	재가단체 비상대표자회의 1080인 서명운동 중간발표.
11월26일	교구본사주지연합회, 총무원, 중앙종회, 정화개혁회의 4자 간담회, 지성인 서명 기자회견.
11월27일	4자 간담회서 본사주지연합회 합의안 제안.
11월28일	4자 간담회서 종회측과 정화회의측 합의안 작성, 결렬 반복.
11월29일	4자 대표 월하종정 방문, 13개 합의안 결렬.
11월30일	종헌종법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 개최, 청사 진입 돌려싸고 공방.
12월 1일	새벽까지 공방 계속, 조계사 대웅전 화재 발생, 정기중앙종회 속개, 총무원, 종회등 종단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결의.
12월 3일	월하종정 담화문 발표, 종단사퇴 국민에 사과와 정화불사 정당성 주장.
12월 4일	본사주지연합회 종단화합 4개안 입장발표.
12월 6일	총무원, 공권력규탄 범불교도대회 개최, 정화회의, 대웅전 방화규탄법회 개최.
12월 7일	제136회 중앙종회 개최, 총무원장 선거법등 개정, 정화개혁회의 '종단사태 수습과 화합을 위한 대원칙' 발표.
12월 8일	문화부 총무실 4자 모임 주선.
12월10일	종단안정과 개혁을 위한 범불교단체 대표자회의 발족.
12월11일	서울지법, 총무원청사 퇴거단행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선고, 총무원측 승소.
12월14일	제137회 임시중앙종회, 정우스님등 정화회의측 종회의원 6명 제명결의, 중앙선관위 29일 총무원장 선거 실시 결의.
12월15일	총무원 교구본사주지회의 소집 19개본사 참여, 금강호법단 창단.
12월16일	종단안정과 개혁을 위한 범불교도연대회의 출범.
12월18일	법원 퇴거단행 1차 집행 무산.
12월19일	법원 퇴거단행 2차 집행 무산.
12월21일	총무원 조속한 공권력 집행 요구 기자회견, 정화회의 72인 비상종단 구성 제안 기자회견.
12월23일	법원, 경찰 정화회의 청사퇴거단행 강제집행, 정화회의 청사에서 퇴거.

금강산은 성문관광과 함께

금강산 1만 2천봉 8만 9암자
법기보살님이 1만 2천 권속들을 거느리고 중생교화를 하고 있는 성지

금강산 3박 4일 ₩680,000부터 대폭 인하된 요금으로 모십니다.

관 · 광 · 코 · 스



♧ 2인을 기준을 3,4,5인실에 추가되는 인원은 50% 할인
♧ 만 6세 ~ 12세 50% 할인
♧ 단체우대 10명 예약시 1인 무료

겨울 개골산(皆骨山)의 빼어난 설경(雪景)속에서 법기(法起) 보살님을 친견하도록 권합니다.
불국정토, 민족의 성산 금강산을 참배하고자 하는 스님들과 불자들을 위하여 평불협 직영 성문관광은 금강산은 물론 해외불교성지까지 성심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나무통일보살마하살

(주)성문관광회장
평불협 회장 신 법 타 합장

1) 신청방법
성문관광에 비치된 금강산 관고아신청서와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 후 아래의 신청서류와 함께 성문관광에 제출

2) 신청서류
· 금강산관광신청서 및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 · · 각 1부
· 여권칼라사진(3.5cm ×4.5cm) · · · · · · · · · · · · · 3매

금강산관광지정대리점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평불협)
관광 사업부 (주) 성 문 관 광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1-6 삼선 B/D 101호 ☎02)722-2233 · 팩스 02)722-2350

모 집 공 고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는 **구미 금오종합복지관**에 근무할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 집 분 야	인원	자 격 요 건
● 총무관리(부 · 과장)	0명	- 4년제 대졸 이상자로서 경력 3년이상 - 불자로서 구미지역 근무 가능자 -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 - PC 가능자 우대
● 복지사업(부 · 과장)	0명	- 4년제 사회복지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 불자로서 구미지역 근무 가능자 -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 - PC 가능자 우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면접일자 및 합격여부는 개별 통보)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 **서류마감** : 1998년 12월 31일(목) 오후 5시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72 사회복지재단 총무과
☎ (02)723-5101~2, 734-0612~3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교차로 출가



희찬스님 16주기 열반재

현해 월정사 주지는 24일 대웅전에서 만화당 희찬스님의 16주기 열반재를 봉행했다. 이어 한암문도회의를 열고 한암, 탄허스님 비석 건립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석굴암 매표소건물 상량

법달 불국사 석굴암 주지는 23일 재신축중인 석굴암 매표소 건물 상량식을 거행했다. 새매표소는 17평 규모로 1억5천여만원을 들여 99년 5월 완공 예정이다.



어린이지도자연수회서 법문

혜담 각화사 주지는 1일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열리는 제26차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에서 '깨어있는 삶을 위한 수행 길'을 주제로 법문한다.



청소년 상담프로그램 운영

범산 부산 양정청소년회관장은 성격검사를 통한 자기탐험 등 겨울 방학을 맞은 청소년을 위한 특별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한다.(051)868-0750



제주불교총연합회 회장에

수암 제주 금봉사 주지는 20일 제주 KAL호텔 2층 연회실에서 제2대 제주불교총연합회 회장에 취임했다.



자원봉사공로 문화부 장관상

정민 청소년교화연합회 부여지회장은 문화관광부 주최로 29일 부여군 군민회관에서 열린 자원봉사 활성 공로자 시상식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어진간병인회 발족식

성덕 불교자원봉사연합회장(사천왕사 주지)은 18일 제8회 자원봉사 시민대학 수료식과 어진간병인회 발족식을 서을 명동 유네스코문화교류센터에서 가졌다.

"노숙자 빨리 일자리 찾았으면…"

IMF시대 자비보살

맑고향기롭게 무료급식소 장대비화 봉사대장



"저마다 어려운 형편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무료급식에 동참해 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지난 6월부터 서울 제기동에 열기 시작한 실직노숙자를 위한 맑고향기롭게무료급식소 봉사대장 장대비화보살의 말이다.

"경제한파로 어느때보다 힘겨운 한해였지만 무료급식에 필요한 쌀은 보문선원 주지 성광스님이 직접 사찰을 다니면서 모아 주셨고, 부식비등은 후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고.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까지 운영되는 맑고향기롭게무료급식소에는 현재 평균 2백여명의 실직노숙자들이 이용하고, 자원봉사자가 1백여명이 넘는다.

"보잘것 없는 점심 한끼지만 맛있게 먹는 실직자들을 볼때면 내 아들같은 생각에 가슴이 뭉클하다"는 대비화보살은 "내년에는 무료급식소를 찾는 실직노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재기의 꿈을 펼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웃음 되찾은 동심볼때 보람"

실직가정 어린이학교 신응균 교장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자녀들이 정서적인 안정을 찾아 실직가정 부모들의 호응이 대단히 좋습니다."

경불련 이웃을돕는사람들이 지난 11월2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실직가정 어린이 희망만들기 열린학교'의 교장 신응균(38)씨. 그는 IMF관리체제 이후 실직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시설이 전무한 상황에서 문을 연 열린학교가 "실직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포교사업의 단초로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아동 자비의 집을 개조 2, 3층 60평 공간에 자리잡은 열린학교는 매일 오후 3시30분~7시까지 관내 초등학생 51명에게 무료 학습과 저녁급식을 제공.

그간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예산지원이 끝나는 내년 11월이후에도 계속 문을 열 계획이다.

신교장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볼 때 열린학교가 불교교육운동의 시발점이라는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성탄 축하하는 화계사 불심

Focus

서울수유리 화계사(주지 성광)와 화계사 청년회는 인근에 있는 수유리 한신대학원과 송암교회 앞에 '성탄을 축하합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19일 부착했다.

화계사 주지 성광스님은 "남의 종교를 존중할 줄 알고 이웃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화계사 대중들의 마음의 표현"이라며 "학교와 교회측에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부처님오신날에는 한신대학원과 송암교회에서 화계사 입구에 봉축축하 현수막을 걸었으며, 특히 96년 화계사 방화사건 때는 한신대학원 교수와 학생들이 화계사에 위로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마음을 나눠왔다.

한 주민은 "한 동네에 있는 불교와 개신교가 서로 축하해주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며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통일·환경운동 지역중심 펼쳐"

대불련 새회장 한승희씨



"대학생 불자들이 통일운동과 지역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입니다"

20일 동국대 학림관에서 열린 제36차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정기총회에서 제37대 회장으로 선출된 한승희씨(인천대학교 전기공학과).

한회장은 "기묘년(99년)을 대불련 도약의 원년이 되도록 하기위해 신입생 포교활동과 지도부 교육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 "통일·정보통신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고, 각 지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환경 등 지역운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승희 신임회장은 97년 대불련 인천지부 지부장을 역임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교차로 재가

동국대에 기금 5천만원 전달



이연택 전 총무처장관은 21일 오전 10시 동국대 교무위원회의실에서 법과대 발전기금으로 써달라며 송석구 동국대 총장에게 5천34만원을 전달했다.

한·독 학회 신임회장에



조희영 동국대 교수(교불련 회장)는 19일 숭실대 정보과학대학원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독일학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에 선임됐다.

부산불교교육대 동문 송년회



이하우 부산불교교육대학장은 19일 부산 코리아나 뷔페에서 98년 한해를 마감하는 동문합동 송년 법회를 봉행했다.

불교미술 연구원 개원



김성호 불교미술전시관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불교미술전시관 옆에 불교미술연구원을 개원했다.

불자가수회 8돌 기념법회



명국환 대한불자가수회장은 29일 오후 6시 서울 뉴월드호텔에서 창립 8주년 기념법회를 가졌다.

결식학생에 쌀·성금 전달

조계종립 청담종합고등학교(교장 이근우)는 18일 교내 결식 학생들이 방학동안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쌀과 성금을 모아 전달했다(사진).



학생 50명에게 1인당 쌀 20kg과 1만원권 농산물 쿠폰, 라면 1박스 등을 직접 가정 방문을 통해 전했다. 김재경 기자



월운스님 고희 논총 출판 기념법회

동국역경원장 월운스님(봉선사 회주) 고희기념 논총 〈불교학논총〉 출판 기념법회가 20일 오전 10시30분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석주(칠보사 조실), 암도(조계종 교육원장), 일면(광동학원 이사장)스님과 동국대 송석구 총장, 자민련 김용채 부총재, 한나라당 이상현 의원, 중앙일보 이은윤 전문위원 등 사부대중 8백여명이 참석, 축하했다.



해인사 동광당 명진화상 49재

전 해인사 주지 동광당 명진화상의 49재가 18일 해인사총림 대적광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49재에는 해인총림 방장 법전스님을 비롯 도견, 고봉, 송월, 봉주, 정원스님등과 재가불자 1천여명이 참석했다.

덕운스님은 "종단이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감사하다"며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수행과 포교에 매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2돌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공동대표 지하, 민병천)은 19일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 2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우리민족서로돕기 집행위원장 법륜스님을 비롯해 우리는 선우 박광서 대표, 크리스찬아카데미 강원룡 이사장,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서영훈 회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마리아 수녀, 제동초등학교 임명숙 교장 등 사부대중 1백50여명이 참석했다.



동방불교대 동문 '동방인의 밤'

동방불교대 총동창회(회장 이도성 스님)는 23일 오후 5시 타워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제2회 '동방인의 밤' 행사를 가졌다.

대회사를 통해 이도성 스님은 "부처님 말씀처럼 많이 배우기만을 원치 말고 한가지라도 실천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인곡 태고종 총무원장, 박철언 자민련불자회장, 정덕중 태고종 전국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했다.

화엄학림 제5기 학인 모집 공고

실상사 화엄학림은 화엄경을 중심 경전으로 하여 강의, 연구, 토론 위주로 공부하는 종단 교육법에 의거한 전문교육기관입니다.
신심과 원력이 충만한 스님들이 많이 입학하기를 바랍니다.

- 교 수 진 : 연관스님, 도법스님, 법성스님, 현응스님
- 교 과 목 : 화엄현담, 화엄경(80화엄), 유식학, 화엄학개론, 화엄사상사, 일승십현문, 망진환원관, 법계관문, 화엄약책, 삼성원융관 등
  · 특강 : 필요할 경우 무시로 강의함
- 응시자격 : 비구로서 기본교육기관 졸업자 및 예정자(강원, 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학부)이며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비구 사미
- 원서교부 및 접수 : 1999년 12월 1일~1999년 3월 5일(음력 10월 13일 ~ 1월 18일)
- 전형일시 : 1999년 3월 9일 (음력 1월 22일) 오후 1시 실상사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 입학일시 : 1999년 3월 15일 (음력 1월 28일)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1부
  기본교육기관 졸업증서(예정)1부
  사진 5매(반명함판)
  승려증 주민등록증 복사본 각 1매
- 문의전화 : 0671)634--3860, 3861 (화엄학림)
  634-3031 (사 무 실)
  634-3757 (주 지 실)

◐ 입학을 원하는 스님들은 전화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번지 지리산 **실상사** (우:590-850)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연관

1999학년도 제8기 법사 양성 교육을 위한 ——— 한국불교법사대학

통신 출강 법사교육 신입 수강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법사(法師)란

법사의 칭호는 대승경전에 의거하며
일체중생 모두가 해탈의 대자유와
구경법신을 이루기 위해
불교 3보의 이상적 가치를 생활속에
구현하려고 마하연의 정법을
섭수정법하는 대승의 보살로서
불교 종교인의 신앙요건과 법사품수
의례의 과정을 여법히 갖춘
대승행자인 불교지도자임을 말합니다.

특 전

- 각 과정 수료시 법사호품수와 소정의 법사자격증을 수여함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본 법사교단에 포교원및 사찰을 등록할 수 있음
- 법사불교신문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모집안내

1.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2. 수업안내 : ① 출강수업 ② 통신수업
3.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대학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5.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대법사과정 = 2년
6. 원서교부 및 접수 : 1999년 1월 5일~2월 25일까지
7.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대학 교무처

※ 전화 주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한국불교법사종연합회 부설
한국불교법사대학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3층)
☎ (02) 720-1836 · 737-5305
733-1959 · Fax : (02) 737-5305

IMF로 언 가슴에 분규의 아픔까지

"다시 시작합시다." 또 한해가 저물고 있다. 다사다난 했다. 각 종단과 단체는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일정으로 어느 해보다 분주했다. IMF라는 거친 파도를 헤치는 일은 고통스러웠다. 이 가운데서도 불교는 자비행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실직자를 위한 사업·국난극복법회는 중생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준 장엄한 대작불사였다. 조계종사태는 충격이었고 너무 큰 아픔이었다. 참담한 심정으로 우리들의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묻는 화두였다. 불자들은 '다시 시작하자'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98년 불교계의 명암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다. 〈편집자 주〉

98년 불교계 좋은뉴스 7

나쁜뉴스 7



전국순회 국난극복법회

IMF경제난과 관련하여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는 국난극복기원 참회대법회가 전국 8곳에서 개최됐다. 4월 5일 강원도 신흥사를 시작으로 11월 29일 목포 보현정사까지 조계 태고 천태 진각 관음 총지 법륜종이 주관하고 본사와 불교방송 불교TV가 후원한 국난극복기원법회에는 연인원 10만여명이 동참하며 국난극복의 의지를 다졌다. 국난이 있을 때마다 몸을 바쳐 극복에 앞장섰던 호국불교의 전통을 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난극복을 염원하는 참선과 철야정진을 실시해 교계 안팎의 큰 관심을 끌었다.



IMF형 복지사업 활발

IMF관리체제란 상황 아래 전국의 각 사찰과 복지관들은 이른바 'IMF형 복지사업'을 모범적으로 펼쳤다. 조계종의 4개 보현의집과 각 복지관 희망의집 등 13개 노숙자 시설은 타종교보다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불교계가 운영하는 실직구호시설은 개신교, 천주교에 비해 숫적으로는 뒤진 69곳(7월16일 현재)이었으나, 하루 수혜인원은 1만1천 4백명으로 가장 많이 실시하는 등 자비문중의 보시행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북한동포돕기사업 확대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북한내 국수공장이 설립돼 화제를 모았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미주본부(회장 도안)가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호)과의 합의로 사리원에 금강국수공장을 설립한 것, 5월부터 매달 5천달러에 상당하는 20통 규모의 밀가루를 공급하고 있다. 하루 6천 그릇의 국수생산이 가능하다.

종교계의 방북과 주민접촉이 '열풍'으로 불릴만큼 활기를 띤 가운데 불교계도 북한동포돕기 성금모금활동 등을 비롯한 대북지원사업을 꾸준히 전개, 남북불교교류를 확대했다.



백양사 국제무차선회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8월18~22일 열린 '국제무차선회(無遮禪會)'는 사부대중 5천 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야단법석(野壇法席)'을 펼쳤다. 한국 조사선의 전통을 확립하고, 조사선을 인류문명의 좌표 제시하기 위해 열린 '국제 무차선회'는 조사선을 세계에 선보임과 동시에 한국선의 중흥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신적·물질적 공황으로 인류가 겪고 있는 여러 위기에 선사상이 한 줄기 '빛'으로 던져진 행사였다.



천태종 서울 관문사 개원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이 최첨단 서울포교거점 사찰 관문사를 개원하고 본격적인 서울시대를 열었다. 관문사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이점을 살려 무료영화상영, 무료강좌 등 각종 교양프로그램을 마련,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불교포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종단적으로 부산 삼광사, 울산 정광사, 대전 광수사 등과 함께 지방포교 및 행정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는 평이다.



세계 첫 '위안부기념관' 건립

세계 최초의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이 8월14일 경기도 퇴촌면 나눔의집 내에 문을 열었다. 이름없이 죽어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넋을 추모하고, 다시는 이땅에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겨레와 전인류에 역사의 교훈을 남기고자 건립된 이 기념관은 (주)대동의 건물 무상건립, 수차례에 걸친 김영동의 산사음악회, 양심적인 일본인 및 재일동포, 독지가들의 도움으로 어렵게 문을 열어 불교계의 동체대비 실천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불교언론인회 창립

한국불교언론인회가 5월 1일 불교방송 3층법당에서 1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했다. 초대회장에 선출된 신광식(한국방송연구원 사무처장)씨는 "불법으로 현실과제를 풀어내고 교단외호와 불교포교에 앞장서는 언론인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전국의 신문 방송 언론인 불자들의 신심과 친목을 다지고 한국불교의 현실직시를 목적으로 창립된 한국불교언론인회는 마포 다보빌딩 2층에 사무실을 개소했다.

조계종사태 불심 멍들어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불거져 나온 월주스님의 3선문제가 11월 11일의 승려대회와 정화개혁회의 출범으로 이어지며 조계종 사태가 발생됐다. 총무원 청사를 접수한 정화개혁회의는 종정교시를 봉행한다는 명분으로 총무원, 중앙종회와 대립구도가 본격화됐다. 12월 11일 정화회의측에 대한 총무원청사 퇴거 단행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해 총무원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종단 사태는 사법부의 심판을 받았다. 결국 23일 법원과 경찰의 강제집행으로 정화회의는 청사에서 퇴거했다.



이교도 훼불 잇달아 충격

6월3일 서울 보덕사의 불상을 망치로 파괴하는 사건을 시작으로 청주 노봉사, 제주 원명선원과 도림사, 청주 보현사, 충주와 제천지역 연쇄 훼불, 부산 청수암, 북한산 관음보살상, 영주 관음사 등의 불상과 보살상 파괴가 이교도들에 의해 자행됐다.

제주 원명선원의 본존불을 비롯 7백50여구의 불상파괴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범인검거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인 자세와 갈수록 조직적이고 대범해지는 훼불행위 근절은 화두로 여전히 남아 있다.



스님 도박사건 '일파만파'

조계종의 일부 스님들이 도박 혐의로 구속돼 불자들은 허탈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사건의 파장은 일선 포교당과 지방 사찰에까지 번졌다. 폭우로 이재민이 속출하는 가운데 불거져 나온 것도 "스님들은 뭐하는 사람이냐"는 비난과 함께 사회적인 충격을 배가 시키기도 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상습적'이란 수식어를 달고 있었다는 점에서 승가의 계율의식과 세속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승가를 기원하는 불교도 참회법회 등 자정의지를 표하기도 했다.



불교방송-불교TV 경영난

불교방송과 불교TV는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경영난 해소를 위해 부심해 왔다. 하지만 광고 수익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방송국은 재정 수입 확충을 위해 불교방송은 9월28일 후원회 확대 개편을, 불교TV는 9월21일부터 3개월간 '제6차 주식공모'를 실시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한파와 종단사태 등으로 인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불교TV사장 정우스님은 24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경영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문화재도난 훼손 잇달아

올해 역시 문화재 도난이 끊이지 않았다. 2월 순천 선암사에서 탱화 3점 도난을 시작으로 감사 대웅전 후불탱화 1점이 사라지는 등 크고 작은 도난 사건이 줄을 이었다. 뿐만 아니라 훼손된 문화재들도 많다. 대표적으로 금제 귀신사 대적광전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루가 내려앉고 벽이 갈라지도록 김제시에서는 무관심했다. 4월에는 해인사 응향각과 사운당에서 목조문화재의 천적 흰개미가 발견돼 방제대책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군승단 군법사 인사파동

7월 육군 군법사 근무지 이동과 관련, 인사초안을 육군본부에 제출하는 종단보좌관이 친소관계에 따라 법당 배치를 했다는 의혹이 인사대상 군법사들에 의해 제기됐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본부는 종단보좌관이 제출한 인사초안을 백지화하고 인사대상 법사에게 직접 전화면담을 실시해 군승단에 위임한 인사초안 제출권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따라 군승단은 11월 정기총회를 열어 선임법사회에서 인사초안을 작성키로 했다.



월간 잡지 '대중불교' 폐간

지난 5월 교계 유일의 시사종합잡지였던 월간 〈대중불교〉의 폐간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불교계의 손실로 평가된다. 우선 정론의 목소리를 냈던 매체가 사라졌음이요, 또 하나는 정신문화를 업신여기는 교계풍토가 아무런 저항없이 건재함을 과시(?)했다는 점이다. 교계 잡지 대부분에 자칫 도미노 현상을 불러 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중불교〉의 폐간은 이래저래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만은 분명하다.



1999년 청암사 승가대학 입학시험 공고

청암사 승가대학에서는 1999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학과** : 사미니과 OO명
- **시험과목** : 면접, 초발심자경문, 불교의식, 사미니율의
- **구비서류** : 입학원서(본 강원 소정양식), 승려증 사본 은사스님 추천서 건강진단서, 주민등록증 양면복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본인(법명) 도장 및 사진(3×4cm) 4매
- **준 비 일** : 가사(오조), 장삼, 필기도구
- **도 착 일** : 1999년 1월 26일 화요일(음력 12월 9일) 오후 5시
- **시험일시** : 1999년 1월 27일 수요일(음력 12월 10일) 오전 9시
- **연 락 처** : 경북 김천시 증산면 평촌리 688번지 **청암사 승가대학** ☎ (0547)437-0038
- **교 통 편** : 김천 시외버스 정류소에서 오전 (7시 35분, 8시 40분, 10시 10분, 11시 50분), 오후 (2시 20분, 3시 20분)

※자세한 문의는 전화요망

불기 2542년 12월 23일

청 암 사 승 가 대 학 장 지 형

대원불교대학

학 생 모 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6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모집학과**
  불교학과 출강과정 OO명
  통신과정 OO명
- **지원자격**
  진실한 불자가 되고자 하는 분
  정법과 정도를 지향하시는 분
- **강의시간**
  출강/통신 : 주5일 오후7시~8시30분까지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9년 2月 28日까지
- **교과목** : 주5일 수업

1학년	1학기	불교학개론	선종사상사	한국불교사	인도불교사	불전개설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법화사상	정토사상
2학년	1학기	의식이론	반야사상	포교방법론	불교미술	유식철학
	2학기	불교복지론	불교학특강	의식실기	불교상담학	원전강독

※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경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가. 포교당 개설시 상담지원 가능
  나.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다.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02)776-7156, 773-9171, 754-1613 팩스 : 756-7258

최근 교사가 학생에게 손찌검을 했다는 이유로 수업중 경찰에 연행된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것도 학생들의 신고에 의한 것이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실력없는 선생이 숙제는 많이 내준다'고 떠드는 아이의 머리를 쥐어 박았다고 학생들이 교사를 신고하는 등 하루에도 평균 10건 가량의 이 같은 신고가 접수된다고 하니 선생님과 제자라는 단어가 이 사회에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렇듯 사표(師表)의 위상이 곤두박질하는 한 우리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 대다수의 교사는 교육자의 양심에 따라 아이들과 이 사회를 지키려 애쓰고 있다. 교권회복은 우리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는 일이다. 스승에 대한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자. 〈편집자 주〉

이렇게 들었다

흔들리는 교권

스승 공경하길 부처님 대하듯

▨제자는 스승 있는 곳에서 거친 말을 하지 못하며, 스승의 꾸짖음에 대꾸해서는 안 되며, 스승의 상석을 먼저 닦아서 먼지나 개미 따위가 없게 해야 하며, 스승에게 자주 가서 필요한 것을 물어야 한다.

제자는 스승 앞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침을 뱉지 못하며, 스승의 경행(經行)하는 곳은 늘 쓸어야 하며, 스승의 하는 일을 힘껏 도와야 하며, 남 있는 곳에서 스승의 과실을 말하지 않아야 한다. 〈선공경경〉

▨스승 공경하기를 부처님 공경하듯 해야 한다. 〈무진의보살경〉

▨제자는 마땅히 다섯 가지 일로 스승을 바르게 존경하고 바르게 봉양해야 한다. 다섯 가지란, 모르는 점은 반드시 밝혀서 질문하며, 배움을 반드시 사랑하며, 일을 반드시 민첩히 처리하며, 그릇된 행위가 반드시 없게 하며, 스승을 반드시 공양함이다. 〈선생자경〉

▨제자가 스승을 공경해 받드는 데는 다섯 가지 일이 있어야 한다. 다섯 가지란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필요한 물건을 공급함이요, 둘째는 존경해 봉사함이요, 셋째는 존중해 기대함이요, 넷째는 가르침을 따라서 어기지 않음이요, 다섯째는 스승으로부터 들은 가르침을 잘 수지해 잊지 않음이다. 〈장아함경〉

▨스승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스승을 보았을 때는 곁에서 섬기고 보지 못할 때는 가르침을 생각하여, 효자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같이 하며, 사람들이 음식을 생각하는 것같이 해야 하느니라. 〈중심경〉

▨부처님께서는 대중을 강당에 모이게 하고 교단의 발전을 위해 일곱 가지 법을 말씀하셨다. 첫째 서로 자주 모여 정의를 강론하라. 둘째 상하가 하나로 협력하여 공경하고 뜻을 어기지 말라. 셋째 법을 받들고 금할 것을 금하여 제도를 어기지 말라. 넷째 스승을 받들어 섬겨라. 다섯째 마음을 닦되 효도와 공경을 우선으로 하라. 여섯째 계행을 닦아 욕심과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 일곱째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뒤로 하며 명예와 이익을 탐내지 말라. 그리하면 법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니라. 〈장아함경〉

▨"선남자야, 보리심을 일으키고 나서 해야 할 다섯 가지 일이 있으니, 첫째는 좋은 벗을 가까이함이요, 둘째는 성내는 마음을 끊음이요, 셋째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름이요, 넷째는 연민의 정을 일으킴이요, 다섯째는 부지런히 정진하는 일이니라." 〈우바새계경〉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크게 괴로웁다. 예의와 질서가 없고 남의 뜻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큰 의리(義利)로부터 타락하게 된다. 공경할 줄 아는 이는 예의와 질서가 있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해서 그는 안락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공경할 것이 있어서 예의와 질서를 지니게 되고 남에게 순종하면 의롭고 이로와서 크게 만족해 진다. 〈잡아함경〉

▨제자에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일이 있을 때는 꾸짖어 가르쳐 주어야 한다. 첫째는 신심이 없음이요, 둘째는 게으름이요, 셋째는 거친 말이요, 넷째는 부끄러움이 없음이요, 다섯째는 악지식(惡知識)과 가까이 지냄이다. 다만 다섯 가지 일 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라도, 다 꾸짖어 가르쳐야 한다. 〈유부근본비나야율〉

"다시 국민의 귀의처 되려면"

제 언 ㊦ 대원사주지 현장스님



분쟁 원인 '돈'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불교발전재단' 구성 전문사부대중 운영

이승만정권 출범 직후 서울대 도서관에서는 불교 자료들이 자취를 감추고 영어로 된 기독교 서적들이 빈자리를 채웠다는 것이 그 당시 담당자의 증언이다. 이승만 정권의 불교정책은 임영신의 논문대로 한국을 어떻게 기독교 국가로 만들 것인가에 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것은 우리들이 받아 온 교육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민족문화를 증흥시켜 문화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던 백범 김구는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기독교 세력에 의해 제거되지 않으면 안될 운명이었던 것이다. 기독교 정신에 의한 민족 개조론을 부르짖던 그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은 한국 사회에 기독교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민족종교들을 와해시키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기독교의 일본선교 실패는 큰 교훈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실이 기독교인인 이승만을 움직여 일제 청산과 불교정화의 명분을 빌려 불교 자멸의 시나리오를 꾸민 것이다. 그것이 불교정화의 씨앗이 되었다. 지금도 살아 있는 기독교의 원로 목사가 불교정화(?)에 불을 붙이는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의 증언이다.

이렇게 보면 불교 조계종의 분쟁은 기독교의 선교 전략에 희생 제물로 이용된 골이다. 불교 정화의 와중에서 가장 큰 손실은 절 집에서 공부한 인재들을 모두 잃어버린 일이다. 그것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크게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전부터 내려오던 불교의식들을 '대처승하던 것'이라고 많이 폐지하여 불교 문화의 맥이 단절된 것이다. 절을 뺏고 빼앗기면서 소중한 문화재들이 수없이 훼손되고 도난 당했으며 끝없는 재판 소송비용으로 불교 재산은 바닥이 나 버렸다. 불교 분쟁에 힘입어 기독교의 선교 정책은 한국 땅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다. 민족을 분열시키고 국조 단국신앙과 우리의 전래 풍속을 미신으로 매도하고 우상숭배 등의 이유로 훼불과 사찰방화 등 민족문화를 파괴하고 있는 죄악에 대해 양식 있는 기독교인들의 큰 참회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교정화가 시작된지 54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수행을 통해 자체 정화를 이루지 못한 일은 불교 지도자들의 큰 허물이 아닐 수 없다.

3. 조계종 화두 '돈'과 '총무원장'

송광사 구산스님 생전에 서울에서 기자들이 찾아 와 물었다.

"1600년 찬란한 불교문화를 가진 한국 불교가 오늘날 왜 이렇게 병들었습니까?"

"어디에 병든 불교가 있느냐. 불교는 병들지 않았다. 병든 것은 현대 문명이다. 병든 문명 속의 병든 인간들이 불교를 구성하고 있어서 병든 것처럼 보일 뿐이다. 불교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조계종 폭력의 뿌리를 캐 들어가면 기독교의 음모와 정치권력의 농간으로 시작됐지만 요즘의 불교 분쟁은 문중간의 세력 다툼도 아니고 감투싸움도 아닌 '돈'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불교가 세속화되면서 고달픈 도의 길을 외면하고 막강한 권력과 달콤한 돈의 매력에 무릎 꿇어 버린 '굵은 스님(큰스님 아님)들'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또 한국 불교에서는 세계 어느 불교 국가에도 없는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총무원 제도가 불교 발전이 아닌 불교 망신의 구심점 노릇을 하고 있다. 서울에서 불교 활동을 하는 재가불자들은 "조계종이 빨리 망해야 불교발전을 생각할 수 있다"는 한탄을 하고 있다.

불교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한숨 쉬고 있는 지금이 한국 불교로서는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자체 정화'의 가장 좋은 기회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조계종은 한국 사회에서 퇴출 대상 제 1번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현재 조계종의 크고 작은 분쟁들은 그 원인이 한 가지, '돈' 때문이다. 수입 많은 사찰을 차지하려고 하는 측과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간의 총무원을 통한 로비 활동이 밖으로 '닭벼슬 싸움'으로 비쳐질 뿐이다.

우리 나라 정부 예산과 마찬가지로 조계종도 가장 많은 예산이 국방비(?)로 탕진되고 있다. 불교 분쟁의 원인이 돈 때문이라는 증거는 가난한 절에서는 아직까지 한번도 싸움이 일어난 적이 없었음을 생각해 보면 된다.

다음은 조계종의 분쟁 원인을 해결하고 불교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필자의 소견이다.

먼저 한 개의 행정사찰(조계사)과 세 개의 관광사찰(불국사, 신흥사, 내장사) 다섯 개의 기도사찰(선본사, 연주암, 보문사, 흥련암, 보리암)을 종단의 직영사찰로 지정하여 공개 운영해야 한다. 직영 사찰은 현 주지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공개 운영 체제로 전환시킨다. 그리고 위의 아홉 개 사찰에서 얻어지는 재정수입을 기반으로 하여 '불교 발전 재단'을 만든다. 재단의 운영은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부대중으로 구성하고 중심 사업으로는 불교 교육과 포교 사업, 사회복지와 국제불교 교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4. 율장의거 불교정신 회복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서야 한다고 하였다. 이제까지 불교 분쟁의 큰 원인이었던 '돈'을 불교 발전의 원동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총무원 제도를 없애고 본사 중심제로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현재의 총무원은 교육과 포교, 약간의 행정 업무만 남기고 각 신행단체의 사무실로 쓰게 한다. 직할사찰 주지 임명은 조계사 주지가 대신하고 총무원장은 명예직으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행정 수반으로만 활동해야 한다. 총무원 제도는 일제가 불교 통치의 수단으로 만든 기구이며 '대책 없는 정치승려'들만을 양산해 내기 때문이다. 불교를 신속하게 파멸시켜 버리는 가공할 위력을 지닌 세속적인 선거 제도와 종회의원 제도도 하루 빨리 없애고 경전과 율장정신에 의거한 불교 정신이 회복되어야 한다. 지방자치 시대에 발맞추어 본사들은 전통과 가풍을 살려 지역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수행과 포교에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이제 스스로 곪아터진 고름을 시원하게 짜내 버리고 총무원과 사찰의 구조조정을 통해 불교의 본래 모습을 회복해야 할 때이다. 한국 사회의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해 버린 불교승단이 다시 국민의 정신적 귀의처가 되고 민족의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주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군들끼리의 몸서리치는 싸움을 그치고 모두가 제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남의 정신에 그만 휘둘리고 제정신으로 돌아갑시다."

본지 명예기자들의 '불교계 새해에는…'

스님, 정법으로 돌아가세요

조계종 사태가 두달째 계속되고 있다. 스님들의 이권다툼에 조계사는 폐허가 되다시피했고, 불자들은 어디를 가야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불교에 대한 혐오감이 팽배해져 사회적으로 불교인이라는 사실이 흉이 돼 버렸다. 10년, 20년 포교는 공염불이 돼 버린지 이미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인들이 하나 둘 교회로, 성당으로 발을 돌린다 해도 과연 어떤 명분으로 그들을 설득할 것인가.

불교의 정화와 개혁은 부처님 법에 가까이 가는 것일 것이다. 스님들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참회하고, 공심으로 절살림을 운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신도들도 '우리 스님'을 쫓으며 이권다툼에 휩쓸려 다닐게 아니라, 경전공부를 근본으로 삼아 기도정진하며 스님들이 부처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드리자.

이영자〈신수회 회장〉

불자 모두가 호법신장 돼야

이번 조계종 사태는 '사부대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 스님들의 분쟁과 충돌은 '우리 스님'을 철새처럼 좇는 한국불교의 재가신도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게 만들었다. '나와 뜻이 틀리면 적이다'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이 재가신도들 사이에 팽배해져 버린 것이다.

29일 총무원장 선거를 실시한다고 한다. 이제 재가불자들이 여법하게 나서야 할 때다. '네 스님, 내 스님'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총무원장 선거가 여법하게 치러져 하루속히 종단이 안정될 수 있도록 불자 모두가 호법신장이 돼 나서야 한다. 불교는 스님들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다. 한국불교의 스님들이 무소유정신으로 수행정진하며 종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가불자들이 거울이 되자.

장인식

새싹불자 육성 지속적 노력

어린이불자들은 미래불교의 얼굴이다. 점차 노령화되어가고 있는 불교의 제2 중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싹불자들을 육성하기 위한 종단의 지속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타 종교에 비해 어린이들을 부처님 품에서 보듬어 안을 시설과 어린이교육 포교 프로그램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종단의 지원 못지 않게 어린이 포교를 위한 어머니, 아버지 불자의 관심이 필요하다. 어린이들을 지도해 줄 스님 및 재가 지도법사, 간사들의 솔선수범과 애정도 요구된다. 이같은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기는 어렵겠지만 새해에는 어린이들이 편하고 자연스럽게 절을 찾아와 뛰어놀고 산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종도 모두가 가꿔나갔으면 한다.

이희명화

불교상징물 보호 앞장서야

새해에는 불교의 정체성을 찾는데 노력하는 해가 됐으면 한다. 요즘 상가나 주택가 주변을 살펴보면 '卍'자 간판이 자주 눈에 띈다. 본래 卍자는 고대 인도로부터 길상의 증표로 전래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원의 표지나 불교의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근자에 와서는 OO보살, OO동자, OO도사 등 점집이나 사주보는 곳의 간판과 함께 卍자가 버젓이 걸려있는 것을 본다. 불교가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불교계에는 불교기를 비롯 다양한 불교상징물들이 많다. 무속인들이 불교를 왜곡하고 상징물들을 변질시킨다면 불교계는 '卍'자 특허를 신청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라도 보호하고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불교계가 정체성을 찾아 사회적 위상을 강화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현재명

심야전력기기
IMF·고유가시대 기름값 걱정해소방법
■ 심야전력기기란: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시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로 일반 기름보일러보다 약 1/3~1/4수준의 난방비로 따뜻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한국전력공사협력업체
겨울철난방비를 70% 이상 절약합니다.
▸심야전기 보일러 기존 기름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값싼 심야전기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 온돌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열손실이 없고, 동파의 염려가 없습니다.
▸심야전기 온수기 미리 저장된 온수를 사용함으로 추운 날씨에도 일시에 많은 양의 온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 온풍기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함으로 마루법당 난방에 적합합니다.
전국사찰 심야전력기기·전력공사 전문업체
금강산업·금강기전
"심야전기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 문의전화 ■
☎ 0343)468-7200(代)
·영업부 : 0343)445-6090
·FAX : 0343)445-3370

건강에의 신비! 옥
春川 玉山家玉
玉 태교에서 무덤까지 玉을 달고 산 한국인들
'보석'인가?
'영험한 치료제'인가!
※ 처녀가 옥을 접하면 신비한 미인이 되고 중년여성은 피부가 고와지고 건강해진다. 양귀비는 진옥을 노상 입에 물고 살았다고 한다.
※ 옥을 경락이나 피부에 접촉하거나 몸에 지니고 살면 난치병에 이롭고 옥판위에 손바닥 발바닥을 마찰하면 노인도 회춘한다.
(「王室養命術」에서)
※ 옥도자기 타일위에서 흰쥐를 기른 결과 숫놈 쥐의 정자가 40%증가했다(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창규박사팀)
※ 특히 심장질환, 두통, 불면증환자의 그 절반정도가 완치 효과를 보았고 그외 나머지는 37%~84.8%의 치유효과를 보았다.
(북경중의병원 임상 보고서)
제품 옥목걸이와 장신구, 침대침구류, 기초화장품, 옥도자기등
* 옥의 명성은 2000년전 중국 신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진옥(眞玉)은 이제 전설속으로 사라지고 오늘날은 지구상 유일하게 한국기옥만이 강한 기(氣)가 방사될 뿐입니다. 이옥의 효능과 명성을 모방하여 외국에서 수입된 옥들이 춘천옥 자연옥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링테스트 한가지 만으로도 쉽게 구분됩니다. 진옥이라야 승패가 결립니다.
玉山家® (02)777-0105 (백오옥)

애독자 사은 생활 기공지도
독자 여러분의 요청에 부응하여 다음과 같은 수련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생활 기공 지도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 내 용 ·
가. 변성의식 상태수련
「보이지 않는 것을 과학한다」
도서출판 물병자리 박희준 옮김 참조
나. 공기공과 원극공
「고차원 치료 능력자들의 세계」
도서출판 단. 박희준 지음 참조
다. 정심조식법(正心調息法)
(소망성취에 도움이 되는 염력 개발 특수 호흡법·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임)
라. 오라 충전법 기타.
· 일시와 장소 ·
가. 일 시 : 1999년 1월부터 수시접수
나. 장 소 : 한국레이키요법 연구학회 교실
(전화 02)720-5682/ 725-2311)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 피어선 B/D 809호
다. 지도자 :
번역저술가·레이키 마스터·티쳐 박희준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도로 레이키법도 전수합니다.

불교살력
추가제작을 알려드립니다.
불기2543년도 불교달력을 배본하시다
부족하신 여러 스님네의 요청에 의하여
불교달력을 추가로 제작 하였습니다.
음력 설까지 적은량의 달력도
주문을 받고 있슴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서울시 중구 오장동 69-2
강진정판사
TEL. 02)272-2371 · 269-5040
02)275-9472
FAX. 02)268-2391

올해는 IMF 등 사회의 경기침체가 불교문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음악회 등 문화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었다. 조계종에서 주관하는 불교문학상 공모가 아예 없었고 가을로 예정했던 대규모 불교관현악단인 비사관현악단 창단 기념 대규모 음악회도 취소되었다. 그런 와중에도 올해가 사진영상의 해로 지정됨에 따라 불교 사진전을 여느 해보다 많이 볼 수 있었으며 불교미술전시회가 꾸준히 이어진 점이 돋보였다.

인물로 보는 '98 불교문화계

사진전등 전시회 꾸준 팔만대장경 음반 나와 불교연극 '느낌…' 호평



◇이강백씨가 극복을 쓰고 이윤택씨가 연출한 '느낌, 극락같은'은 올 연극계에서 주목받은 불교 연극. 사진은 '느낌, 극락같은'의 한 장면.

선암스님(봉원사) 백종하, 김종률, 류영수, 박보하, 이태영씨 등 불교사진작가들은 각자 독특한 주제를 잡아 불교사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선암스님은 연꽃을, 백종하씨는 팔만대장경을, 박보하씨는 우리 시대의 선지식 서옹 혜암 진제 스님을 포커스에 담았다.

이강백씨가 극본을 쓰고 이윤택씨가 연출한 불교연극 '느낌, 극락같은'은 올 서울국제연극제에서 작품, 희곡, 연출, 신인연기, 무대예술 등 5개 상을 휩쓸며 침체된 불교연극계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강백씨의 탄탄한 극본에 이윤택씨 특유의 힘있는 연출력에 힘입어 작품성을 인정받은 '느낌, 극락같은'은 상반된 가치관을 가진 두 주인공의 삶을 대비시키며 인생의 참의미를 불교적으로 성찰케 한 연극.

올해는 팔만대장경이 강화도에서 해인사 장경각으로 이운된 지 꼭 600주년, 세계문화유산 팔만대장경을 음악으로 만들어 발표한 사람은 대중가수며 작곡가인 김수철씨. 김씨는 국악과 서양클래식, 신서사이저 등이 크로스오버적인 기법으로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4악장의 음악을 만들어 5월 14일 조계사에서 봉정식도 가졌다.

종립 고려대장경연구소장스님은 11월 국내 최초로 〈고려대장경 해제〉를 펴냈다. 1~3권은 팔만대장경 해제, 4권은 주제어와 저·역자, 대장경 고유번호 등에 따른 세부목록, 5권은 가나다순에 따른 총목록, 6권은 색인으로 구성해 방대한 대장경을 일목요연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해 불교학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작곡가 유승엽씨는 인도토속악기 오카리나를 사용한 선음악 '혜초'를, 김창수씨는 인도명상음악 CD시리즈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또 이성천 박일훈, 이건용, 황병기, 백병동, 김희조 씨 등 국악계의 쟁쟁한 대가들이 차를 주제로 한 '다악(茶樂)' CD를 펴 냈다. 한편 박범훈, 안숙선 씨 등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합동 윤이상통일음악제에 참여해 남북문화교류에 이바지했다. 박범훈 교수(중앙대 작곡과)는 또한 민족의 독립과 불교의 대중화 현대화에 앞장섰던 용성스님의 삶과 사상을 국악교성곡으로 만든 '용성'으로 호평을 얻었다.

종견작가 박태순씨는 원효를 주제로 방대한 대하소설 집필에 들어갔고, 정찬주씨의 성철스님을 소재로 한 소설 〈산은 산 물은 물〉은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한승원, 박일문, 백금남씨도 각각 불교를 주제로 한 소설을 발표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이지만 불교관련 전시회가 꾸준히 열려 시름에 찬 불자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었다. 정비파씨는 경주 석굴암내 38위 불 보살상의 질감과 골격을 그대로 재현한 대형 목판화전을 가졌으며 전남도 무형문화재 탱화장 31호 고재석스님은 탱화인생 60년을 회향하는 첫 불화전을, 양주혜씨가 반야심경을 소재로 설치미술전, 김호석씨는 성철스님 다비식을 화폭에 담았다. 수안·주일·성각·성호 스님은 자연과 달마를 소재로 한 선화전을 가져 불안과 초조에 싸인 현대인들에게 위안을 주었으며 동승그림으로 유명한 원성스님은 미국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 순회전을 가져 천진불심의 미소를 세계인의 마음에 심었다.



◇선암스님



◇원성스님



◇박범훈교수



◇정찬주씨



◇이윤택씨



◇김수철씨

한편 제23회 전승공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건칠지불'의 작가 상기호씨는 고려시대 이후 맥이 끊겼다는 건칠지불을 재현했다는 공보다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는 시비가 끊이지 않아 결국 11월말 통도사 박물관에 기증하는 것으로 잡음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불심시심 〈156〉·끝

달빛에 시정도 상쾌해

雲葉離離蠶後天 (운엽리리제후천) 구름 잎 드문드문 비 갠 뒤의 하늘
風光瀲灩畵欄邊 (풍광담탐화란변) 풍광도 맑고 맑은 단청 난간의 갓
繞窓淸澗初聽瑟 (요창청간초청슬) 창을 두른 맑은 새내 처음 듣는 비파이고
近水高樓若泛船 (근수고루약범선) 물 가까운 높은 누대 떠있는 배 같구나
楓樹嫩黃輸客興 (풍수눈황수객흥) 단풍나무 연한 누르름 나그네 흥 실어오고
桂林灘灑重仙緣 (계림소쇄중선연) 계수나무 숲 시원스레 신선 인연 거듭하다
新晴月色金沙淨 (신청월색금사정) 새로 개인 달빛 금모래도 깨끗해
更覺詩情倍爽然 (갱각시정배상연) 시의 정서 배나 상쾌함 다시 깨닫다.

함흥대사의 '가을 비 개다(秋雨新晴)' 한 시이다. 맑게 개인 가을의 풍경을 시인의 안목으로 그려낸 것. 창 밖의 새내 울림을 비파소리로 듣고 높이 솟은 누대를 가을 물결 위에 떠있는 배로 이해하고 있다. 담담한 가을 물색을 시인의 상상으로 환치시키고 있다.

지난 호에서는 학의 울음을 경전을 외우는 소리로 미화시키더니, 여기서는 시냇물 소리를 비파 소리로 듣고 있다. 무정물을 유정화시키는 전형적 솜씨이다. 하기야 인간의 솜씨로 만들어진 소리가 이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를 따를 수 있겠는가. 물소리가 세상의 비파보다 나은 것은 당연하다. 그저 어려움 없이 들을 수 있는 흔한 일이기에 무심히 여겨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세속 삶의 어리석음이겠지.

누대 주변에는 단풍 잎에 연하게 물든 누르고 붉음이 나그네의 흥을 실어오고(輸) 있다. 흥을 듬뿍 실어다 부쳤다. 누대가 물 위에 떠있다 함도 평상인의 범상한 생각으로는 그리 쉽게 떠오르는 공간 감각이 아니다. 누대라면 산이 공간이고 배라면 바다가 공간이다. 이 어울릴 수 없는 공간을 한 곳으로 몰아왔다. 물에 가깝다는 배경설정이야 있었지만, 그래도 시인의 상상적 공간구성이 아니라면 가능하지 못하다.

스님은 철저하게 시인이다. 이러한 가을 경치에서 시상이 떠오름은 역시 당연한 일이다. 물론 이 시정을 돌우기 위해서 맑게 떠오르는 달이 매개물이 되었지만 결론을 배나 더한다는 시정으로 마무리 하는 것은 역시 시인으로서의 자연 애호와 감상의 바른 안목에서 오는 것이다. 금모래란 표현이 스님의 언어 선택에 대한 자신의 고백이라 해도 무방하겠다.

이종찬 〈동국대 명예교수〉

"한국 전통석탑 채색됐다"

동국대박물관 박홍국연구원 주장

한국의 전통석탑은 채색석탑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의 박홍국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논문 '한국 석조탑상의 채색론'(〈한국 전탑의 연구〉에 수록)에서 석불 및 석탑이 채색되어 있다고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연구원은 △경주 감은사지 3층석탑의 옥개석에 남아있는 회칠 △경주 서악동 3층석탑의 탑신에 새겨진 인왕상 입술에 남은 붉은 색흔적 △석탑에 다양한 사천왕상등 다양한 부조상이 조각되어있는데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나 조각이 없는 석탑은 그림을 그려 넣었을 것이라는 추정 △경주 무장사지 3층석탑이나 칠곡 기성동 3층석탑에는 조각없는 안상만 있는데 이는 조각 대신 그림을 그려넣었을 것이라는 추측 △탑의 옥개석 아래면에 물이 흘러들지 않도록 한 돌기도 결과적으론 탑신에 그려진 색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경주 남산 배리석불입상의 좌우 협시보살의 광배 △경주 선도산 마애불 △충북 괴산 원풍리 마애불에 남은 회칠 흔적 △서울 북한산 마애석가여래좌상 입술 △불국사 다보탑 석사자의 채색 흔적 △경주 서악동 삼층석탑 탑신의 인왕상 입술의 붉은색 등을 채색의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정영호교수(한국교원대)는 "한국의 석탑이 채색되었다는 주장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며 "탑에 장식이 달렸다거나 하는 것은 있었지만 채색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명상음악 들으며 문화강좌

광주 티벳밀교전시관서 1월5일~3월말

광주 전일빌딩 5층 티벳 밀교예술전시관에서는 시민과 학생을 위한 명상음악 감상 및 문화강좌를 새해 1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매주 3회(화 목 금 오후 2~4시)씩 3개월간 개최한다.

강사와 강좌는 티벳스님인 쵸펠스님이 '티벳 정신문화와 예술세계' '죽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현장스님(보성 대원사 주지)이 '인도명상음악 해설과 감상', '선체조와 건강기공', 김범수씨(전남대 동양미술 강사)가 '인도 티벳미술의 회화기법' '동양미술사 개론' 등이다. 12월 30일까지 접수마감. 선착순 50명. (062)222-1165



'월간 여래' 창간호 나와

불자는 물론 일반 대중과 함께 생활하는 불교전문잡지를 표방한 월간 〈여래〉(발행인 김나효)가 21일 창간호를 발행했다.

〈월간 여래〉는 명찰과 고찰 안내는 물론 사찰 불사 및 포교 불사에 전력하고 있는 스님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재가불자들의 신행활동을 알림으로써 현시대에 맞는 불교 만들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창간호에는 '동체대비의 실현'을 주제로 서옹스님(백양사 방장)의 휘호 및 법어와 함께 박석교수(상명대)의 '21세기 문명의 대전환과 불교의 미래' 기고문, 36년간 절 짓는 일 한 길만 걸어온 장창원씨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밖에도 사회, 연예계 소식 등 다양한 내용을 불교적 시각에서 폭넓게 다뤘다. 값 5천5백원.

화제의 전시

한국불교미술전

한국불교미술협회는 30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관훈동 다다갤러리에서 제9회 한국불교미술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김창균 강순형 조성호 박병희씨 등 회원 21명의 작품이 전시된다. (02)735-89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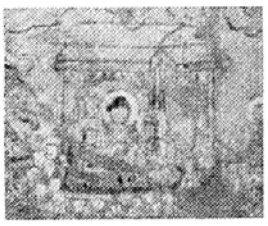
대장경판-장경판전 우표



정보통신부는 해인사 대장경판과 판전을 도안한 세계유산등록 특별우표 2종을 발행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동록된 우리 문화재를 널리 알리기 위해 발행한 특별우표는 전국 우체국에서 발매하며 대장경판 우표〈사진〉는 170원, 판전은 380원.

조선불화 2점 경주대에 기증



신라역사과학관(관장 석우일)은 개교10주년을 맞는 경주대학교에 최근 반야용선도(般若龍船圖)〈사진〉 1점과 나한도(羅漢圖) 1점을 기증했다. 이들 벽화는 특이한 도상(圖像)과 색채 등이 뛰어나 조선시대 불화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반야용선도는 왕생자를 아미타부처가 주재하는 서방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아미타삼존과 그 왕생자를 태운 용선을 묘사한 그림이다. 나한도는 몸은 약간 오른쪽을 향하고 풀방석에 앉아 명상에 잠긴 나한의 모습을 담았다.

이 가운데 반야용선도는 두루마리 그림과 19세기 통도사 벽화 등에서 나타나는데 이들은 거의가 19세기 이후에 조성된 벽화여서 이번에 기증된 벽화처럼 18세기 유물로서는 드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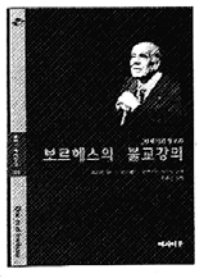
기증된 벽화는 18세기 조선시대 불교벽화로 보존처리된 후 경주대 박물관에 전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벽화는 86년 경남 김해시 서림사 중수 공사 때 벽화의 중요성을 인식한 석우일관장이 과손 직전에 벽화부분만을 해체 복원하여 보관해 온 것이다.

강지연 기자

여시아문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20C의 창조자 보르헤스, 그의 사상적 기반은 '불교'였다는데…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101 -교리 입문편
보르헤스의 불교 강의
'20C의 창조자' '환상 문학의 창시자' '사상의 디자이너'라 불리우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그에게서 전해 듣는 붓다의 가르침, 그 핵심을 모았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일리시아 후리도 공저, 김홍근 편역/ B6 변형 241쪽/값 5,500원

'화 잘 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최고의 수치로 여기는 티베트인들의 성전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201 -생활불교편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노래하지만 그것보다 불교에 대한 마음가짐과 기초 수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티베트인들의 정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초펠스님 편역 / B6 변형/ 176쪽/ 값 4,000원

황폐한 우리의 교육현장에 던지는 붓다의 음성 '천상천하유아독존'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502-문화 학술편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그릇대로 베풀어 주셨던 부처님의 대기설법. 바로 '인간존중의 교육관'이 오늘날에는 더욱 소중하게 여겨진다.
김종서 지음/ B6 변형 182쪽/ 값 4,500원

경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숫자들… 그 깨침의 묘리를 푼다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102 -교리 입문편
법수로 배우는 불교
불교의 법수는 일반적으로 쓰는 세속의 숫자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에서 중생과 세계의 모습에 대해 내린 분석 그리고….
이제열 지음/ B6 변형 196쪽/ 값 4,500원

모든 중생에겐 불성(佛性)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성불할 수 있을까?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501-문화 학술편
불성이란 무엇인가
불교의 근본 교리인 무아설(無我說)에 의하면 영혼의 존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모든 중생에 불성이 있다는 여래장 사상은 무아설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책은 이러한 의문들을 말끔히 씻어준다.
전치수 지음/ B6 변형 196쪽/ 값 4,500원

조선 시대 선사 44인의 선시 모음집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401-문학편
허공의 딸꾹질
이 책의 특징 한 가지를 꼽는다면 이종찬 교수의 유려한 해설이다. 20년 가까이 선시연구에 전념해 온 이교수의 선시 해설은 그 자체로 완벽한 시어를 다시 창출하고 있다.
이종찬 지음/ B6변형 282쪽/ 값5,000원

국내 출판계의 총체적 불황 속에서도 교계 출판사는 나름대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올 한해를 보냈다. 이런 가운데 법정스님의 〈산에는 꽃이 피네〉가 전국 주요서점에서 장기간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 여시아문이 집계한 올해 '베스트불서 10'을 보면 좋은 책은 언제든지 독자들의 관심을 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특히 〈생활 속의 기도법〉과 〈불교입문〉이 96년 이후 3년간 계속해서 베스트 10에 오른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98 베스트에 들어가는 10권의 불서를 읽은 저명인사들의 200자 독후감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98 불서 베스트 10-200자 독후감

■ 산에는 꽃이 피네



법정스님의 청빈과 무소유 정신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수필이 아니면서도 수필 같은 잔잔함이 스며있고, 그러면서도 때때로 나타나는 호랑이 포효 같은 법문은 세상사에 찌들어 사는 나 자신을 부끄럽게 하기도 했다. 불필요한 것으로부터의 자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스님의 맑은 삶이 바로 그에 대한 해답이라고 생각했다.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이 가난한가를 진지하게 성찰케 한다. 함종한(한나라당 불자회 회장)

■ 생활 속의 불법 수행



지식인은 지식 때문에 걸림이 있고 배움이 적은 사람은 생각에 매여 바른길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 대행스님의 심법(心法)은 이런 경계에 얽매임이 없이 누구나 쉽게 불법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하는데 그 매력이 있다. 상황상황에 따라 불자들이 궁금해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에 대한 대행스님의 법문은 신행생활에도 큰 도움을 준다. 우리 연구소 불자회 회원들에게 이 책을 법보시했는데 모두 만족해했다. 윤현로(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편안하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 책이다. 특히 생활불교와 관련한 경구가 많아 일상에서 필요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어 좋다. 잠깐 보고 내려놓으려해도 끝까지 읽지 않을 수 없었다. 실은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이라는 제목만 보고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스토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읽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도 있다. 지금도 소중한 소지품처럼 곁에 두고 있다. 윤청광(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

■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예불의 진정한 의미와 올바른 신행생활의 길잡이가 될 만한 책이다. 불자들은 보통 막연히 예불하는 경우가 많다. 예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기복과 이기, 아집에 빠지기 십상이다.

이 책은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가르친다. 읽다보면 예불의 의미와 자세는 물론 자기자신을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안목도 길러지게 됨을 느끼게 된다. 임완숙(조계종 전국교사불자연합회장)

■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이 책은 한마디로 금강경 해설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혁명적인 해설서이다. 다양한 실행활의 실례를 넣어 경의 내용이 우리 일상생활과 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 것도 특이하지만, '3분 대승정종분'을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쳐라'하는 해석, '4분 무주상보시'는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보시'라는 관점은 기존의 해설서에서 보지 못했던 시원하면서도 독창성이 넘쳐 흐르는 내용이었다. 박상회(대한매일신문사 관리부장)

■ 불보살 명호 이야기



가장 가까우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불보살의 명호를 자세히 다루고 있어 불자들이나 일반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다. 경전 속에 나타난 여러 부처님과 보살에 관한 이야기가 쉽고 재미있게 설명돼 있어 지루한 줄 모르고 읽어 내려간 기억이 난다. 시종 잔잔하고 섬세한 문체도 매력적이었다. 저자의 절절한 불심이 묻어난 책 곳곳에서 다시 한 번 나 자신의 신행생활을 점검해보는 계기도 마련해 주었다. 정병조(동국대 부총장)

■ 불교입문



조계종단에서 불교 입문자를 위한 안내서로 편찬한 책이지만 초심자 뿐만 아니라 불교를 웬만큼 아는 불자들이 보아도 유익하도록 꾸며져 있다는 느낌이 든다. 불자로서 알아야 할 기초교리를 중심으로 부처님의 생애, 불교의식과 문화, 상식 등을 간명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큰 장점이다. 또 사찰에서의 예절, 수행·기도하는 법 등 구체적인 신행 실천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더욱 좋다. 현진스님(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



우리는 생활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마음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을 다루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행동양식을 결정하는 토대다. 이것은 마음의 뿌리를 아는 것이며, 삶의 여유를 찾는 기본이다. 이 책은 우리네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친다. 비단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생활의 지혜로 삼을만한 가르침이 넘쳐있다. 불교를 생활 속에 전하는 책이다. 심성구(열린사회시민연합 공동대표)

■ 생활 속의 기도법



기도는 분명히 불교 수행법 중의 하나다. 중국불교의 영향으로 선을 중시하면서 정토계통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기복적 행위로 잘못 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 책을 펼쳐들면 그런 생각은 사라진다. 불법의 이치를 찾고 기도가 얼마나 좋은 수행방법인가를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신도들의 체험담은 감동적이었고, 불교를 더욱 쉽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누구든 읽고 나면 기도하고 싶어질 것이다. 김희옥(수원지검 평택지청장)

■ 남산이 북산을 보고 웃네



언뜻 보면 동서양 역사적 인물들의 죽음의 여러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죽음이 아닌 삶이라는 주제를 완숙하게 풀어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일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성찰케 하고 그러면서 머리 속에 남는 교훈이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행간에 스며있는 뜻이나 문장의 아름다움도 좋았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느끼게 하는 양서로 꼽을 만하다. 최병호(한국수필산책문학회장)

책방 '여시아문' 집계 '올해의 베스트불서 20'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산에는 꽃이 피네	법 정	동쪽나라
2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 족 사
3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 율 순	신 우 당
4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5	생활 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6	생활 속의 불법수행	현대불교신문사	여시아문
7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김 현 준	효 림
8	불보살 명호이야기	이 윤 수	민 족 사
9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	용 타	대원정사
10	남산이 북산을 보고 웃네	맹 란 자	세훈출판사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1	불교교리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12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김 현 준	효 림
13	기도	일 타	효 림
14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초 펠	여시아문
15	무소유	법 정	범 우 사
16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17	자기를 바로봅시다	성 철	장 경 각
18	나는 누구인가	마하리쉬	청 하
19	참선교육	현 담	조계종수선회
20	설법 그 이론과 실제	정 순 일	민 족 사

98 불서출판 화제의 인물

'산에는 꽃이피네' 펴낸 김형균 동쪽나라 대표



"좋은책 만드는 일 출판인의 사명이죠"

"동쪽나라에 해떴죠" 지난 6월 출간된 〈산에는 꽃이 피네〉가 서울 주요 서점가에서 4개월여동안 줄곧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고, '올해의 베스트셀러'에서도 당당히 1위에 오르자 책을 출간한 동쪽나라 김형균대표(47)는 입가에 떠올린 함박웃음을 그칠 줄 모른다.

35만부나 팔렸으니 불교서적으로 이런 대박(출판가에서 크게 히트했을때 쓰는 용어)을 터뜨리기란 좀처럼 어려운 일. 하지만 결코 우연은 아니다. 여기에는 '독자들에게 불교를 알리고 삶의 양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책을 펴내자'는 김대표의 굽힘 없는 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84년 교계 출판계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좌절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책만 만들어낸다면 일반인이라도 불교책을 읽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한시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교계 출판 경력 15년. 어느새 이 집안에서 고참이 되어버린 때문인지 교계출판에 대한 책임감이 늘 무겁게 느껴진다.

"아직도 불자들 사이에 책 읽는 풍토가 성숙해있지 못한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교계 출판사는 결국 불자들이 주인 아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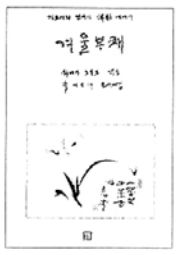
책 읽는 풍토야말로 불교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는 김대표는 불교의 가르침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감에 따라 불교출판 전망이 밝을 것이라는 믿음을 내보였다.

김형균 대표는 84년 월간 〈금강〉 편집장과 지금은 폐간된 〈대중불교〉 편집부장을 지내고 86년 불지사와 동쪽나라를 설립, 불교출판 발전에 기여해 왔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불교에세이 '겨울부채'

일본스님 쓰고 목사가 번역 수녀들 출간



까리따스수녀회가 운영하는 생활성서사가 펴낸 불교에세이 〈겨울부채〉는 '종교화합'의 책이다. 일본 스님이 쓰고 감리교 목사가 번역하고 수녀들이 펴냈기 때문이다.

〈겨울부채〉(원제:December Fan)는 일본불교 진종(眞宗)의 스님이자 철학자인 기요자와 만시(1863~1909)가 입적하기 5년 사이에 쓴 글들을 제자 하네다 노부오가 84년 영역해 엮은 책. 7편의 짧은 글들로 1백여쪽에 불과하지만 '기요자와 스님을 말하지 않고서는 일본불교를 말할 수 없다'는 일본 불교계 및 철학계에서의 위상을 고려하면 내용의 깊이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재생용지에 번역자의 육필을 그대로 옮긴 것이 특이하다.

이 책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보여준 스님의 삶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일깨워 준다.

기요자와 스님은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자신의 경험으로 입증하기까지는 가치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불교의 기본 가르침이란 '해방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인가.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해방' 스님의 대답은 바로 이것이다. '자아를 초월한 힘을 통한 해방'을 주제로 한 글에는 이런 스님의 불교관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런가하면 '불자들이여, 어째서 자신을 존경하지 않는가'라는 주제의 글에서는 오늘의 승려들이 부처님의 제자된 위엄을 스스로 낮추고 속세의 동정을 구하고 있다고 신랄히 비판한다.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을 열심으로 실천에 옮기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한다.

이 책을 번역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이현주 목사(53)는 후배 목사의 권유로 이 책을 읽고난 후 기요자와 스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번역을 결심했다. 값 3천원. 한명우 기자



보살사상성립 체계적 정리

이봉순씨 학술서 펴내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으로 함축시켜 표현할 수 있는 보살사상은 불교의 핵심사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살사상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지 않은데다, 대승불교에 들어와서 성립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이들도 많다.

주부학자 이봉순씨가 펴낸 〈보살사상 성립사 연구〉(불광출판부 刊)는 초기불교에서부터 초기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보살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술서로, 10년 가까이 보살사상 연구에 매진해 온 이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제1장에서는 초기경전인 4아함 등 남전의 불전에서 보살사상을 찾아 보살의 의미와 보살의 실천행법 등을 망라했으며, 2장에서는 부파불교의 대표적 학파인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와 대중부(大衆部) 등의 보살사상을 살피면서 부파불교의 보살사상이 초기불교에 그 연원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3장에서는 초기의 대표적 대승경전인 〈대품반야경〉 〈유마경〉 〈묘법연화경〉 〈무량수경〉 등의 보살사상을 살피면서 보살도가 차츰 정비되고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설명했다. 값 1만5천원.

016 PCS 최저가격·최고보시 이만한 제품을 이만큼 싼가격에 준비하였습니다

부다피아 쇼핑몰이 스님, 불자님께 드리는 고객 사은 잔치!

한화 G2-F21



절전기능
-세계최초의 광센서 착용
깨끗한 통화
자동 검색 기능
음성/문자 메시지 기능
17종의 다양한 전화 벨 소리
유해 전자파 방지 도료
(인체에 미치는 피해 제거)
전자 계산기 기능
자기번호 송출 기능
비상전화 다이얼 기능

크 기 125×44×26㎜
무 게 144g (소형 배터리 사용)
연속통화 배터리S 90분
배터리M 168분
배터리L 300분

사은 가격 50,000원 (가입비만)

한화 F31



천PCS중 최소형
한화의 새로운 PCS-F31
Sporty하고 세련된 디자인
초대형 화면 표시창
초경량 PCS
예절모드
일정관리

크 기 107×43×20㎜
무 게 77g (소형 배터리 사용시)
연속통화 배터리S 90분
배터리M 160분
배터리L 210분

사은가격 75,000원 (가입비분납)

삼성 애니콜



SMS서비스
이어마이크 폰 접속기능
음성 다이얼 기능
자기지역 번호 자동 다이얼
예약 통화 기능
알람 기능

크 기 114×50×22㎜
무 게 105g
연속통화 최대 240분/75시간
통화 대기

사은가격 20,000원 (가입비분납)

LGP-6200F



작고 단단한 싸이언
자동응답기능
독특한 전화벨소리
길어진 배터리 사용시간
말로거는 음성인식은 기본
자동조명기능
지역번호 자동다이얼

크 기 107×45×25㎜
무 게 89g (소형 배터리 사용시)
연속통화 배터리M 130~140분
배터리L 260~300분

사은 가격 60,000원 (가입비분납)

삼성 SPH-4700



최대 420분 연속통화/125시간
통화대기
매너기능
한글/영문 SMS서비스 기능
바로 전화걸기
전자계산기/스톱워치
대화형 문자정보서비스 지원

크 기 116×45×23㎜
무 게 105g
연속통화 배터리M 240분
배터리L 420분

사은 가격 65,000원 (가입비분납)

요금 납부 방법은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재 해야 됩니다.
신용카드 결재 이외는 10,000원이 추가 됩니다.
※선불카드 2,000원 증점 증정
(부가서비스 자동연결 3개월 무료이용 요금)

신청서 접수
우편번호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부다피아 쇼핑몰 담당자 앞
전화 : 02-732-1522 / 737-8881(대표)
팩스 : 02-737-0697 / 737-0698,0696

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006-01-0783-279	현대불교신문사
농 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우 체 국	010041-0289770	현대불교신문사

'불교와 현대와 만남' 다각적 노력

결산 '98 불교학술행사

98년 교계 학술은 '불교와 현대와의 만남'으로 요약된다. 소장학자들의 연구가 돋보이는 가운데 소규모 월례발표회 등을 통해 불교사상을 현대적 의미로 새롭게 조명해 보는 행사가 지속적으로 열렸다. 또 IMF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불교를 세계에 선보이며 불교사상을 21세기를 선도할 사상으로 제시하는 국제 학술행사가 꾸준히 열려 학문적 내실을 다진 한 해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각 학회의 춘·추계 학술세미나에서 나타나 발표자의 겹치기 출연(?), 연구주제의 편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학회의 개방적 운영과 학문교류, 타학문과의 비교연구등이 해결과제로 남았다.

△현대와의 접목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가지 주제에 대한 다각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가 진행되며 소규모 연구발표회가 매월 열렸다. 특히 불교사상과 현대와의 접목을 시도한 이러한 형식의 연구발표회에는 어느 대규모 학술대회보다 더 많은 참석자가 몰리기도 했다. 고려대장경연구소가 6차에 걸쳐 진행한 '공과 연기의 현대적 조명' 학술발표회가 대표적인 사례. 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종교학 불교분과의 '서양철학과 불교사상과의 만남'과 보조사상연구원의 '지눌사상의 집중적 탐구' 월례발표회 등이 있다. 이밖에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의 '고려대장경시대의 불교의 진로', 한국교수불자연합회의 '국난극복을 위한 불교의 자비실천' 등은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불교적으로 해석해 본 행사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세계를 향한 한국불교

가치관의 혼란, 과학문명의 인간성 침범 등 현대사회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으로 불교사상을 제시하는 국제 학술행사가 많았다.

조사선(祖師禪)의 전통을 계승하고 조사선을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사상으로 던져주기 위해 8월18~21일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열린 '국제 무차선회(無遮禪會)'는 사부대중 5천여명이 참여한 올 최대의 행사였다. 특히 국내·외 16명의 불교 석학들이 조사선을 재조명한 '한국선 국제학술회의' 등을 교계 최초로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므로써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또 국제원효학회가 미국종교학회(AAR) 정기학술회의에서 '원효학 연구분과'를 처음으로 설치, 발표회를 통해 원효사상을 선양한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이외에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학 국제학술회의'와 그리고 동국대와 일본 교토불교대가 공동주최한 '불교에 있어서의 자비-현대사회의 대응' 국제학술세미나 등도 텍스트 영역화 문제, 불교문화의 전래와 교류 등 한국불교의 연구영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한 학술대회로 평가된다.

△과제

IMF 체제로 인해 학술단체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그 어느해보다도 컸던 한 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50여회에 걸쳐 열린 교계 안팎의 학술행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문탐구의 항해를 멈출 수 없다'는 학자들 특유의 고집(?)을 대변해 주었다. 하지만 그에따른 문제점도 대두됐다. 무엇보다 2~3명의 교수들이 한 달 동안 열린 5~6회의 학술행사에 모두 참가, 발제자가 특정인들로 한정되는 문제점을 낳았다. 잦은 발표가 문제가 된다기 보다는 잦은 발표로 인한 내용부실과 소장학자들의 기회상실 등이 지적되고 있다. 또 특정 교학과 인물에 연구주제가 편중되는 경향을 보여 연구영역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밖에 학회운영의 폐쇄성으로 인해 발표자 및 발표장소가 특정 학교로 한정되고 있는 폐단을 극복하고 학술적 교류와 학문간 비교연구 활성화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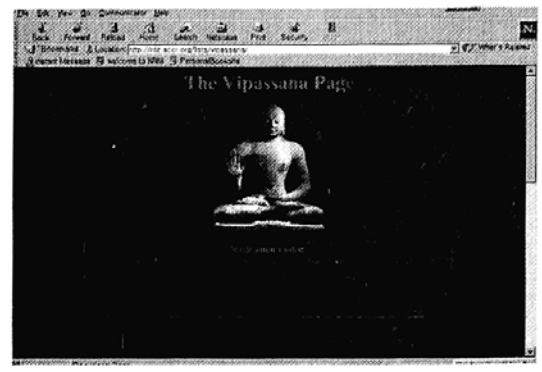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성과
소규모 발표회 꾸준 소장학자 연구 돋보여
조사선 전통계승 국제 무차선회 '성황'

과제
연구주제 편향성 탈피 타학문과 비교연구 발표자 겹치기 출연

98년 학술행사 일지

2월	'보조의(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연구'
3월	'백용성 스님과 불교계 독립운동'
	'역경의 문제와 발전과제'
4월	'고학력시대의 불교의 진로'
	'불교와 인터넷'
5월	'서양철학과 불교사상의 만남'
	'중교문화에서 외래가 차지하는 의의'
	'공과 연기의 현대적 조명'(총 6회)
	'근대 한국중교 개혁사상'
6월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7월	'21세기 승가상 정립과 강원의 역할'
8월	'국제 무차선회'
	'〈고려대장경〉에 나타난 범어문법'
	'21세기 문화전망과 대응전략'
	'발해문화 국제학술대회'
9월	'문화재 보존위한 한·중·일심포지엄'
	'한·중 전통문화'
	'현대사회와 정토신행'
10월	'분황사의 제조명'
	'선불교와 사리탑'
	'21세기 한국불교의 좌표'
	'불교의 자비-현대사회의 대응'
	'21세기, 종교는 무엇인가'
11월	'화엄사상 학술발표회'
	'원효학 특별분과 발표회'
	'원효의 교학과 통일이념 연구'
	'다종교사회와 종교지도자 교육'
	'금산사 개산 1400주년 학술세미나'
12월	'인도철학연구발표회'
	'불갑사의 증합적 고찰'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위빠사나 페이지

세인트존스대 종교학연구소서 개설 여성·동성연애 등 주제로 DB구축

남방불교에서는 '여성'과 '동성연애'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인터넷에 개설된 상좌부 불교사이트를 'woman(여성)'과 'gay(동성연애)' 등의 색인어로 검색하면 '위빠사나 페이지(Vipassana Page)'를 찾을 수 있다.

미국의 세인트존스대학 종교학연구소에서 개설한 위빠사나 페이지는 대부분의 불교사이트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여성', '동성연애' 등을 주제로 경전·사진·인물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곳이다. 그동안 정보의 특이성 때문에 네티즌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던 이 사이트는 달마 링(Dharma Ring)으로부터 네티즌이 가장 선호하는 '인기 사이트'로 선정됐다.

〈여성〉 이 사이트에서 '여성' 정보는 △경전 및 논문 △여성운동가 △관련 홈페이지 등으로 제공된다. 경전자료에는 남방불교계 비구니·여성불자들이 발표한 논문과 경전 인용구 50여종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에서는 스리랑카 케란니야대학에서 빨리어경전학을 공부한 엘리자베트 헤리스박사의 연구 논문 '불교로의 항해' '초기 불교에 나타난 분별심과 자비심' '현 불교계에서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성' 등을 열람할 수 있다.

헤리스박사는 미국 사회에서 인권 및 여성운동가로서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남성적 불교관, 넓게는 종교관을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1970년대 〈바른 인생 : 팔정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책을 발표해 미국 지성계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수산 옐바움 주트라박사의 사상도 엿볼 수 있다. 이 곳에서는 '성스러운 인생의 맛' '깨달은 여성의 정신' '여성 내면의 탐구' '나눔의 수행법' 등 주트라박사의 글을 열람할 수 있다.

이외에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불교학연구소 카렌 에드루소장(종교학 교수)의 '상좌부불교의 여성 문제', 영국 옥스포드대학 칸다시리교수(종교학)의 '가없는 사랑', 아웅산 수지여사의 '명상과 희생의 가치' 등이 제공된다.

빨리어 경전에서 여성에 대해 언급한 구절을 정리·색인한 자료도 열람 가능하다. 현재 담마딘나의 생이 기록된 〈커라베달라(Culavedalla) 경전〉, 비구니의 삶과 수행을 기록한 〈서리기타(Therigatha)〉, 타락한 불자들에게 경종을 울렸던 여성 아라한들의 설법이 모아진 〈비구니 사뮤타(Bhikunni-Samyutta)〉 등이 제공된다.

〈동성연애〉 전세계 인구 가운데 동성연애자는 10만여명. 과연 불교는 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곳에서는 글자들이 동성연애자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경전의 내용을 해석해 놓고 있다.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은 미국의 상좌부불교계에서 최근 "상좌부불교는 인류의 모든 문화의 안식처·보호처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선언했기 때문. 이에 따라 미국의 상좌부 선원에서는 매년 20일동안 동성연애자를 위한 명상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wysiwyg://107/http://rdz.acor.org/lists/vipassana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부처님의 전도선언 불교의 교육사상"
박선영교수 주장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의 유행(遊行)을 떠나도록 설한 전도선언(傳道宣言)에서 불교의 교육사상을 고찰한 논문이 나왔다.

〈석림〉 제32집에서 박선영 교수(동국대 교육학과)는 '석존의 전도선언에 나타난 교육사상 시론(試論)'을 통해 '깨달음을 통해 정신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을 교사의 모습으로 정의하며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간을 불쌍하게 여기고 하늘과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보았다.

박교수는 "전도선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되고 선하며 아름답게 교육함을 강조하고 있다"며 "그의 교화 및 교육의 근본사상이 직접적이고 집약적으로 함축돼 있다"고 주장했다.

"범종단 인터넷 포교기구 필요"
김정석씨 '21세기 사이버포교 중요성' 강조

"인터넷을 통한 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찰에서의 인터넷 교육과 신행·전문단체의 웹사이트를 활용한 전문성 강화, 범종단 차원의 통합된 인터넷 채널이 구축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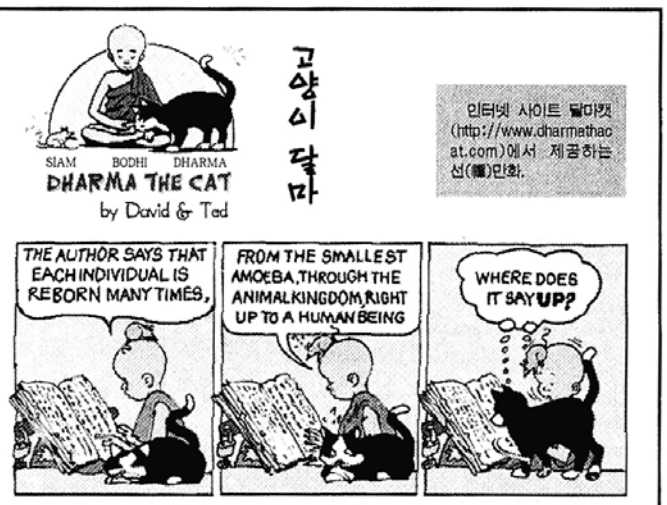
21세기 정보매체로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을 활용한 포교 활성화 방안 연구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98년 동국대 석사학위 논문 '불교 포교에 있어서 인터넷 활용연구'에서 김정석씨(불교대학원 불교학과)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의 통합이 이뤄지며 인터넷을 활용한 불교 포교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교계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포교의 실태와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불교 인터넷 채널을 구축하여 21세기 포교에 있어 전초기지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를 위해 김씨가 조사한 '사이버 세계의 종교별 교세현황'에 따르면 전 세계의 주요 종교별 인터넷 웹사이트 활용현황(조사표본 14,461개)은 기독교(개신교+천주교) 72.6%, 유태교 8.3%, 불교 2.9%, 이슬람교 2.6% 순으로 기독교의 인터넷 활용이 가장 두드러진다. 또 국내의 경우('심마니' 검색엔진 888개)도 개신교 85.6%, 천주교 6.5%, 불교 6.1% 순으로 역시 개신교와 천주교가 불교보다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정보화·세계화 시대의 가장 효과적인 불교 포교 △한국불교의 세계화 △인터넷상에 올바른 불교정보 제공 △사이버 세계의 불교 포교 △불교 인재의 확보 차원 등 인터넷 포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금부터라도 인터넷을 포교에 적극 활용하는 방법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기자



인터넷 사이트 달마캣(http://www.dharmathaat.com)에서 제공하는 선(禪)만화.

이 책에서 저자는 "각 존재들은 셀 수 없을 정도의 횟수만큼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했어.

아메바와 같이 아주 작은 존재들이 이같은 과정으로 동물계를 거쳐 인간에 이르기까지 곧바로 올라가는 것이지. (달마와 시암은 동승 보디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가우뚱거린다)

(달마와 시암) '올라간다', 대체 그것은 어디에 있지?

해설 온갖 존재(현상)란 어느 하나도 진실함이 없건마는, 진실한 모습인 듯 그릇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범부들이 생사의 감옥을 윤회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혼돈의 시대, 김윤보 큰스님이 던지는 연꽃 에세이

시련의 바로 위가 극락이라네

인생은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오늘 내가 괴로움과 시련으로 희망을 버린다면 자람이기를 저버리는 것이다.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만났기 때문에 헤어지듯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시련과 고통이 있는 것이다. 괴로운 사람들아! 시련의 바로 위가 극락임을 명심하자. '아뇩다라 삼먁 삼보리'

"스님, 어떻게 하면 그 빚을 빨리 갚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자요. 오늘부터 당신의 아들이 되고 아버을 부모라고 생각하고 효도를 한번 해보면 전쟁에 당신이 아들에게 진 빚을 갚을지 않니까?"
"예, 스님. 저 아이만 좋아진다면 무슨 짓이라도 다 하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자식으로 인해 한이 맺혔으면 자식에게 자식 노릇을 하면서 효도까지 하겠다고 할까? 참 생각할수록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방법을 말했다.
- 자식에게 효도하는 부모가 편하다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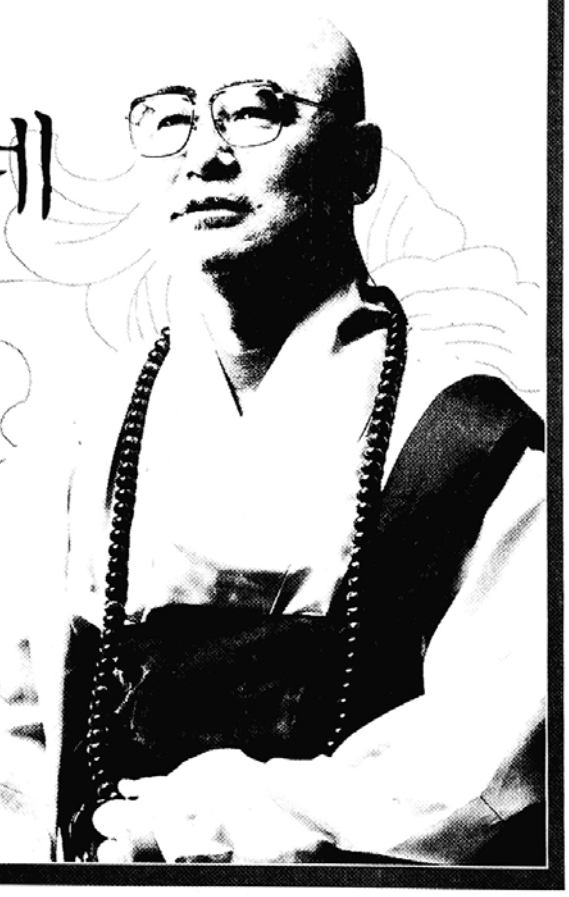
김윤보 (자옥산 대흥사 조실·염불종 종정)/신국판 336쪽/값 8,000원

연속 중판 돌입



효형출판 TEL 756-0262 FAX.779-0263

경주시 안강읍 자옥산에 있는 염불종 총본산 대흥사(大興寺)



한 형 조

무문관 밖에서

78 · 끝

에필로그

지금도 그 정체를 모른다. 무엇이 그토록 열에 들뜨게 하며, 삶의 의욕을 무화시키며, 대학을 혐오스럽게 했는지. 학문은 규격화되어 있었고, 강의는 답답했으며, 젊은이의 삶의 고민에 다가서는 절실한 가르침은 없었다. 한 학기를 견디다가 결국 휴학계를 던지고 산 속 암자에 틀어박혔다.

한밤중 폭포가 내리 꽂히는 바위 위에 빨을 대며 하염없이 앉아 있기도 하고 마을에 내려가 막걸리를 퍼 넣기도 했다. 겨울날 시린 폭포에 한 시간 너머 들어갔다 나온 적도 있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군불 땐 암자에 한 나절을 입을 딱딱 부딪치고서야 잠이 들었다. 그러도 신열은 가라앉지 않았다. 공양주 보살은 내가 고시공부하러 온 사람인 줄 알았고, 건넌 방의 역술인은 내 책상 위에 펼쳐진 〈파우스트〉를 보고 질겁을 했다. 악마와 영혼을 거래하다니, 귀신이 씌어도 단단히 씌었다면서 멀찌감치 꼬리를 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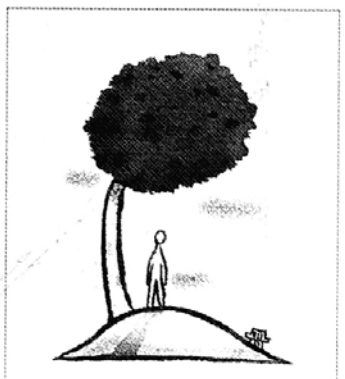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고소를 머금으며 훌쩍 길을 떠났다. 통도사 극락암에는 미리온 손님이 있었다. 진주 어디에선가 산부인과를 한다는 의사와 그 일행. 아이를 떼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 하자 경봉노사는 어린애같은 장난기를 머금고, 모른척 보약을 달여주라고 종용했다. 나는 불쑥 나서서 굴절되지 않는 삶의 직접성과 단순성, 거기에 비밀이 있었다. "의미를 찾아 헤매지 말고 의미를 향한 욕망을 지울 것. 시들하고 낡아빠진 삶 너머에 의미 혹은 진리의 파랑새는 없다. 네게 주어진 것 그것이 전부이다." 그것은 상식의 허를 찌르는 거꾸로 된 가르침이었다. 나는 비로소 오랜 중압에서 놓여나 긴 한숨을 토해 냈다. 풍경이 풍경으로 피어났고, 문득 가족과 친구들이 보고싶었다. 없어진 학적을 복원하여 등록을 했다. 캠퍼스는 신기하게도 여전했다.

그 이후 여전히 경서와 어록을 뒤적였지만 불교는 거의 잊고 지냈다. 잊어야 진정 불교라 않던가. 내를 건넜으면 돌아보지 않아야 하고 고기를 잡았으면 통발은 치워야 한다. 불교와 선은 해체와 부정을 통한 정지작업을 해 줄 뿐, 그 위에다 무엇을 설계하고 건설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나는 가족과 공동체의 울타리 속에서 새로운 의미의 장을 구성해 보려 유학을 탐색했다. 타자에의 배려와 관심의 불꽃이 인간의 본성이며, 그 확장과 개화를 통해서라야만 비억압의 혁명이 가능하다는 교설에 오랫동안 취했었다.

작년 봄 〈현대불교〉로부터 신문에 불교 강좌 하나를 개설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잠시 망설이다가, 이 참에 내가 익힌 불교와 선을 정리해보자고 작정했다. 마침 대학원에서 선어록을 강의하고 있던 터라 〈무문관〉을 실마리로 풀어나가기로 했다.

연재에 물이 오를 무렵 먹구름이 온 나라를 뒤덮었다. 울봄 내게도 뜻하지 않은 환란이 겹쳤다. 가슴은 답답하고 머리로는 열이 뻗쳐 종일 뜬눈으로 거실을 서성댔다. 그렇게 한 달을 지내자 꼭 죽을 것같았다. 아니, 차라리 죽으면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것같았다. 자식 앞에 장사 없다더니. 선은 그로부터의 해방까지는 장담하지 못한다. 산너머 청계사의 법당에 엎드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의 고통을 덜어달라고 오체투지, 깊이 머리를 조아렸다. 나는 선과 지혜의 건너편에 있는 불교의 또 다른 측, 정토와 귀의에 가슴 저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내가 아는 불교는 반쪽이었다. 눈밝은 독자들은 감지했을 것이다. 연재 중반쯤에 내 글의 초점이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이제 불교공부를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동안 내 횡설수설을 견뎌오신 독자여러분과 편집진에게 고마움과 더불어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짧은 작별을 고한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의미찾지 말고 욕망을 지우자"

선과 지혜의 건너편 정토와 귀의에 새로 눈떠

행복과 해탈의 바른길 안내

잭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38 · 끝



〈재가불자를 위한 팔정도〉는 태국의 고승 아잔차 스님에게 수학한 잭 콘필드가 90년대 미국 전역을 순회하며 실시한 강연 자료를 묶어 발간한 책이다. 당시 콘필드는 아잔차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남방불교 수행자로서 또 명상 지도사로서 미국인 불자들에게 존경받고 있었다.

아잔차 스님과 콘필드와의 첫 만남은 1971년 태국 왓빠뽕에서 이루어졌다. '왓(Wat)'은 사원을 뜻한다. 그때 콘필드는 인도 성지순례를 마치고 아잔차 스님을 찾았던 것이다. 지금의 미국·영국인 불자들은 아잔차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수행의 근본으로 삼고 있지만, 60년대까지만 해도 눈푸른 서구인들에게 아잔차 스님은 황색가사를 입은 낯선 태국 승일 뿐이었다. 콘필드가 스님을 찾은 것은 미국을 방문한 한 태국스님으로 부터 아잔차 스님을 소개 받았기 때문이다.

잭 콘필드와 아잔차

71년 泰 왓빠뽕서 상봉
명상수행 · 실천에 역점
동서양 제자 내적 평화 얻어

아잔차 스님이 주석했던 왓빠뽕은 넓이가 1백 에이커가 훨씬 넘는 태국에서 가장 거대한 사원이다. 또 장식이라고는 전혀 없는 검소한 막사들이 나무를 베어낸 숲속 공터에 자리잡고 있고, 이들 원두막 사이 나무 밑으로 한적한 오솔길들이 나있는 사원이다. 숲 속의 모든 환경이 절제와 검소 그리고 근면을 좇는 아잔차 스님 특유의 수행관과 잘 어울리는 곳이다.

왓빠뽕의 막사 가운데 아잔차 스님의 가르침을 받으러 오는 유럽인, 미국인들의 거처도 있었다. 콘필드는 "당시 20여명의 서구인들이 단·장기로 막사에 머물며 수행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도 역시 외국인 막사에서 아잔차 스님의 수행관을 배웠던 것이다.

〈재가불자를 위한 팔정도〉에는 아잔차 스님의 가르침 가운데 불교 명상의 핵심으로 부르는 수행방인 심정을 고요히 하여 참다운 통찰 쪽으로 마음을 여는, 단도직입적이고 소박한 수행법이 담겨 있다.

사실 마음을 챙기고 자신을 관하는 이와 같은 수행법은 서구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몸과 정신과 마음을 길들이는 보편적이고 직접적인 수행법이 되었다.

콘필드는 "어릴적 아잔차 스님은 '스님 흉내내기'를 좋아해 발우를 들고 과자나 사탕을 구걸하곤 했다"며 "그때 스님은 수행의 근본인 인내와 참을성을 배울 수 있었다고 제자들에게 말하곤 했다"며 당시 기억을 더듬었다.

또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본 경험에서 아잔차 스님은 세간에서 겪지 않으면 안되는 고통의 원인과 부처님이 가르친 평화와 자유의 근원을 찾아 수행을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태국 왓빠뽕사원에서 함께 한 아잔차스님(사진 오른쪽)과 잭 콘필드.

아잔차 스님은 어떤 이유에서도 왓빠뽕에 머물며 좌선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아잔차 스님의 맑고 유쾌한 성품, 숲속 수행에서 얻은 솔직성을 동·서양의 제자들이 모두 좋아했으며, 스님에게서 탐구욕, 유머, 경탄, 이해심, 깊은 내적 평화감 같은 찾고 배웠다고 한다.

콘필드의 강연 자료를 묶어 발간된 〈재가불자를 위한 팔정도〉에는 실천수행을 이야기할 뿐 이론을 논하지 않았던 아잔차 스님의 가르침, 즉 인간의 행복과 대중의 해탈을 향한 바른 길이 놓여 있는 것이다.

왓빠뽕 입구에 세워진 푯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법을 실천하고 진리를 깨닫는 것, 금생에 오직 한 가지 가치있는 일입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시간 아닐까요?"

번역=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87

불교와 수학

82 · 끝

연기와 함수

김 용 운

삼라만상의 보이지 않는 변화사유

함수개념 명확한 변화요인만 파악

불교의 근본사상인 '제행무상(諸行無常, 모든 것은 변한다)'은 현상을 연기의 결과로 본다. 즉 무상과 연기는 동전의 앞, 뒤와도 같은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한편 근대 수학의 근본 개념은 현상을 이루는 요소의 변화는 하나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함수적 개념에서 출발했다. 이들은 변화를 사유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이지만 불교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보이지도, 생각할 수도 없는 것까지도 변화의 요인으로 삼는데 비해 수학은 오직 확고히 인식되는 요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필자는 고대 유적의 발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왜 중요한 유적은 한결같이 땅에 묻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곤 했다. 땅위에 그대로 있었다면 풍우로 마멸되거나 흩어져 버렸을 것이라는 상식적인 답이 아닌 무엇인가 다른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 같은 진화론으로 유명한 C. 다윈에 의해서 설명된다. 흰 석회가루를 잔디밭에 살포하고 그대로 방치해 둔후 10년후 다시 그곳을 찾은 다윈은 석회가루가 완전히 사라지고 없는 것을 보고 그 자리를 파 보았다. 그러자 땅에서 약 7㎝의 자리에 하얀 석회층이 나타났다. 어떻게 된 일일까? 그것은 바로 지렁이의 활동 때문이었다. 지렁이는 조금씩 조금씩 땅 속을 파헤치고 다니며 자신들의 배설물로 비옥한 땅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었던 것이며, 그런 과정에서 역사적 유물들의 대부분은 땅속에 묻혀지게 된 것이다. 땅의 표면에 있는 재나 쓰레기와 같은 것이 서서히 파묻혀 수십년이 지나면 땅밑으로 일정한 깊이를 유지하면서 층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실을 발견한 다윈은 고대 유적이 발굴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곳으로 달려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지렁이의 작은 구멍이 고대 건물의 어디에나 있음을 확인했다. 그후 전 세계에 걸친 지렁이에 관한 연구결과로 1에이커(약 1200평정도)당 평균 약 5만 마리의 지렁이가 있음이 추정되었으며, 실제로 지렁이는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디에서나 옥토 조성에 맹활약을 하고 있다.

짧은 기간 동안엔 눈에 띄지도 않는 작업이 동식물 모두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구상에는 우연한 동기로 시작되고 엄청난 긴 세월을 통해 면밀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다. 공기, 물도 땅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렁이의 활동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꽉 차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의 극히 작은 부분이 어느 천재의 예지에 의해서 밝혀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이 관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자연의 묘미라는 말속에 감추어져 있다. '산천은 고금동(古今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확고한 것처럼 보이는 하늘과 땅을 포함해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이 순간에도 삼라만상 모두가 변화의 과정에 있다.

철학으로서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제행무상"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 변화의 목적은 무엇이며 방향은 어디에 있는가?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물음이다. 생물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때때로 똑똑한 사람들은 '무엇 무엇 때문에'라는 식의 말을 하지만 그것들은 한낱 가설에 불과하다. 요컨대 변화를 야기하는 그들의 행위에는 인간이 말하는 목적, 또는 의도라는 것이 없다.

지렁이는 고대 유적을 감추기 위해서 배설물을 땅 위에 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들 삶의 양식의 결과가 우연히 그렇게 되었을 뿐이다. 자연은 변화하기 위해서 변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연기론의 핵심은 세상 모든 것이 무목적, 무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변화의 바다 속에 헤매이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대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 함수 개념이 명확한 변화 요인만을 파악하고 사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상 처음부터 그 한계가 잠재되어 있다. 그러나 지성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어 그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며, 그것에 지성인간(호모사피엔스)의 존귀함과 한계가 있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인 터 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7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대구여래한방)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솔선식(松仙食)」,「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익수영진고」,「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 청정심 올림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년간의 재배를 통한 외조격 풍녀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국내 처음으로 백장암 삼층석탑에서 출토된 생령좌 형태의 팔부신중상.



◇감은사지에서 출토된 금동사리함 동판부재. 지국천왕상의 옷주름 하나하나도 생생하게 보존처리 됐다.



◇전남 나주시 죽석마을에 있는 돌부처를 석불문화연구회장 이근후박사가 조사하고 있다.

98년 빛을 본 불교문화재

정법수호 사천왕상들 우리곁에 다시 온 뜻은…



◇불법을 지키는 사천왕상. 감은사지에서 출토됐다.

문화재는 한 시대의 삶과 정신이 응축된 역사다. 신라시대의 문화재에서는 신라인의 삶이, 조선시대의 문화재에서는 조선인의 삶이 녹아 들어 있는 것이다. 사할 깊숙한 곳에서 고이고이 간직되어 온 문화재, 땅 속에 묻혔거나 탑 속에 모셔졌다가 기나 긴 시간을 뛰어 넘어 세상에 자태를 드러낸 문화재들은 또 하나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세월을 읽기 위해 후세의 우리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 과학적으로 고증하고 복원하는 등 한 시대의 증거로 남아있는 문화재를 이 시대의 보물로 살려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우리 곁에 다시 살아숨쉬는 문화재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교량이 되고 바로 우리의 현재가 된다.

올 한해 동안 지정된 보물은 불교문화재 12건을 포함 모두 18건, 국보지정은 한점도 없었다. 따라서 국보는 그대로 3백2점, 보물은 1천2백92점으로 늘어났다.

올해 지정된 보물, 발굴 문화재, 보존처리된 문화재들 중에는 유독 사천왕과 같은 호국신장이 두드러지게 눈에 띈다. 보존처리를 마치고 선보인 감은사지 사천왕상과 지국천왕상, 새로 발굴된 백장암 팔부신중, 수정사지 인왕상 등은 한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불교에서 악귀를 물리치고 정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떠맡고 있는 것. 마치 요즘 벌어지고 있는 금이 보이지 않는 조계종 분규 등으로 지칠대로 지쳐있는 불심을 달래고 파사현정의 칼날을 세워 사법을 타파라는 뜻처럼 느껴진다.

악귀를 깔고 앉아 하늘을 날고 있는 모습인 생령좌 형태의 팔부신중은 전북 남원시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기단부에서 발견됐다.

팔부신중이 한꺼번에 6점이나 출토된 것은 처음인데 머리카락, 눈, 눈썹, 입 등이 섬세하게 표현돼 있는등 보존상태가 뛰어나 통일신라시대의 불교사상 연구는 물론 선조들의 빼어난 조각술을 엿볼 수 있는 유물이다. 수정사지에서 출토된 인왕상은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된 것으로 근육이 꿈틀꿈틀 살아있고 형태가 독특해 관심을 끌고 있다. 감은사지 동탑에서 발견된 사천왕상과 지국천왕상도 1천년의 먼지를 깨끗이 털어내고 불법 수호의 웅장한 기개를 우리들에게 펼쳐내는 듯하다.

단 두 점만이 보물로 지정된 괘불탱은 균형미와 밝고 깔끔한 채색으로 대표되는 17세기 괘불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 돌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북장사 영산회괘불탱(1278호)은 혼탁해진 세상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을을 들려주기라도 하는 듯 영산회상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덩그라니 그려져 있는 죽림사 세존괘불탱(1279호)은 현존 세존괘불탱 가운데 가장 빠른 1622년에 조성됐는데 크기와 형식이 고전적이고 작가의 이름과 세존탱이라는 명칭이 분명하게 남아있어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보물로 지정된 석탑은 모두 6기, 이중에 일명 남매탑 또는 모누이탑으로 불리며 고등학교 교과서에까지 그 설화가 소개되고 있는 청량사지 오층석탑(1284호)과 칠층석탑(1285호)은 애절한 사연을 담고 있다. 스님과 처녀 그리고 호랑이의 전설이 구비구비 전해내려와 더욱 신비로운데 승속을 넘나들고 남녀를 넘나들며 수행정진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흐트러진 불교의 모습에 일침을 던진다. 한계사지 남삼층석탑(1275호)과 북삼층석탑(1276호)은 9세기 후반 통일신라시대의 석탑으로 우리나라 북방한계선에 가까이 새워진 것이어서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삼화사 삼층석탑(1277호), 월출산 용암사지 삼층석탑(1283호), 오어사 동종(1280호), 수월관음도(1286호), 지장보살삼존도(1287호), 삼화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1292호) 등이 올해 보물로 지정되었다.

올해 발굴되거나 보존처리돼 햇빛을 보게 된 문화재에는 소불상들이 주류를 이룬다. 발굴된 문화재는 경남 진주시 청곡사 삼층석탑에서 출토된 금동불상 6구, 김해에서는 처음으로 나타난 금동보살입상, 서울 우이동 법안사 뒷편 바위 틈에서 우연히 발견된 금동불상 2구 등이다. 2~3년 전에 발굴 출토되어 보존처리를 받은 뒤에 새 모습으로 돌아온 문화재는 도갑사 문수동자상, 나원리 석탑 유물인 금동소불상과 금동소탑 등이 있다. 이외에도 나주 복암리에서 나온 만(卍)자명 토기와 고달사지·선원사지·회암사지등 사지 출토 유물이 있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고려시대 조성된 용암사지 삼층석탑은 백제계 양식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98년 11월 절 앞 저수지 준설공사중 우연히 발견된 포항 오어사 동종. 섬세한 문양과 장인·제작연대 등 명문이 가치를 더하고 있다. 올해 보물 1280호로 지정되었다.



◇현존 괘불탱 가운데 가장 빠른 1622년에 조성된 죽림사 세존괘불탱은 독존좌불(獨尊坐佛) 형식으로 단아한 특징을 보여준다.



◇작년 3월 도갑사에서 출토된 문수동자상은 보존 처리되어 올해 새모습으로 공개됐다.

'돌부처 찾기' 결산

고증통해 역사적 가치 부여

30여건 접수…9회 답사 고증

현대불교가 한국석불문화연구회와 '98년 연중기획으로 펼친 돌부처 찾기운동은 3월부터 총 9회에 걸쳐 전국에 산재한 돌부처를 찾아내 역사성과 가치를 부여하여 복원해내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돌부처 찾기운동은 본지에서 제보를 받아 한국석불문화연구회(회장 이근후 이화의대 교수)가 대상선정및 답사를 하고 한국교원대 박물관장 정영호박사의 고증으로 본지에 소개되는 형식을 취했다. 이 운동은 시작과 함께 13건이 제보된 것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총 30여건이 접수됐다.

가장 활발하게 참여한 사람들은 마을주민. 접수된 내용은 관리소홀로 분실의 위험이 높거나 최근 분실됐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편 스님들의 제보는 그동안 사찰 법당에 모시고 있거나 인근에서 경내로 모셔온 불상으로 정확한 고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경북 포항과 경기도 연천에서는 자연석이 그대로 부처님 형상을 하고 있어 주민들이 부처님으로 참배하고 있는 특이한 형태의 제보도 있었다. 이곳 주민들은 부처님이 자연적으로 형성됐다고 해서 도로개설로 인한 파손과 환경적으로 훼손이 무모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돌부처 찾기운동 결과 총 9기중 5기의 돌부처가 약사여래불이였으며 3기가 석가여래불, 1기가 관세음보살상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 민간에는 약사여래사상이 깔숙히 스며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석불문화연구회 유영렬 사무국장은 "석불찾기운동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희비로 운영되는 석불회 여건상 더 많은 석불을 답사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 운동이 보다 확산되고 자리잡기 위해서는 종단차원의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관리국 김동대(유형문화재 2과)씨는 "정부에서는 지정된 문화재의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문화재를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현대불교신문에서 1년동안 활기차게 펼친 돌부처 찾기 운동은 문화재를 우리 스스로 보호하는 의지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이런 민간차원의 노력이 더 많은 문화재를 보호하는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며 본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민족문화 살리는 작은 실천"

'돌부처 찾기' 동참 정영호-이근후 박사



◇정영호박사



◇이근후박사

"돌부처 찾기는 곧 도래할 문화의 시대를 맞아 민족문화를 살리는 시급석입니다."

98년 본사의 돌부처 찾기운동에 동참한 정영호박사(한국교원대 박물관장)와 한국석불문화연구회장 이근후박사(이화의대)는 "돌부처 찾기 운동을 함께펼쳐 보람이 컸다"고 경했다.

정영호박사는 "돌부처 찾기운동은 문화재 보호운동과 귀결된다"며 "우리세대에 돌부처찾기운동이 안될 경우 문화재는 모두 소멸된다"고 강조했다. 정박사는 그런 의미에서 돌부처 찾기운동이 이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널리 확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근후박사는 "한해동안 전국을 누비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회고하고 "한국석불문화연구회의 회칙을 개정, 돌부처와 관련한 준 전문가 회원을 대폭 영입하여 탐방하는 모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진심직설(眞心直說)

1. 진심을 바르게 믿어라(眞心正信)

華嚴云信爲道源功德母
화엄운신위도원공덕모
長養一切諸善根
장양일체제선근
又唯識云信如水淸珠 能淸濁水故
우유식운신여수청주 능청탁수고
是知萬善發生 信爲前導 故佛經首立
시지만선발생 신위전도 고불경수립
如是我聞 生信之所謂也
여시아문 생신지소위야

〈화엄경〉에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로서 모든 선의 뿌리를 길러낸다' 하였고, 또 〈유식론〉에 '믿음이 물을 맑히는 구슬과 같음은 능히 흐린물을 맑게 하기 때문이다' 하였다. 이로써 온갖 선(善)이 발생하는 것은 믿음이 앞에서 이끌어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불경의 첫머리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 것은 믿음을 내게 하기 위해서이다.

믿음은 모든 선의 뿌리를 길러낸다

或曰祖門之信 與敎門之信 有何異耶
혹왈조문지신 여교문지신 유하이야
曰多種不同 敎門令人天 信於因果
왈다종부동 교문영인천 신어인과
有愛福樂者 信十善爲妙因
유애복락자 신십선위묘인
人天爲樂果 有樂空寂者
인천위락과 유락공적자
信生滅因緣爲正因 苦集滅道爲聖果
신생멸인연위정인 고집멸도위성과
有樂佛果者 信三劫六度爲大因
유락불과자 신삼겁육도위대인
菩提涅槃爲正果
보리열반위정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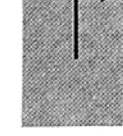
누가 물었다. "조사문(祖師門)의 믿음이 교문(敎門)의 믿음과 어떻게 다릅니까"

대답했다. "여러 가지로 다르다. 교문은 인천(人天)으로 하여금 인과(因果)를 믿게 한다. 그러므로 복락을 좋아하는 자는 십선(十善)이 묘인(妙因)이 되어 인천의 낙과(樂果)가 된다고 믿으며, 공적(空寂) 함을 좋아하는 자는 생멸의 인연이 정인(正因)이 되고 고·집·멸·도가 성과(聖果)가 된다고 믿는다. 불과(佛果)를 좋아하는 자는 三겁의 六도(度)가 큰 원인이 되고 보리와 열반이 정과(正果)가 됨을 믿는다"

祖門正信 非同前也 不信一切有爲因果
조문정신 비동전야 불신일체유위인과
只要信自己 本來是佛 天眞自性
지요신자기 본래시불 천진자성
人人具足 涅槃妙體 箇箇圓成
인인구족 열반묘체 개개원성
不假他求 從來自備 三祖云圓同太虛
불가타구 종래자비 삼조운원동태허
無缺無餘 良由取捨 所以不如
무결무여 양유취사 소이불여
誌公云有相身中無相身 無明路上
지공운유상신중무상신 무명로상
無生路 永嘉云無明實性卽佛性
무생로 영가운무명실성즉불성
幻化空身卽法身
환화공신즉법신

그러나 조사문의 바른 믿음은 교문과 같지 않다. 일체 유위법(有爲法)의 인과를 믿지 않고, 단지 자기가 본래 부처이니, 천진한 자성(自性)이 사람마다 갖추어졌고, 열반의 묘체가 모두에게 원만히 이루어졌으므로 다른 데서 구할 필요가 없고 본래 저절로 갖추어졌음을 믿는 것이다. 승찬(僧璨) 스님이 말하기를 "원만하기가 허공과 같아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지마는 취하고 버리는 생각 때문에 한결같지 않다"하였고 지공(誌公)은 "상(相)이 있는 몸 가운데 상이 없는 몸이요, 무명(無明)의 길은 생(生)이 없는 길이다"하였고, 영가스님은 "무명의 실성(實性)이 곧 불성이요, 허깨비 같은 헛된 몸이 곧 법신(法身)이다"하였다.

역자 약력



김원각

· 1941년 生
· 7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조 당선
· 민족문화추진회 전문위원 역임
· 現 동국대 역경위원
· 편 저서 〈화두〉 〈손가락은 밥맛을 모른다〉 외 다수
· 수상: 만해불교문학상, 정문시조문학상, 중앙일보 중앙시조 대상

진심직설이란 〈진심직설〉은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知訥: 1158~1210)의 저서 가운데 수심결(修心訣)과 함께 널리 알려진 법어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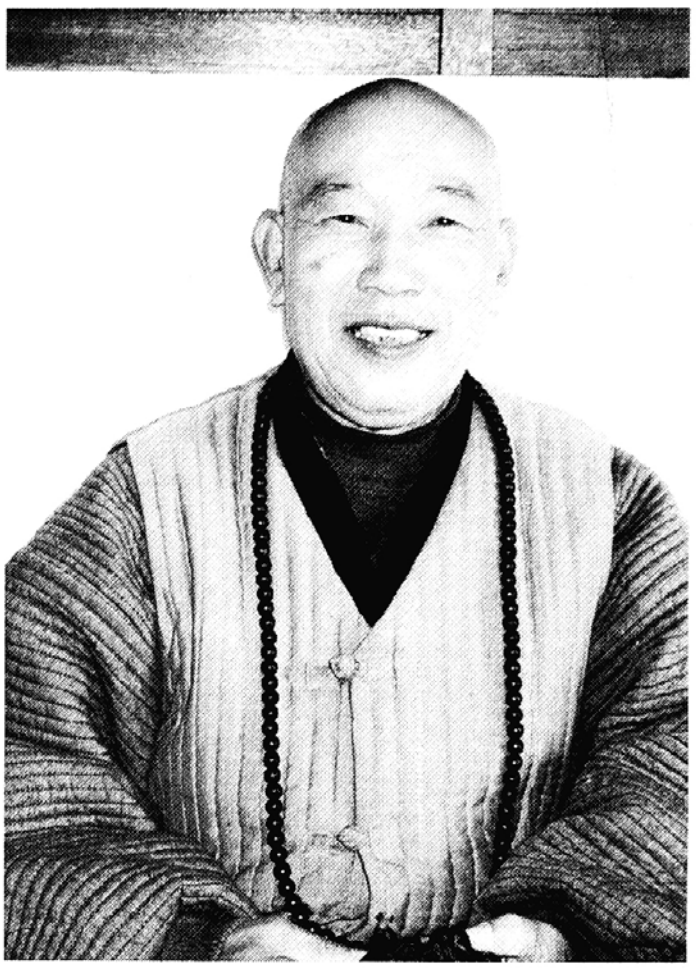
모두 15장(章)의 간결한 법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마다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마음의 작용에 대해 설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불교는 깨달음에 있고, 그 깨달음은 지혜를 터득하는 데 있으며, 그 지혜는 마음의 작용을 살피는 데 있다. 자기가 곧 부처라는 말은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이다. 이 〈진심직설〉은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일깨워줌으로써 불설(佛說)의 참뜻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있다.

큰스님 수행한담

"가족끼리 진리의 벗 되면

일화스님 〈법륜종 종정〉



· 1927년 충남 공주 生
· 40년 마곡사에서 금담스님을 은사로 득도
· 44년 마곡사에서 금오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 45년 마곡사 불교전문강원 대교과 졸업
· 46년 동국대학교 문학부 입학
· 49년 대전공업중학교 교사
· 71년 태고종 중앙종회의원
· 90년 한국불교 법륜종 초대 총무원장 취임
· 현재 공주 원효사에 주석

불자들이 실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할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성취도와는 관계없이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나'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불자로서 생활하고 있는 것인지나 알고 믿자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마음내기입니다. 목표가 분명히 섰을 때 믿음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이 굳건히 자리 잡을 때 비로소 나의 말과 행동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성껏 하려는 노력과 실천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삶의 방향을 바로 잡게 되는 거지요. 그런 삶은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진리를 향한 향상일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불교가 더욱 큰 발전을 할 수 있으려면 생활과 가정의 장을 더욱 중시 여겨야 한다고 말입니다. 불교는 마치 우리 일상생활을 떠나있는 별도의 생활공간으로 되어있는 양 느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따로, 불교신행 따로 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불교가 출가 승단을 중심으로 번성해온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의 본분사를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출세간의 가풍도 대단히 중요한 전통이고 정통이지만, 대다수 중생들이 삶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세간의 풍토에서 비로소 불교믿음이 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출가승단을 구성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가의 삶을 무시하거나 천시한 적은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공동체인 승가가 출가와 재가의 사부대중으로 구성된 것을 보더라도 그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각자의 능력과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교단이 바로 불교의 교단인 것입니다. 더구나 대승불교가 일어날 당시에는 출가와 재가의 구분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깨달음을 향한 쉼없는 노력과 일체의 생명을 이롭게 하는 실천을 오롯이 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그런 보살의 불교가 오늘 한국불교의 주류로 실천되고 있는 대승불교인 것입니다. 유마의 불교, 승만부인의 불교, 방거사의 불교, 부설거사의 불교는 바로 이러한 대승 보살불교의 아름다운 꽃이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자들은 삶의 생생한 장인 생활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도량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가꾸는 슬기와 노력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활터전인 가정에서부터 부모 형제가 진리의 길을 함께 하는 길동무로 삼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식이 마주 앉아 진리의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맑게 하는 실천을 함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은 저절로 사찰과 같은 도량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은 곧 부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구호나 관념이 아닙니다. 실천을 통해 체증되어야 할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살이 능히 중생을 수순하면 곧 모든 부처님을 수순 공양하는 것이며, 중생을 받들어 섬기게 되면 곧 여래를 받들어 섬기는 것이요, 중생들로 하여금 환희심이 나게 하면 곧 일체 여래로 하여금 환희케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불경읽고 예불·참선 함께 하는 것은 아름다운 공업입니다"

중생을 받들고 존중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을 받들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인연으로 만난 부모와 자식 부부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부처님, 어머니 부처님, 아들 부처님, 딸 부처님, 남편 부처님, 아내 부처님이 모인 것이 가정입니다.

살다보면 의젓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도 마음을 상하고 얼굴을 붉히기 쉽습니다. 또 내 생각은 전혀 그러하지 않은 일을 두고도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을 원망하고 심하면 큰소리 거친 행동이 오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때가 내 마음을 돌아보고 공부할 수 있는 훌륭한 시간이고 인연인줄 알아야 합니다.

달마대사는 원망과 증오를 받을 때면 "비록 현재의 고통이 지금 내가 저지른 과오 때문은 아니더라도 과거의 죄업이 결실한 열매이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에게 대한 분노나 불만 없이 감내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내 또는 남편의 불만과 원망이 비록 터무니 없는 것으로 생각되더라도 그런 결과를 초래한 과거의 나의 말 행동 생각을 돌아보고 마음을 허공처럼 비울 줄 알고, 상대를 부처님의 씨알로 존중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공부는 익어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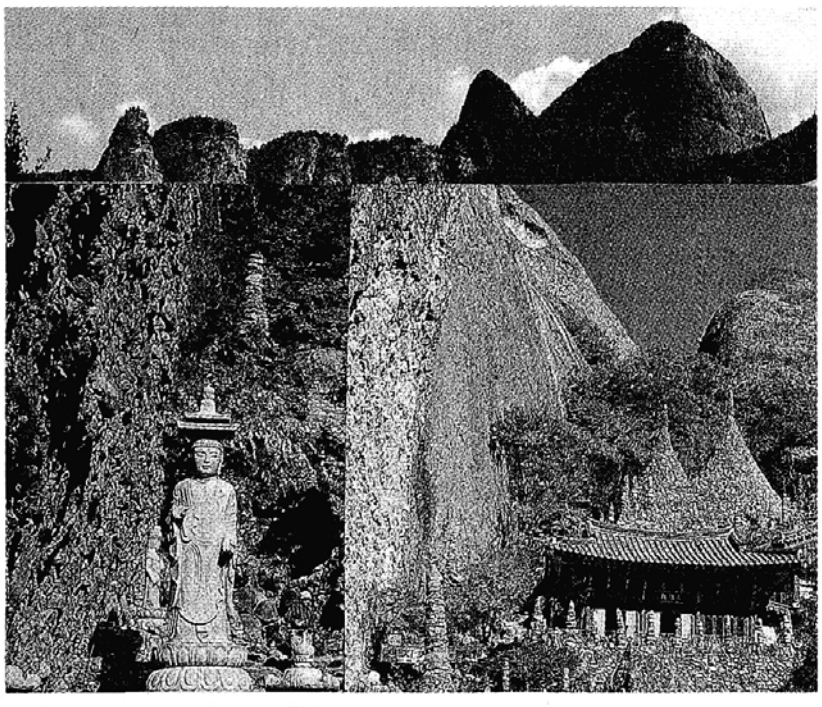
무엇보다 가족들이 함께 불교적 실천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모여 불경을 읽고, 예불과 참선 염불 등을 함께 하는 일은 얼마나 아름다운 공업인지 모릅니다. 가정은 가장 훌륭한 보살도의 실천장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란 특별한 인연으로 묶인 가족공동체이기 때문에 상없는 깨끗하고 순수한 베풂을, 고운 말, 상대를 이롭게 하는 일, 더불어 일하는 실천은 가장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귀한 사람이 손을 잡아 주면 훈훈하고 뭔가 얻어진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만져주시고 손을 잡아 주신다면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셔도 전달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1999학년도 동학사 승가대학 신입생모집

동학사 승가대학에서는 1999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학과 사미니과 00명
2. 시험과목 면접, 염불실기, 사미니율의, 불교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3. 입학자격 사미니계 수지자, 타승가대학생인 경우 2년 이상 휴학한 스님
4. 제출서류 (1)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1통
(2) 주민등록증 양면복사 1통
(3)은사스님 추천서 1통
(4)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5)사진(반명함판 3×4) 3매
5. 준 비 물 오조가사, 장삼, 승려증, 필기도구
6. 시험일시 1999년 1월 27일(음 12월 10일)
7. 도착일시 1999년 1월 26일(음 12월 9일) 오후 4시까지
8. 문 의 처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789번지
동학사 종무소 전화 : (042)825-2570

■ 교통편
· 대전본역 앞에서 좌석버스 1번, 102번 · 대전고속버스터미널, 동부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좌석버스 1번, 102번
· 유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좌석버스 1번, 102번 · 동학사 주차장에서 오후 2시부터 봉고운행 함.

동학사 승가대학 학장 일연

큰스님 수행한담

가정은 저절로 도량"



◇지난 92년 법륜종 초대 총무원장으로 대만에서 열린 세계불교동수회(同修會) 총회에 참석해 불광산 성훈대사와 '불일증휘'를 다짐하는 패를 상호 교환하고 있는 일화스님(사진 왼쪽).

"해가 중천에 떠 있다해도 눈을 감으면 볼 수 없듯이 지혜의 눈 뜨지 않으면 부처님의 대광명 볼 수 없어요"

"기도로 흩어진 생각 하나로 모으세요"

"물 한그릇 보시도 복짓는 일입니다"

다. 어른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좋은 말을 해주는 것도 교육에는 무척 큰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복을 짓는 일이기도 합니다.

경전에도 "생각이 달라지면 몸도 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복을 짓고 안 짓고에 따라 모습이 다르게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복지을 일이 지천입니다. 쉽게 말해 복 짓는 행위란 남에게 덕이 되는 일입니다. 신발이 삐뚤게 놓여 있으면 바르게 놓고, 길 가는 이가 목말라 하면 물 한그릇 떠 주는 일. 이 모두가 남에게 덕되는 일이며 자신에게 복짓는 일입니다.

나는 불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세기를 넘게 출가 스님으로 생활해 오면서 확실히 얻은 것이고 은사스님께 받은 가르침이기도 해서 금생에 지은 인연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나는 출가 스승복이 참으로 컸습니다. 마곡사로 출가해 당시 30대 이셨던 은사 금탑스님의 배려로 바로 강원에서 공부하면서 행자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워야 한다는 은사스님은 당신의 은사스님이 마곡사 주지이셔서 많은 하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념으로 하세요. 무슨 큰 도력이 필요한 것인양 부담느껴 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저 그냥 오직 기도 하나에 마음을 모으란 말입니다. 단계에 따라 기도하는 내 자신도 어느새 사라지고 대상으로 삼았던 관세음보살님도 사라져 관음기도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일 때도 나옵니다. 그저 오로지 내 속에 들어있는 관세음보살님을 끌어내라는 말입니다. 우선 간절하게 기도 그 자체에 마음을 바치세요. 반드시 그 기도의 끝이 있습니다. 분명히 믿으시고, 또 그것이 참 불자의 자세입니다.

이제 새해가 다가옵니다. 스님들이고 재가불자들이고 정초에 인사하러 왔다가 신년 휘호나 써달라고 합니다. 사실 나는 출가 당시부터 사경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기도의 목적도 있지만, 서예에 깃든 그 오묘한 맛에도 빠져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경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오후 시간에는 주로 사경을 합니다. 옛 조사스님들은 휘호를 많이들 쓰셨습니다. 그것을 즐기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사경을 하시느라 익어진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나는 만다라나 다라니를 사경으로 조성하는데 많이 몰입했습니다. 아주 작은 서체부터 대붓을 쓰는 등 요모조모 사경 삼매에 빠져들곤 합니다.

원효사에 터를 잡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우습지만, 공주 부여 등 이지역에만 각 종단의 종정 원로 스님네가 많이 살고 계십니다. 모두들 자주 만나면서 잘 지내요. 이제는 열반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4~5개 종단의 종정스님이 주석하고 계셨으니 바로 이곳이 좋은 인연 터입니다.

아무리 밝은 해가 중천에 떠 있다고 해도 눈을 크게 뜨지 않고는 그 해를 볼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을 부지런히 갈고 닦아 지혜의 눈을 뜨지 않으면 부처님의 대광명을 대할 수 없게 됩니다. 참된 지혜의 문을 열어 마음의 봄빛이 무량하게 비쳐지는 가운데 마음의 청정한 본래자리를 깨달아 안팎이 활기찬 나날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 바입니다.

정리=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다.

또한 따져보면 사람이 제 몸 아끼는 것이나 벌레가 벌레 몸을 아끼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벌레 한 마리 잡아 죽이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벌이라고 합니다.

불교는 생명을 존중하는 종교입니다. 중생을 모두 아끼고 돌보라고 일렀습니다. 일체 생명은 똑같이 한 군데의 생명체에서 시작되므로 더하고 덜한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이치는 우주의 법칙과 한 덩이가 되어 자타가 없는 대자대비의 마음이지만, 우리는 남을 좋아해도 편애를 합니다. 치우쳐 사랑하는 것은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기도로써 마음을 맑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지 않으신 연세에도 마곡사일과 예산 향천사 일 등 두가지나 돌보셔야 했습니다. 나도 은사스님을 시봉해야 하기에 강원 공부하다가 스님 따라서 산골길로 걸어서 60리나 떨어져 있는 향천사 살림도 돌보곤 하느라고 강원을 6년이나 다녔습니다. 그후 동국대학교 전신인 혜화전문을 다녔으니 이래저래 내전과 외전을 겸비하게 해 주신 스승의 이끌어주심이 그저 오늘 이렇게 감사할 뿐입니다.

교학을 했건 참선을 실수했건 나는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하루 한 때를 잡아 기도하기를 권합니다. 기도 정진하지 않고 그저 말로 입으로만 불자요 하는 것은 엄밀히 진정한 불자가 아닙니다. 그저 틈이 나는대로 또는 틈을 만들어서라도 기도하시고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을 쌓고 복을 짓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낸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흩어진 생각을 하나로 종합해 정신통일 하는 것으로 참선 염불 독경 등도 모두 정신통일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도는 비단 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마다 독특한 기도법이 있고, 많은 이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조사스님들을 비롯해 유명한 이를 보면 기도를 통해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부처님과의 교류도 되고 정신도 맑아져 잔병도 부지불식간에 낫기도 합니다. 참선이야 선지식 아래에서 올바르게 배워야 하지만, 염불 기도는 정한 마

나의 수행일기



김 문 숙

〈부산불교문인협회 고문〉

위안부 진상 밝히는데 심혈
'소외된 이들의 고통나누자' 서원

부처님은 선(善)한 일은 서둘러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늘 그 말을 불자의 사명으로 삼아 가슴에 새긴다. 내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일에 뛰어든 것도 바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90년 '정신대', '위안부'라는 낱말은 청천벽력같이 내 앞에 떨어졌고, 식민지 역사의 가장 암울한 산 증인 정신대 할머니들의 인간으로서의 명예회복과 대일 배상 법정투쟁을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 사회로부터 닫혀있던 할머니들의 마음을 열기란 쉽지 않았다. 응어리진 한을 가슴에 품고 사는 할머니들에게 맺힌 한을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 풀어보라며 염불테이프도 들려주고, 불교책도 가져다 주고, 선은 결국 승리한다며 할머니들을 북돋으며 인간적으로 다가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리고 내 스스로는 매일 잠들기 전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108배 정진을 하면서 위안부할머니들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부처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뒤에야 할머니들은 마음의 문을 열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92년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해 6년 동안 21번의 공판을 치렀다. 공판 때마다 할머니들을 데리고 현해탄을 건너다니며 재판을 했고, 일본 국민들에게도 위안부의 진상을 알리고 일본 정부의 비인도적인 그리고 비열한 전쟁 책임회피의 비열함을 온 세계에 알렸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그 일은 힘없는 내게는 너무도 벅차고, 고생스럽고, 험난한 일들이었지만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그 일을 하면서 내 안에 내재돼 있는 큰 힘의 존재를 실감할 수 있었다. 매일 기도를 하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꼭 해내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겨났고, 그 힘이 바로 본래 부처인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굳게 믿게 되었다.

2천5백여년전의 부처님 또한 무지로 가려진 우리 중생들에게 진리의 세계를 열어주기 위해 팔만사천의 무량 법문을 설했듯이 나또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리라 마음먹었고, 지난 4월에서야 일본 재판부로부터 위안부 할머니들의 불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30만엔 배상판결을 받았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자 노력하지만 때때로 마음이 울적하고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나자신의 부족함을 느낄때 마다 나는 범어사로 향한다. 일주문에 들어서면 들리는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부처님의 변함없는 미소가 내 마음을 다독여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범어사 법당에 앉아 〈화엄경〉 현수품의 말씀을 되새기며 자신을 정리한다.

'보살이 발심하여 진리구함은 까닭이 없지 않나니, 불법승께 신심내어 보리심을 내었다. 오욕, 왕위, 풍요, 쾌락, 명예 따위 구함 아니고, 오로지 중생고를 없애고 세상에 이익주려 발심하였다. 언제나 사람들에게 이락을 주고, 불국토를 장엄하여 부처님께 공양올리며, 정법을 바로 닦아 진리를 깨치고자 발심하였다'

나 또한 발보리심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좇아 지혜와 자비를 완성하고, 중생과 함께 하겠다는 원을 세운 이상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안된다고 말이다.

나는 현재도 소외받는 우리사회의 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불행한 여성들의 좋은 친구가 되려고 개설한 부산 여성의 전화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사회의 일원인 여성들이 좋은 가정을 꾸미고, 불이익을 해소하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 마련된 이곳 여성의 전화에서 고통받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앞으로도 깨어있는 삶을 이웃과 더불어 엮어가기 위해 더욱 발심수행을 할것을 다짐한다. 우리 또한 결국에는 부처가 될 것임을 믿기 때문에…. 〈끝〉

초의선사 성상

한국의 다성이신 초의선사의 성상을 목불로 조성하여 선사께서 출생하신 전라남도 무안군 생가터에 봉안하고자 합니다. 이 뜻깊은 불사에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을 기원합니다. 점안식은 내년('99년)음력 4월 5일 선사께서 출생하신 날에 봉안하고자 합니다. 불사에 동참해주시는 분들께는 선사께서 생전에 애용하시던 초의다기와 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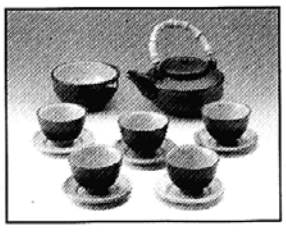
艸衣禪院長 釋龍雲 合掌

주최 : 초의문화재단
전화 : 02-732-2317
팩스 : 02-732-2319
인터넷 : http:\\www teancha.co.kr\
국민은행 : 006-01-0452-791
농협 : 053-01-193314
우체국 : 010579-0026125
예금주 : 전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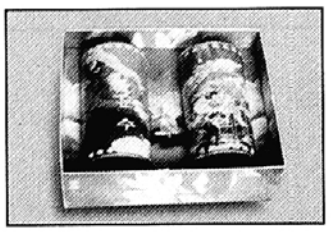
조성 불사 동참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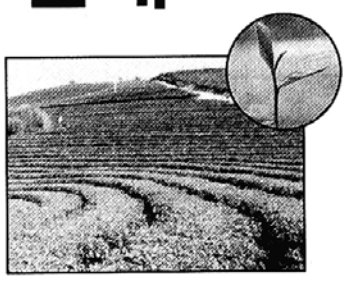
초의문화재단 에서는
무안군에서 주최하는현창사업
에서 복원되는 생가에 모실
불사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께는



초의선사께서
생전에 애용하시던
초의다기와
동참금 200,000 이상



특별한 제다공법으로 완성시킨
[100g × 2통(5~6만원 상당)]
문수차 · 보현차를
동참금 30,000 이상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선물로 드립니다.

초의선사 생가복원을 위한 현창사업 소개

1. 초의선사 께서는

대각등계보제존자초의대선사(大覺登階普濟尊者艸衣大禪師)의 사상과 업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차(茶)에 관한 것과, 선(禪)에 관한 것과, 시(詩)에 대한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 초의스님을 가리켜 시,서,화(詩書畵) 삼절(三絶)이라고 하니 이에 대한 연구가 없이는 초의선사를 말할 수 없으리라.(석용운 스님의 '초의선사의 생애와 사상' 중에서…)

2. 5월의 문화인물 초의선사(지난해 1997년)

선사의 탄신 211주년이던 지난해 5월, 문화인물로 선정 되셨습니다.

3. 선사께서 수행정진 하시던 일지암

선사께서 옛 인연의 터에 몇 칸 집을 짓고, 못을 파서 달이 비치게 하셨던 일지암, 그 후 소실되어 그 터만 남아있는 것을 용운스님께서 1975부터 복원사업에 진력 하셨습니다.

4. 초의선사 생가복원을 위한 현창사업

초의선사께서 탄생하신 전라남도 무안군(삼향면)에서는 초의 의순 선사에 대한 현창사업을 실시하여 그 정신을 기리고자 '97.4.19(토) 72명으로 현창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생가 복원(무안군 삼향면 왕산리에 7,143) 유허비 건립 (생애, 업적등 기록), 추모각 건립 : 20평(초상화, 유품등 전시) 등의 현창사업을 실시 합니다.

5. 선사의 법손인 용운스님께서는

초의선사 현창사업에 참여하여 생가 복원시 초의선사 성상을 조성하여 봉안 하고자 합니다.

어지러운 시대에 茶山, 秋史, 海居, 申緯등 많은 명사들과 교유하며 그들에게 禪사상을 가르치시고 한국의 차문화 중흥을 도모했던 정신을 계승하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정신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고자 합니다.

끊겨진 백두대간 이어질 날은…

월 1회 연재

백두대간 숨결 듣는다

→ 9 · 끝 ←

금강산

'98 사진영상회 展



◇부처님 치아사리가 봉안된 적멸보궁이 서설에 덮혀있다.



◇동일전망대에 서면 금강산이 손에 잡힐듯 하다. 해안지역의 현종암, 복서암 등이 해금강을 장식하고 산악지역에는 구선봉에서 시작되는 연봉들이 눈에 들어온다.

설악의 기암괴봉들은 진부령을 넘으며 숨을 낮춘다. 금강산의 절경이 설악으로 내리 뻗으며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 것일까. 백두에서 뻗어 내는 대간의 숨결은 치솟기도하고 잦아들기도 하며 한반도의 거대한 산맥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분단의 아픔을 말할 때 가장 먼저 '그리운 금강산'을 논하는 것은 북녘의 금강산이 그 수려한 비경과 절치로 남녘의 모든 산들을 아우르는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 힘이란 다름아닌 민족의 융화를 상징하는 백두대간의 정점이 금강산에서 남녘의 모든 산들로 이어진다는 믿음의 표상이기도 하다.

금강산 일만이천봉 육로 언제 열릴까

건 봉 사 금강산 길목의 대가람…92년부터 일반인 출입

통일전망대 7년전 불자들 통일원력 모아 미륵부처님 봉안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이천봉.' 우리의 가슴에서 금강의 일만이천봉이 사라져 본 순간은 없다. 지난 10월 그 일만이천의 절경으로 향하는 바닷길은 열렸다. 매주 세차례씩 현대 금강산 유람선인 금강호와 봉래호가 동해에서 장전항을 오가고 있어 '꿈에도 그리던' 금강산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관광코스가 단조롭고 볼거리가 한정되어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금강산 가는 길, 육로는 여전히 닫힌 상황에서 금강산을 향하는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진부령을 넘으면서 가장 눈에 드는 것은 군데군데의 군부대들이다. 여전히 분단조국의 현실은 산골짜기마다 수 많은 군사시설로 대변되고 있는 것이다. 고성군 거진의 남방한계선 상에 위치한 통일전망대에 오르면 금강산은 바로 손에 잡힐 듯하다. 그러나 금강산은 눈으로만 만날 수 있어 통일의 그날까지 우리에게 '가슴아픈 산'일 뿐이다. 끊겨진 백두대간의 아픔이 아닐 수 없다.

통일전망대에서 금강산을 이윽히 바라보고 서 있는 미륵부처님은 7년전 신도들의 통일원력을 모아 신흥사가 조성했다. 하염없는 동해의 파도소리를 들으며 철책선 너머 북녘 하늘을 향해 서 있는 석조부처님은 주변의 통일기원탑과 함께 전망대의 명물로 자리잡고 있다.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다 보이는 금강산의 자락은 일출봉, 채화봉, 육선봉, 집선봉, 세존봉, 옥녀봉, 신선대, 구선봉으로 이어지는 산악지역과 입석리 동쪽 해금강 지역의 현종암, 복선암, 부처바위, 사공바위, 외추도 등의 작은 섬들이다.

남녘에서 금강산으로 이르는 길목에 자리잡은 대표적인 사찰은 건봉사다. 서기 520년 아도스님이 처음 절터를 잡아 도량을 열었던 건봉사는 철책선 너머 북녘의 산들이 내쉬는 숨 소리가 들릴만치 북에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다.

삼팔선이 이 땅을 둘로 갈라 세우기 전까지만해도 우리나라 4대 사찰의 하나로 꼽히고 31본산의 하나로 그 명성을 떨쳤던 건봉사는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1992년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기 전까지 건봉사는 잊혀진 절 중의 하나일 수 밖에 없었다.

일반적으로 건봉사는 다섯 구역으로 나누어 진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한 대웅전 지역과 불이문 왼편의 극락전 지역, 그 위쪽 영지(影池)를 지나면 바로 나타나는 낙서암 지역, 또 그 윗쪽 사리탑을 중심으로하는 팔상전 지역, 그리고 기타 지역이 그것이다. 한 사찰을 이렇게 다섯의 구역으로 나누어 이해하는 자체로서 건봉사의 옛 사격을 말해주는 것이다. 현재 당우가 들어선 곳은 대웅전 지역과 팔상전 지역이다.

대웅전은 1957년 장병들의 불교신행을 위해 옛 감원자리에 세운 것으로 정면 6칸, 측면4칸의 주심포 건축물이다. 대웅전 좌측의 건물은 요사채를 겸해 쓰이는 명부전이다. 이 명부전에는 6·25 전쟁 이후 이 지역에서 순직한 호국영령 1천2백38위의 위패가 봉안돼 있다.

대웅전지역과 극락전 지역을 잇는 아치형의 능파교는 1708년(숙종24)에 건립돼 1745년과 1880년 두차례의 중수를 거쳐 오늘에 전하는 매우 아름다운 다리다. 능파교 건너편 극락전 지역과 낙서암 지역은 빈터로 남아 있다. 극락전 입구에 '나무아미타불'이 새겨진 석주가 풍상을 견디며 서 있고 낙서암 지역에 이르는 첫 길에는 두갈래로 갈라진 못이 있다. 못에는 좌우로 '방생탕계(放生蕩界)' '용사활지(龍蛇活池)'라 쓰인 석주가 서 있다. 십바라밀석주(높이 158cm)라 불리는 이 석주에는 각 면마다 십바라밀을 뜻하는 도형이 새겨져 있어 눈길을 끈다. 도형은 '원월(圓月)-보시바라밀' '반월(半月)-지계바라밀' 등의 의미를 품고 있는데 이는 건봉사가 십바라밀 신행의 도량으로 자리잡았던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는게 학계의 분석이다.

팔상전 지역은 적멸보궁이다. 1605년(선조38) 사명대사가 일본에서 되 찾아온 부처님 치아사리를 봉안한 세종영아탑이 이 지역의 중심이다. 세존영아탑은 서기 758년(경덕왕17) 건봉사를 중창한 발징(發徵)화상이 정신(貞愼) 양순(良順) 등의 신도와 함께 개설한 것이 효시다. 이 때의 결사에는 31명의 스님과 1820명의 신도가 참여 했다고 (건봉사사적기)가 전하고 있어 상당한 규모의 신행 운동이었다. 사적기는 또 이때의 결사에 동참한 31명의 스님과 신도 다수가 극락왕생의 가피를 입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때 31명의 스님들이 육신 등공했던 사실을 기리는 등공탑은 현재에도 전하고 있으나 군사분계선 안에 있어 일반인의 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일 염불결사로 극락왕생한 31명의 스님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등공탑. 군사지역에 있어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다. 〈자료사진〉

사명대사가 일본에서 사리를 되찾아 온 지 120년 후에 건립됐다. 이에 얽힌 역사적 사실들은 영아탑비에 적혀 전하고 있다. 탑비는 전란의 생채기인양 3등분으로 깨어진 것을 맞춰 쌓았다. 건봉사에는 현재 부처님 치아사리 8과가 보존돼 있으며 황금으로 장식된 사리함의 조형미도 일품이다. 사리와 사리함은 도굴꾼에 의해 도난당했다가 86년 다시 돌아왔다.

건봉사의 역사중 가장 빛나는 대목은 만일염불 도량으로서의 명맥이다. 만일동안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며 수행하는 이 염불결사는 이 지역의 중심이다. 두번째 만일염불회는 1802년(순조2) 용허스님이 결사 했으며 이때에도 왕실과 지방관료들의 지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1851년(철종5)에 개설된 만일염불회 결사에서는 10여명의 스님들이 치아와 눈에서 26매의 사리를 내놓는 등 이적이 속출했고, 이때의 사리들이 모셔진 사리탑(만일회등사생사리탑)은 지금도 건봉사 부도밭에 전하고 있다. 부도전에는 또 김개화등의 신도들의 생사리탑 2기도 남아 있어 건봉사 만일염불회의 신비를 더하고 있다.

이같은 염불만일회의 역사는 올 8월 5일부터 다시 이어졌다. '힘차게 신나게 멋있게 염불합시다'를 주제로 여성번째의 만일염불 결사를 이은 것이다. 3천여 대중이 동참한 이 결사는 등참대중이 생활 속에서 염불을 하며 통일과 새로운 삶을 발원하고 있는 것이다.

건봉사는 극락전지역과 낙서암 지역을 중창해 옛사격을 되찾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 보다 면밀한 발굴작업과 역사적 가치규명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글=임연태 기자(ytl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남에서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한 건봉사는 우리나라 4대 사찰이었다. 새로 복원된 건봉사 대웅전 지역 전경.



◇건봉사 극락전지역의 빈 터를 두개의 석주가 지키고 있다.



◇십바라밀 석주.

결산 국토 등줄기 불교문화 숨결 재확인

백두대간. 우리 국토의 등줄기를 따라 9지역의 산맥을 더듬었다. 남한지역 백두대간 670km에는 불교의 정신과 문화가 속속 깃들어 있었다. 외세의 침입으로 인한 수난의 흔적이 아로새겨져 있는가 하면 부처님 가르침에 의존해 국난을 극복하고자 했던 순박한 염원의 유적도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세대를 이으며 전해진 값진 문화유산들이 대간의 자락들을 빛내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크나큰 기쁨이었다. 취재팀은 대간의 줄기를 답사하며 그 속에서 어제와 오늘의 숨결을 듣고자 했다.

지리산 일본 열도로 흐르는 대간의 맥을 끊는다는 이유로 일본에 의해 입란 이후부터 줄곳 수난을 당해온 지리산 법계사와 실상사 보광전의 종을 소개했다. 또 지리산 지역에 버려진 폐사지들을 답사하며 보존 대책이 시급함을 고발했다. 〈165호〉

덕유산 백련사, 원통사, 안국사를 답사하며 임란과 조선말기의 항일 정신을 되새겼으며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포장도로들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현황을 소개했다. 〈169호〉

속리산 법주사의 역사 사상적 배경과 문장대 온천지구의 환경 파괴 현장을 답사했다. 〈174호〉

이화령 불교문화가 반도의 북에서 남으로 전해진 요로인 계립령과 조령, 이화령 지역을 답사하며 대간이 문화 이동의 중심이 됐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갈평리 5층석탑의 지대석을 한 과수원에서 찾기도 했다. 〈177호〉

소백산 영남 지역 불교 사상의 주요 흐름을 마애불의 조성과 부석사의 조형적 의미를 통해 더듬어 보았다. 〈182호〉

태백산 우리 민족 정신의 시원지인 태백산에서 발원된 불교신앙의 가치를 소개하며 자장스님의 유골이 안치됐던 것으로 전해지는 석혈을 답사했다. 〈187호〉

오대산 문수보살 상주도량으로 여겨지는 오대산 신앙의 근원과 의미를 상원사 적멸보궁을 통해 알아 보았다. 〈192호〉

설악산 백담사와 신흥사 등 거대 사찰들에 깃든 불교사적 의미와 오늘의 통일 염원, 지역포교에 나서는 이 지역 불교의 흐름을 정리했다. 〈194호〉

용성스님 어록



인연이 모이면 나타나는 것이요, 인연이 떠나면 흩어지는 것이다. 달이 없어서 아니 보이는 것이 아니니, 일체법이 다 이와 같은지라. 사람이나 축생이나 모두가 인연따라 나는 것이요, 인연따라 흩어지는 것이니 그들의 본연한 성품은 생멸취산이 원래 없는 것이다.

협찬 대성사(583-1475) · 대각사(765-0972)
경주 천룡사(0561-748-8815)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무한능력 주어졌어도 못믿으니 탈

일체 만물만생이 둘이 아니고 내몸속 중생들도 둘이 아니라 생각할 때 영원한 자유 얻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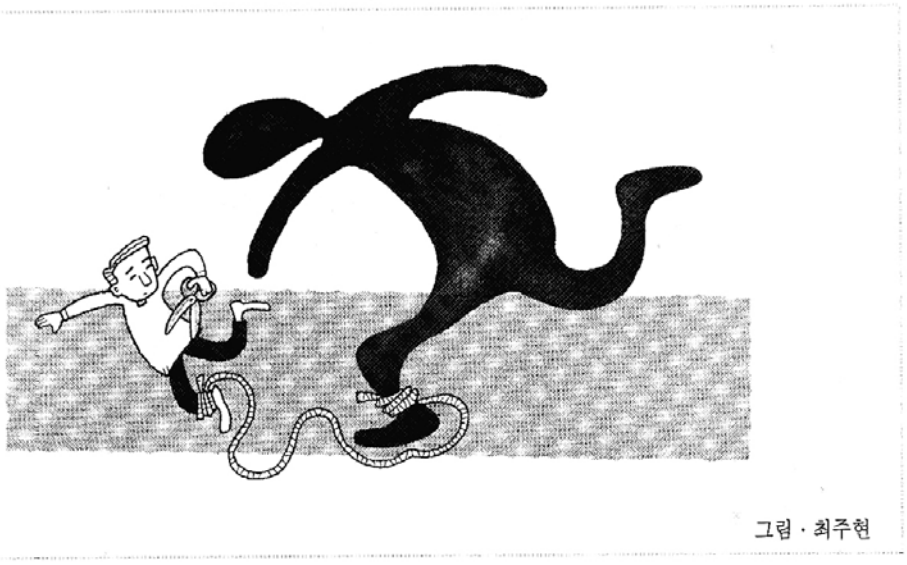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물질을 나로 알면 죽어서도 업식 끄달려 한마음에 모두 믿고 맡길 때 몽땅 벗어나

이렇게 법우님들과 같이 다시 한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마음으로부터 행의 작용으로 발전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 세상을 조절해 나갈 수 있는 지구의 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 한번 잘 먹으면 세계를 조절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나라를 좀더 풍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괴로움과 여러 가지의 불미스러운 일들을 가져 오게 되겠죠.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 빼놓고, 저것 빼놓고 뭐 남는 게 있어서 불법이라고 하겠습니까? 불법은 우리들 살아가는 이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불교 아님이 없기 때문에 불교는 그대로 우리들의 생활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지내는 이 자체가 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교 아님이 없고, 만물만생이 다 불교 아닌 게 없어서 만나면 만나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체 보면 보는 대로 둘이 아니므로 네가 있고 내가 있지만 마음은 이심전심으로 둘이 아니어서 그렇게 같이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같이 돌아가는 것을 모른다면 내 집이 빈 집이 돼서 에너지를 뺏긴다고도 볼 수 있지요. 항상 여러분은 밑지고 사는 분들이 여간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 집이 비었으면 에너지를 뺏기기 때문에 내 몸이 쉬 망가지는 반면에 가난해지고 마음이 떳떳하질 못하니까 뿌리가 성성하질 못해서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는 것이죠.

불교라는 이 자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행동 하나하나 작용하는 것이 법이요. 불은 영원한 불성을 말함이니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지요. 그 근본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겁니다. 생각을 해야 사람이지 생각 없이 무슨 사람입니까. 에너지 자체가 들고, 나고, 활용하듯 우주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일체 만물만생의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자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부처님께서는 욕심이 많다고도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모두 긁어 모아서 한마음이라는 그릇도 없는 데다 다 넣어버렸으니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 에너지를 다 넣어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생각을 내면 법바퀴거든요. 생각을 내면 생산을 해내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몸이 헤져서 망가지면 벗어버리고 다시 새옷을 입듯이 별성도 마찬가지로 그 생명이 길고 짧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옷을 벗었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불성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 물, 바람, 흙 등의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게 없고 다시 생산돼 옷이 다시 만들어져 나오는 거지요. 용광로에 헌쇠를 넣으면 다시 생산돼서 나오듯이 말입니다.

금도 닳아진 쪼가리들을 다시 녹여서 반지를 만들고, 목걸이를 만들지만 금은 그대로 금이듯이 우리 인간도 옷은 갈아입지만 불성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불바퀴로 하나 되지만, 이 도리를 모르면 그 자리를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의 모습, 그 물질적인 의식을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어서도 물질적인 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도 다스리지 못하고 닦지 못한 채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줄 알고 한발짝도 떼놓을 수 없는 겁니다. 넘어설 수가 없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몸 속에 있는 인과의 악업, 선업이 쫙 깔려서 자기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니기 때문에 한발짝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에 우리가 겪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이 마음 자체를 '비워라, 비워라' 이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상시에 생활을 하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활 속에 있으니까요.

우리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작용에 있지 않습니까? 숨을 들이쉬고 내쉬지 못한다면 죽을 것이고, 내쉬고 들이쉬지 못한다면 죽을 것입니다. 또 부처가 어디 있느냐? 생명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면 들이고 내는 작용 가운데 있는데, 들이고 내는 그 작용을 누가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이는 것도 아니고 내는 것도 아니라고 할 때는 말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없이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건 왜냐하면 이것이 발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 선지식들도 그런 말씀을 했지요. '내가 들어가는 게 옳으냐, 나가는 게 옳으냐, 들이는 게 옳으냐, 내는 게 옳으냐'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죽어서도 그 관습이 남아서 고생을 해서 내 집을 장만해 놓았다고 하고, 내 가정이다, 내 재산이다 하면서 살던 그 습관이 그대로 떠나지 못하는 것이며 또 한가지는 몸은 갔어도 마음은 그대로 있으니 몸뚱이를 가지고 참섭(참견)을 혀도 귀찮아 죽겠는데 이건 보이지도 않는 데서 참섭을 하고 돌아다니니 살아있는 자식들에게 못할 짓이 아닙니까.

자식들이 이 생의 자긴데 자기를 귀찮게 구는 겁니다. 자긴 자기고, 그건 자식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착을 두고 있으니 죽어서도 그 관습에 의해서 떠나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집안 모든 재산, 가정의 모든 착은 떼었는데 하화중생의 이 도리를 몰라요. 자기 속의 중생들을 제도 못했어요. 내 몸뚱이 속에 인과로 생긴 악업, 선업을 녹이지 못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 나서서 갈려고 해도 이게 그림자처럼 헤아릴 수 없이 나타나서 앞을 막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그 도리를 살아서 몰랐기 때문에 죽어서 그것들이 모두 나타나는 것이죠.

똥을 봐도 묻으면 어쩌나 하고 가질 못하는데 천차만별로 벌어져 있으니 인연을 가진 것은 머리 풀어 산발하고 귀신처럼 덤비고, 눈 없는 게 들이 덤비고, 팔 없는게 들이 덤비며 온통 과거에 살면서 자기가 행동한 대로 인연이 되어 가지고 내 몸 속에 다 있으니 이 모습은 사대로 흩어져서 없어지지만 그 인연에 따라서 좇아다니는 그것은 아무데 가도 좇아다니기 때문에 불잡히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어딜 가겠습니까. 그걸 훌렁 벗어버려야 자유로울 텐데, 배어가지고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는데 산을 넘어간들 안 좇아가겠습니까, 물을 건너간들 안 좇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에 다시 생산이 돼서 나온다 하더래도 그것은 따라다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야 무의 세계에서도 보이지 않을텐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다니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자유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해 봅시다. 정보국에서 정보원들이 정보국장으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우릴 감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증거로 아예 입력이 되어 좇아다니기 때문에 항상 통화가 되고 비치니 꼼짝할 수가 없지요. 몇생을 돌아가도 그것은 꼭 좇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나오는 대로 되맡겨 놓으시라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서 일체 만법을 다 작용하니까 "난 심부름만 했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한 게 아니니 주인이 알아서 해결해"하고 거기다 맡겨놔야 그것이 몽땅 벗어지는데 이건 맨날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해!' 그러니 과거에 짊어져서 지금 현실에 나오는 것도 죽겠는데 또 미래에 나올 것을 연방 입력을 해놓고 있으니 그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대로 거기다가 다시 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것이 몽땅 지워지니 정보국에서 컴퓨터에 넣어봐도 증거가 하나도 없으니 홀떡 벗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도리를 안다면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루하루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 시간에도 보고, 듣고, 가고, 오고, 그러는 게 하나도 고정됨이 없이 공해버렸으니 그것이 누적이 되지 않고 우리가 먹고, 배설하고, 먹고, 배설하듯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하찮은 말인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지금 현실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현실에 나를 완전히 아는 데서 세상을 모두 감지하고, 조절하고, 돌아가는 이런 능력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믿지 못하는 겁니까. 다른 말 아무리 해봤자 소용 없어요. 그건 이론에 불과해서 직접적인 실천을 하지 못하는 데는 목이 말라서 죽는다 하더라도 물 한모금 마실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몸이 망가져도 에너지를 넣을 수 없고, 기를 넣을 수가 없으니 하여튼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다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시자가 주인의 심부름을 건강하게 잘할 거 아닌가' 하고 한 생각만 해도 에너지는 자동적으로 들어가고 기가 자동적으로 들어가서 그 병이 없어지는 것을…. 왜냐하면, 내가 나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면 한발짝도 떼어 놓을 수가 없고 어디 먼 데로 도망을 가려고 해도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들어가서 모습을 아무렇게나 가지고 나올 수밖에요. 그러니 모든 것을 들이고 내는 작용을 거기서 한다는 걸 믿고 맡겨야 벗어진단 말입니다. 또 벗어졌어도 나라는 게 남고 관심이 그냥 남아 있다면 강을 건너려해도 물이 깊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분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98)

만(萬)사람이 모여도 본존불은 하나이다.

한마음은 시공을 초월한다. 한마음은 온 만물의 시작 이전부터 있었고 만물의 끝남 이후에도 있다. 한마음에는 어제 · 오늘이 따로 없고 크고 작음이 따로 있지 않다. 모든 물줄기가 바다에 이르러 하나가 되듯이 이 세계의 모든 것은 다 한마음에 포섭된다. 한마음은 바로 만물이 비롯된 근원이요 돌아갈 고향이다.

한마음 속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부처도, 관세음보살도 한마음 안에 살아 계시며, 지장 보살의 대원력도 한마음 안에 함께 한다.

한마음 안에는 일체 제불이 존재한다. 한마음 안에는 삼라 대천 세계의 진실이란 진실은 다 모여 있다. 한마음 안에는 불보살들의 모든 원력이 다 깃들어 있다. 그러니 그러한 한마음이 무엇인들 해내지 못하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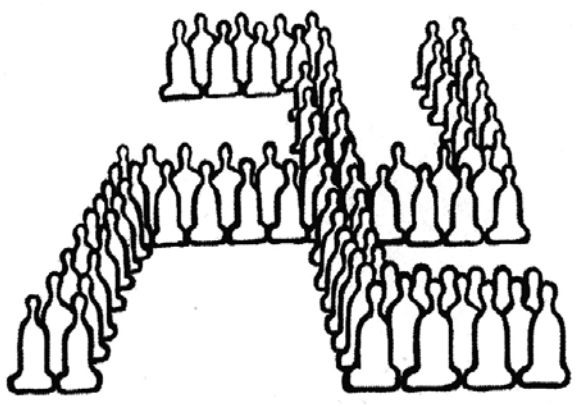
태양 빛은 온 누리를 다 비추고도 부족함이 없다. 한마음의 빛도 그러하다. 삼계를 다 비추고도 부족함이 없다.

한마음은 우주 전체의 힘이며 공덕이다. 마음이 진실로 텅 비어 유무와 호오의 양면을 떠난 중도에서 한마음의 힘은 드러나게 된다.

이 세상 모든 생명의 마음은 하나이다. 모든 생명들끼리는 사실 너와 내가 없다. 본래로 생명은 하나이다. 본래 생명은 부처이다. 그러므로 본래 생명의 마음을 일컬어 한마음이라고 한다. 생명체들이 제각기 육신을 갖고는 있으나 본래 둘이 아닌 것이다.

만 사람이 모여도 본존불은 하나이다. 그것은 체가 없기 때문이다. 각자에 다 본존불이 있어 자기의 본존을 마음의 주인이라 한다면 각자의 마음의 주인은 다 한마음인 것이다. 한마음은 어느 한편이 아니다. 나누고 나누는 데에서 한마음을 구하지 말라.

우주 전체가 생명의 근본 마음, 인간의 근본 마음에 직결되어 있고 세상살이 돌아가는 이 자체가 내 근본에 가설되어 있다. 우주 삼천 대천 세계가 그냥 하나로 통해 있다는 말이다. 벽도 없고 봇장도 없으니 일체 제불의 마음이 곧 내 한마음이고, 일체 제불의 법이 곧 내 한마음의 법이며 생활인 것이다. 이 전구 저 전구에 들어오는 전기가 다 똑같듯이 만물은 다 한마음에 하나로 가설되어 있는 것이다.



바로 우리 모두가 부처요, 보살이다. 우리 모두의 한마음이 부처요 보살이다. 무 하나로 요리를 할 때 국을 끓일 수도 있고 김치를 담글 수도 있고 갖가지 요리를 할 수 있으나 김치를 담근 무, 국을 끓인 무가 본래의 무를 떠난 게 아니듯이 삼계의 모든 유위법은 그 본원이 한마음인 것이다.

한마음에서 비롯된 전체적인 우주의 섭리, 연관성이 바로 우리 마음에 직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움직이게 된다. 근본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전체가 우리 마음에 직결되어 있다면 그 속에 누구인들 없겠으며 무엇인들 없겠는가. 제불보살도 다 그 자리에서 나타난 화현이다.

모든 부처와 중생은 한마음이다. 한마음이기에 부처와 중생에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한마음으로 돌아가면 부처가 스스로 나타나기에 중생이 곧 부처인 것이다.

발전소에서 내 집 전등에 이르도록 전선을 가설해 놓고서 스위치를 올리자 불이 들어오듯이 나의 마음은 한마음과 연결되어 있어 그 근본이 다르지 않으니 나의 근본이 곧 만법의 근본이라, 이름하여 주인공이라 한다. 그러나 주인공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생각하고 움직이고 말했을 때 벌써 근본 자리에서 알고 있으니 그래서 참 부처요, 자성불이요, 참 보배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근본의 주인공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영원히 돌아가는 자가 발전소와 같아서 항상 안으로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켜졌다, 꺼졌다 하는 말조차 붙지를 않는다.

협찬 : 주 인 공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내마음 우뚝 밝으면 법계가 들썩

☞ 15면에서 계속

영원히 배를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물질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저 언덕을 넘고 강을 건너서 만나리, 그리하면 영원한 밝음이 있으니"하고 아제 아제 바라아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넘어갈려면 한 생각. '아, 일체 만물만생이 둘이 아니고 내 몸 속에 있는 것도 둘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생각 끄떡하면 죽어서도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꿈이 생시요, 생시가 꿈이니라. 생시에 알고 있다면 꿈에서도 알고 있는 것이고, 죽어서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눈이 밝아지고 귀가 띄어져서 한 생각을 하면 강도들도 따로 없느니라. 산이 아무리 높다한들 높은 산이나 얕은 들이나 깊은 강물이나 불 속이나 어디에도 타죽는 법도 없고, 빠져 죽는 법도 없고, 멀어서 못가는 법이 없느니라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큰노릇을 못하고 문지기나 하는 입장이죠. 불바퀴를 보면 타죽을까봐 그 소용돌이 속을 못들어가기 때문에 영 맛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밝음의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살아서 영원한 자유의 밝음을 얻는다면 죽고 살고가 따로 없이 자유인일텐데 말입니다. 우린 맨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마음 빼놓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불성은 생명의 근본이며 그 생명의 근본이 있기에 마음을 낼 수 있어서 작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내는 거는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죠. 불과 법이 들입니까, 어디. 생명이 있으면 마음을 낼 수 있고, 마음을 낼 수 있으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당연하죠.

중한 거는 아까 관습으로 인해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면 입력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살 수 없고 어느 곳에 있어도 자기 한대로 잡히면 창살없는 감옥에 꼼짝없이 갇히니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모르니까 자기가 지금 물질로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잡혀있는 줄로만 아는 겁니다. 그러니 갇혀있지요.

내가 내려앉는다고 한 것은 여러분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무슨 위라고 해서 위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래라 해서 아래가 아닙니다. 뒤에서 안보인다고 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지 내가 높아서 여기 앉겠습니까? 높은 것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도 지금 그런 실행을 하면서 실천을 하고 갑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무시해서도 안되고, 몸뚱이 고기덩어리만 봐서도 아니됩니다.

예전의 일체 선사들, 일체 부처님들께서 어떠한 50%의 행을 하셨는지 여러분이 아십니까? 마음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도리를 배우면 일체 평등공법으로써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칠보활궁공법,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내고 보배로운 생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하셨듯이 항상 말하지만 종지로 원한다면 내가 종지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도리입니다. 마음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아마 빨리 알아 들으리라 봅니다. 내 마음 하나에 즉 말하지면 블랙홀 안에서 나가는 그 에너지가 어디로 나가느냐? 나가는 그 에너지도 그렇지만, 한데 모였다, 흩어졌다, 한데 므였다, 흩어졌다 하는 작용을 하는 그 자체가 무수하다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들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작용입니다. 그런데 근기에 따라서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은 우리 법입니다.

불바퀴의 에너지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사는 그 에너지가 나가서 배출이 되면 또 생산이 되는 것이죠. 두 부부가 생각을 안하고 생산을 안해냈다면 여러분 자손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웃을 일이 아닙니다. 별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지요. 그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질로서 아주 거대하게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지금 조절을 하니까 그렇지 만약에 별성들이 와르르르 일어났다 하면 불바퀴가 얼마나 팽창될 것입니까?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름을 붙여서 말하는 것 말고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것부터 알아야 되지 않나. 내가 벗어나야 아무데로 가도 간 흔적이 없죠. 그런데 벗어나지 못하면 흔적이 있든 없든 벗어나지 못하는 거니까요. 한발짝만 떼어도 벌써 흔적이 나오는데 어딜 갑니까. 그러니까 창살 없는 감옥에서 허덕이고 있으니 고에서 벗어나라 하고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좀더 잘 생각하셔서 일 하면서도 생각이 일어나면 무조건 거기다 말기고 조용한 시간이 생기면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시라 이 얘깁니다.

놓는 공부는 내가 빠지는 공부
내가 가로막고 있으면
주인공 모습 드러나지 않아

내가 생각을 안하면 진화가 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커지질 못해요, 생각을 안하면 그게 목석이지, 생각을 안하는데 진화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배 속에 있는 모든 의식들이 바로 증거물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다는 증거물말입니다.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산에 가면 좋고 물에 가도 좋지요. 여러분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청산유곡을 보면 마음이 신선하고 좋고 또 맑은 물이 쉴 사이 없이 흐르는 걸 보고 고기가 노는 걸 봐도 싱그럽고 좋지요. 고향이기 때문이에요.

수없는 겁을 거쳐서 우리 인간까지 이렇게 왔고 지금도 꼬리가 조금 붙어 있지만 꽁지 떨어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벗어나야 어딜가든지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생각으로 살 수 있지요. 생각으로 운전할 수 있고, 생각으로 살 수 있는 그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때는 길을 가다보면 기다란 물체가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알을 까서 뒷 꽁무니에 질질 끌고서 두껍게 옮겨다 놓고는 풀로 살짝 덮어놔요. 그런 걸 하나 보더라도 '야! 하다못해 이런 미물까지도 이렇게 묘한 것을….' 요만한 미생물에서부터 이렇게 인간까지 진화돼서 자식들을 낳아서 덮어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키우면서 어디를 나가서 안들어오기만 해도 안절부절 못하고 걱정을 하지요. 알고 보면 식구들이 거쳐 오면서 모였다, 흩어지고, 모였다 바람처럼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흩어져서 다른 식구들하고 또 만나고 진화를 조금 하면 한데로 또 같이 모이게 된 것이기 때문에, 부모 자식이 대의적으로 본다면 따로 없다는 얘기죠.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살 뿐입니다. 그러니 착을 두지 마시고 그저 사랑으로만 대하시고 어쩌다 하룻밤 자고 와도 "너, 어디서 자고 왔느냐? 전화번호 대라"하지 마세요. 뭐 틀림없죠. 그러나 애들은 그런 식으로 대하면 더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고 올 수밖에 없는 무슨 이유가 있었길래 그랬겠지, 너 배 고프지 않느냐"하고 받아서 안아준다면 나가서 자라고 사정을 해도 나가 자지 않을 겁니다.

대접을 해줘야 하는데 착을 두고 내 손에 들은 어떠한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나이를 더 먹었다고 해서 자기가 생산해 놓은 것을 자기 거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절대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니 남의 자식이든, 내 자식이든, 남의 부모든, 내 부모든 평등하게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들은 대로 공경하고, 사랑하며 있으면 베풀어주고 가진 것이 없으면 마음으로라도 무주상보시를 해서 그저 남을 이익되게 해야 합니다.

가끔 학생들이 울면서 "스님 이러이러한데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할 때 그것이 남의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듯 평등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과 한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자비를 베풀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내 자식, 네 자식, 내 부모, 네 부모가 있었습니까? 모였다가 바람결같이 흩어지고 스쳐가는 것이 인생 아닌가! 우리는 방랑객으로서 한철 캠핑 나와서 살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흩어져야 할 인생이 아닌가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안그런가요.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도 가만히 볼 때, 때에 따라선 내가 먼저 말을 할 때도 있지만 물끄러미 쳐다보면 그쪽에서 먼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꽃도 저녁이면 오므라집니다. 저녁이면 오므라들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해가 다 졌다. 이제 잠 자자"하거든요. 모두가 잠을 자는 건 아닙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잠을 잔다 안잔다 없이 그냥 있는 소나무도 있죠. 그래서 그것이 바깥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이 푸르름을 가져온 겁니다. 그게 다 마음의 뜻이 있지요, 마음이 오고 갑니다.

나무에 맞아죽을 팔자를 가진 사람이 나무에 목신이 있다는 걸 알고부터 "나도 너하고 벗이요, 영원히 친구지"하니까 목신으로 인해서 죽을 건데 그 둘이 아니라는 바람에 목신이 오히려 도와주더랍니다. 만약에 우리 일을 하는 사람에게 "둘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먹어도 같이 벌어 먹지"한다면 고마워서 밤낮을 모르고 일할 겁니다. 아마. 그러듯이 아니 자기한테 평등하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기와 둘이 아니죠. 그리고 모든 일을 자기일 하듯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도 죽지 않습니다. 목신도 자기요, 지신도 자기요, 관세음도 자기요, 지장도 자기요, 모두 자기인 것이죠.


그림 · 최주현

내가 생각을 내야 마음 진화되고 넓어져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선다면 그게 주장자

무엇이 주장자 인지요

문 말씀하셨던 빈집 이라든가 주장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보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마음이 허해서 빈 집이 되면 세균도 들어오고, 딴 엉뚱한 생각도 들어와서 정신도 어지럽겠다는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서, 마음이 편안한 방법으로 어떠한 뭐가 들어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게 주장자인지, 아니면 선원에 열심히 다니고 경도 열심히 해서 가까이 간다는 그런 의지가 주장자인지, 고요하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주장자인지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답 시장 바닥에 나가든, 여기를 오든, 집안에 있든, 회사를 나가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거기서만이 들이고 낸다는 그 믿음이 선다면 그게 주장자입니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맘대로 가지고 할 수 있는 자기 보배, 그런데 이 보배가 집이 비어서 주장자가 있는데도 옆둥이에서 자꾸 훼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마라, 모든 걸 나오는 대로 무조건 거기다 말기고 살라 이거죠.

돈 문제도 관하면 해결됩니까

문 두 달 전에야 현대불교신문을 구독해서 법공양 페이지를 매번 자세히 정독하고 있습니다.

왜 진작 구독하지 못했나 할 정도로 많은 감명과 스님 말씀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인공한테 말기고 관하라' 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기고 관하라' 는 게 물질적인 것(구체적으로 '돈')에도 적용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일이 어음 만기일인데 돈은 없고 그렇다고 어디서 빌릴 곳은 더더욱 없고 이럴 때는 절말 난감합니다. 이런 상황도 주인공이 알아서 해결해 줄까요?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급박한 상황에 직면했다 해도 주인공 자리에 놓고 지켜보라 하셨는데요, 놓고 관하는 사이에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해요.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는 주고 싶지 않거든요.

명쾌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마음은 시공을 초월해서 아니 미치는 데가 없습니다. 마음을 떠나서는 이 육신의 삶도, 산하대지 우주까지도 거론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오직 마음입니다. 한마음입니다.

일체 만물만생, 삼천대천세계는 마음 바탕에서 둘이 아니게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먹이고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식 공용 공심 공체로서 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하나 우뚝 서 밝으면 우주 법계가 들썩거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절실한 믿음입니다. 돌에 피가 베일만큼 절실한 믿음이라면 죽고 사는 걸 떠나 여여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모두들 잘 믿지를 않기에 잘되게 해달라고 빌기도 하고, 나는 놓고 맡기는데 왜 잘 안되느냐고 합니다.

놓고 맡기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되는 것은 되는 것대로 감사하게 되 놓고, 안되는 것은 또 안되는 것대로 '되게 할 수 있는 것도 주인공 네 몫이 아니냐' 하고 되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다만 지켜볼 뿐이지 되는 것만 법이고 안되는 건 법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놓고 맡겼으니 어떻게 되겠지' 한다든가 '될대로 되라' 하고 내 팽개치는 것도 아닙니다. 놓고 맡기고 나는 현실에서 열심히 심부름하고 뛰어야지요. 이 몸뚱이는 그냥 시자로서 뛰는 겁니다.

그렇게 '나' 는 다만 시자로서 일체를 주인공에 놓고 맡긴채 뭘 때에 불이 들어오는 도리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무한량의 한마음 발전소와 나는 이미 가설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마음으로 스위치를 올리는 게 바로 놓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놓고 맡겼는데 왜 안 될까, 놓고 맡기면 어찌 살라는가 하신다면 그건 스위치를 올린 게 아니라 올리면 과연 불이 들어올까? 안들어 오면 어쩌지? 하는 격이니 제대로 통신이 되질 않게 됩니다.

이왕지사 한번 죽지 두번 죽냐하는 믿음으로 무겁게 놓고 말길 때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지켜보는 도리가 있습니다.

주인공 의심하는 마음들어요

문 큰스님, 전 최근들어 공부를 조금 해보고자 딴에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입니다.

정말 진실히 마음을 내고 믿고 맡기고 나가니깐 진짜 주인공이 잘 이끌어 주는 것을 느끼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맘이 그렇게 편안하게 잘 지내다가도 어느새 보면 또 이상한 마음이 나고 이러면 안된다 하며서도 의심이 가

남의 부모 자식도
평등하게 보고
공경하고 사랑하며
그저 이익되게 해야

고 그래서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이러면 안된다 하는 것도 다 제 편견인걸 알면서도 다 주인공이 내가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본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가끔은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모든건 제 안에 답이 다 있지만 주인공이 아예 그런 시험을 하지 않았을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르칠 주십시오. 항상 믿고 나가겠습니다. 큰스님 감사합니다.

답 항상 말씀드리고 또 드리지만 모든 것은 다 한구멍에서 나고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나는 것도 거기, 원망스런 생각이 드는 것도 거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자리에 다가…, 무엇이 되었건 간에 아는 것은 아는 것대로 놓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대로 놓고 맡기라는 겁니다.

이러면 안된다는 의심이 가는 것도 거기서 나온 것이니까 되 놓고, 잘 가다가 이상한 마음이 드는 것도 거기서 나온 것이니까 나온 자리에 되 놓으라는 것이지요. 시험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너 뿐이잖아!' 하고 놓고 말입니다.

이 놓는 공부는 어차피 내가 쑥 빠지는 공부입니다. 몰락 놓고 맡기는데 거기에 '나' 가 붙어서야 그걸 어디 놓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그런 저런 생각이 드는 것을 모조리 주인공 자리로 들려 놓고 맡기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나' 가 빠지고, 그것도 아주 철두철미하게 빠지고 주인공이 얼굴을 내밀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로막고 있으면 주인공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됩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문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깨달음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깨달음은 누가 합니까? 아는 것을 떠나 있습니까? 아는 것과 더불어 있습니까? 번뇌를 여의고 깨달음에 이른 분이 후생에서 왜 또 다시 수행을 해야합니까? 깨달음의 길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서 그칩니까?

안개와 같은 생의 길에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큰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답 누구나 다 부처될 자격이 있다고 했지요. 다만 무명에 덮혀 제 근본 뿌리를 모르기 때문에 중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성이 본래 청정하다는 것, 만법을 들이고 낸다는 것을 굳게 믿어 제 뿌리에 일체경계를 놓고 가면 깨닫는다 못 깨닫는 다를 떠나서 그대로 여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뿌리를 믿고 몰락 놓아야하는데 그렇질 못하니까 거듭거듭 수행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따릅니다. 그렇다고 깨달음에 오고 감이 있다거나 얻을 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 하나 죽으면 그대로 깨달음이고 부처자리입니다.

협찬 주인공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함께 하는

불·자·정·보

최소규격 및 가격 :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732-1522(代),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 에서도 접수 가능 합니다.

• 건강 •

암 · 간경화 · 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 · 당뇨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제3의학 · 심요법

보상금제도도입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면 보상금 (치료비+1천만원)을 드립니다.

TEL : 0552-585-8118 · 8128
H.P. : 011-559-811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 치료사례 비디오 테잎 무료로 드립니다 ※

암, 중풍, 당뇨등

오랜세월 민초들의 삶속에 전해오던 치료의 비방을 연구 집약하여 최단시일내에 체질을 전환시켜 완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하고저 합니다.

다솔 민방 연구원
0431)292-9090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598-1015

간 병 인 이

믿음과 정성으로 보살펴드리는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 환자 간병 - 산모 도우미
◇ 12시간 (주간, 야간)
◇ 24시간 (상주근무)
◇ 서울 - 무-제-98-1호 허가

☎ 02)363-7884/017)247-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간병인회**

• 강좌 •

사주 명리학 배우실분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작명, 진로선택등을 정확하고 자신있게 간명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 합니다.

▶ 강의기간: 주2회 매회 3시간씩 3개월
▶ 강의시간: (오전반, 저녁반도 있음)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 강 사 : 7년여 강의 경력이 있으신 원장직강으로 종강후 개업보장
서울 마포구 대흥동 801-57

한국명리연구원
☎ 02)713)4852~3

자미두수교실

신령스러운 자미경의 저자 김석훈 선생의 1기 수강생 모집합니다. 너무도 영험한 자미두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동서점성학 연구실
☎(02)3413-0232,1

불교 수·맥·강·좌

1. 신비의 추 사용법
2. 현장실습
3. 기균형 전문
4. 수맥관련 상담

02)734-2118
011)239-6817
대붕 氣 살림

풍수학, 동양철학, 침술 수강생 및 통신생 모집

◇모집기간 : 현재 접수중◇연령, 학력 제한없음
◇수업시간 : 3개월(24시간)
- 이수자 졸업장 수여
- 주간 : 오후 3시~5시-야간 : 7시30분~9시30분
◇개인지도 수강자는 시간 및 진도 특별조정함
◇강사 : 스님(철학박사, 승가대교수)
◆풍수, 운명, 침술, 감정시무하고 있음
(철학관 및 포교원 개원시 지원 배려함)
(출가관심자 승려 수계득도 지원함)

0331)264-4582
대 · 불광사, 승가대학 교무처
(위치: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신봉리 39번지)

전통불교의식 학인모집

●기본과정 : 도량석, 종송, 예경, 불공, 시식등
●중급과정 : 대령, 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특별의식
●어산작법 : 초급과정:바라무, 나비무 작법, 어산초급과정
●원왕생과정 : 불교식 장의 장례(다비의식)
출가상담및 교육과정<기본의식 교리, 습의>
반야심경, 금강경<10폭 병풍> 사경법회
※각 과정 통신생 모집 ※ 학인스님특별반 모집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7-1 원방BD 4층 (봉은사옆)
☎ 02)511-0108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불교의식연구원**

영어 · 일어

- 개강일 : 1999년 1월 4일(월) -

부처님의 큰 뜻을 온 세계에 전하고자 합니다. 외국어 공부에 뜻이 있는 스님들과 불자님들께 영어 · 일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강사진의 "1대 1 강의"로 꼭 뜻하는 바를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 대학원 준비반 - 각 과정 3개월
※ 월 · 수반, 화 · 목반, 주말반(각 120분 수업)
- 시 간 : 오전 10:00 ~ 19:00
- 문의처 : Tel. 02)511-2026~8

• 구인 •

이런 분을 초대합니다.

신심과 불심과 용기를 포기하지 않는 내일은 분명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첫째, 성품이 착한 비구니, 사미니, 출가에 결심이 있는 분(학간명)
둘째, 성품이 착한 남은 생을 절에서 기도수행하고 살아갈 사람(학간명)
단, 타계후 제사까지 모셔드림.

02)907-1643/011)243-1643

비구니 스님이나 처사분 중 사찰에 오셔서 기도하실 분

석굴암 동굴속

062)652-4730
019)602-6667

• 수련원 •

◆청학사 수양원◆

■ 수양 · 요양 · 기도 · 공부
■ 경전강의, 참선기도
■ 月 숙식비 ₩300,000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 불교용품 •

◆보 리 수◆

취급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 탈종공고 •

승적탈퇴공고

대한불교 삼론종 귀하

■사찰명 : 인덕사 혜 관 스님(승적번호 12-212)
■소재지 : 경기도 미금시 평내동 479-1

본인 혜관은 1998년 12월 23일부로 대한불교 삼론종의 승적을 탈퇴합니다. 이에 공고로 알립니다.

탈 종 공 고

조동종 종정 예하

■소재지: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탄벌리 산 95번지
■사찰명: 광덕사
■주 지: 정연철

상기 사찰은 귀종단의 종헌종법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1998. 11.

• 기타 •



만사형통 신비의 달마상 선착순 접수
자녀 합격여부 및 사업제획 취업, 승진 사주, 궁합, 작명등 육효로 100% 알수있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1번 송구
전 화(02) 446-2446~7
수석역학 원장 이 수 성

전통사찰 건축 불사

문화재 등록 제 962호

기둥은 육송으로만 하고 그외도 조각 장여부연이며 4미터 이하는 거의 육송을 사용합니다.

▶시공사찰
진관사 승가사 용화사 용주사 성남사 지장사 구원사 대연사 보광암 비봉사 현재 은선사 불사중
■공장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주소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28번지 가든아파트 가동 202호

0572)636-2509/011)507-3629
이 민 과 합장

벽지 ◑ 바닥재

버티칼 · 페인트

도매시장 가격으로 시공해 드립니다.
※ 출장견적 환영

해인 인테리어
02)201-1470
019)369-8000

행운결혼 상담소

초 · 재혼 특별상담

●엘리트 우수회원 다수확보
●성심, 성혼 책임 보장
●신원확실, 비밀보장

※부모님 상담 환영

(代) 02)960-4564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칠 한정본 판매
화엄경(80권)-1,400,000원
법화권(7권)- 170,000원
사 교(7권)- 22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99)32-7252 김창본
02)962-6477 처 사

달마보급 안내



연락처 : 달마보급 선양회
죽림사 051)361-6662

全國 佛子님께
氣龍 達磨圖를 나눠드립니다.



혜월 회향암 당합장
0564) 33-2037
017) 531-2929

기적의 피라미트 파워

기공연구회
(代) 02)
455-6944

• 사찰안내 •

사찰 운영안내

◇위치 : 천안근교
◇법당 : 23평 ◇요사 : 30평
◇부지 : 620평
◇가액 : 3억(절충가능)

◇ 위치 : 서울
◇ 부지 : 100평 (실사용 17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2평
◇ 가격 : 3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상담전화 02)723-4082
011)232-4082
광진불사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복현동 (주차시설완비)
◇ 법당 : 2층 43평, 옥상사용가능
- 개금3존불(넉자),
- 후불신중탱화 집기일체 포함
- 주지실 공양실 욕실등 완비 (입주즉시 법회가능)
◇ 가격 : 3천만원(보증금+시설비일체) 월 40만원

016)519-9551/053)957-9551

寺, 꼭 필요하신 분

◆ 울산 경주간 7번 국도변 분지형의 길상지
◆ 법당, 산신각, 요사3동(방사12),옥외 석조대불
◆ 경내지 350평, 매가 절충가능
◆ 향후 발전가능성 많음

0561)775-0545

사찰안내

■위치 : 양평군 양수리근역
■건평 : 총7동 140평
■대지 : 2천평
■매가 : 13억원
※ 강남에서 30분거리에 위치한 산세수려한 사찰로서 서울-양평간 4차선 국도에서 300m거리에 위치
■특징: 중개인사절

011)659-8538
0338)771-5737

포교당 인수하실분

◆위치 : 대구시 서구 평리동 시장입구 2층
◆평수 : 법당 30평,방 2칸 10평
◆시설 : 부엌, 욕상 있음
(주인직접 운영할 포교당 인수할 분)
◆가액 : 시설비 500만 보증금 1,000+30
◆가격은 1/2 가격임

053)557-1145

포교당 임대

◆부산 최요지 : 약 50평
◆보증금 : 1천만원(월 50만원)
◆시설비 : 2,300만원
◆방3칸, 주방, 법당, 창고, 사무실, 금동삼존불, 에어컨
◆시설 A급, 신도카드 500매

051)441-6773
011)825-1662

사찰(급)안내

◇위치 : 장호원 (서울에서 약1시간거리)
◇대지 : 438평
◇총건평 : 83평
- 법당(27평), 사무실(15평)방4개,
- 요사채(41평)방11개, 주방, 화장실
◇가액 : 3억 3천만원
◇특징 : 발전 요충지의 명당

※ 직접면담(급매) ※
032)831-3889
012)925-6118

사 찰 안 내

◆지안 용담댐 상류
◆경치좋은 유원지내 도로변 사찰!!
◆종교용지 500여평, 석굴암 (법당) 15평, 요사 35평
◆양도가: 1억 2천만원

0655)433-2900
0652)282-1536

포교원 안내

◆위치:강동구 길동 먹자골목 시장통
◆19년 역사 포교원
◆방 · 법당 · 부엌 · 화장실
◆가격: 3천2백만원, 월 60만원 (가격절충가능)
◆스님의 개인사정으로 급매

011)210-2561
02)482-4550

사찰안내

■위치 : 전남
■법당 : 15평 ■요사채 : 30평
■부지 : 2,700평
■가액 : 6,000만원

.●전국의 사찰 포교당 다량확보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경험으로 양도 운영 하실분에게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토굴 및 별장

■위치 : 가야산밑
■대지 : 평수 152평
■건평 : 15평
■가액 : 4천 5백 절충가능
◆산세수려하고 약수좋고 신축 건물 기와집

0543)955-7768

사찰안내

(大불사 가능지)

■위치:팔당댐옆(경관수려) 올림픽대로 4차선 예정 도로접
■학교 폐교건물 1동 외 건물1동
■대지:400평 잡종지:530평
■임야:1000평(내 건축허가 1동 대지 200평 가능)
■가액 : 17억(절충가능)
※토지 확보후 임야 50,000평 상당을 유리한 조건으로 확보 가능한 위치임

011)244-0433/0347)794-1141

사 찰 안 내

◆위 치 : 통영시
◆부 지 : 1,180평
◆법 당 : 25평
◆요 사 : 25평
◆가 액 : 답사후 절충
◆특 징 : 수려한 산세와 울창한 송림에 싸여있는 청정지역

012)1067-0108
0502)580-0108

사찰 안내

◆위치 : 경주 양남 효동 용담사
◆평수 : 법당 12평, 요사채 1동, 삼성각 1동, 부지 357평
◆주차장용도 550평
◆특징 : 폭포 2개, 경관수려
◆가액 : 1억 3천만(절충가능)

052)277-2117
052)248-7362
018)587-3585

사 찰 안 내

전북 군산시 월명공원 내

◆법 당 : 18평
◆요사채 : 30평
◆전세금 : 이천 오백만원
◆급한 사정으로 즉시 입주가능

0654)461-4152
011)579-9865

사찰 운영하실분

◆ 위치 : 경남 밀양
◆ 법당 : 30평
◆ 시설 : 시설일체 무상 기증
◆ 가격 : 답사후 절충
◆ 특징 : 관강지 입구에 수려한 산세속에 소재한 기도 도량으로 입주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정법대로 운영하실 스님께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합니다.
◆ 부지 : 1,000평
◆ 요사 : 30평
◆ 삼성각 : 5평

부처님의 정토세계를 열어가는 21세기 불자기업
(주)동국불사 담당 : 조법사 합장
서울본사 : 02)351-4447 / 011)736-4447

사찰건축 및 목재 안내(전문)

· 사찰 건축 · 사찰조경 · 단청 · 목조주택(한옥,황토집)

사찰 목재 안내 ※한국에서 마지막 원시림(육송)다량확보

♣ 대웅전:12평, 20평, 24평, 34평, 54평, 108평을 지을 목재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 대웅전 기둥: 1자, 1자 3치, 1자 5치, 1자 7치, 1자 8치, 2자 2치까지
◈ 대웅전 설계, 조감도 그려드립니다.

⊙ 불사하실 스님,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0371)762-3938
011)735-4168
(주)천운 나강민 합장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 (팔당대교에서 10분거리)
◆대지 : 1천평 ◆답 : 30평
◆법당, 산신각, 목조
◆주지실 1동, 요사1동, 후원채 1동 총 연건평 90평
◆매가 : 8억 3천 5백만원

0338)771-5737
011)380-9168

사 찰 안 내

◆위치 : 전북 김제시
◆부지 : 370평(아담한산속)
◆법당 : 39평(철근콘크리트)
◆요사 : 30평(방2, 주방, 거실)
◆전세 : 5천만, 매가 9천만
◆기타 : 동불, 사리1과 발견

0658)542-5859

토굴, 암자, 선방 최적지 양도

지리산 천왕봉이 안산으로 보이는 명도 - 약 2,000평 (약간의 대지와 초막한채)

012)587-6233
(호출시 지역번호 반드시 입력바람)

포교원 안내

◆위치:충신대역 시장통 사거리
◆평수 : 15평
◆법당 : 지장보살님 1불, 약사여래불 1불,종합탱화, 산신1분, 살림가구 일체
◆가격 : 500만원(월 40만원 (전세도가능 - 2,500만원)
◆시설비 : 3백만원(절충가능)

02)592-8849/011)611-8849
(무속인 및 보살님 상담환영)

사찰터(최적지)

◆위치 : 대전시 서구 5동 청학산줄기 절터 15,600평 (임야를 닦을 때 축대를 쌓지 않아도 7천~10,000평 정도가 생김) 단, 큰도로에서 4m 정도의 작은 도로로 500m 들어감
◆가액 : 평당 2만원(급매)

017)401-2459
042)544-2459

※ 그린벨트가 아닌 자연녹지입니다. ※

불자 세상보기

'무너지는 교권' 피해자는 국민

땅에 떨어진 師道…가정교육 실종이 주범
교사-학부모-학생 상호존중 신뢰회복해야

지난달 30일 동두천 중앙중학교 2학년 박모군이 철길을 걷다 열차사고로 숨지자 박군의 담임 김주용 선생은 마치 이 일이 자신의 책임인양 괴로워하다가 지난 15일 새벽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울산제일여고 3학년 김모양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17명의 학생은 선생님들의 '비밀 장학금'을 받고 무사히 학업을 마쳤다. 울산에서만 7개 학교에서 이같은 교사장학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숨은 제자사랑은 교사가 단순한 지식·기능의 전수자가 아니라, 인생에 깊은 시사와 감화를 줄 수 있는 '참인간'의 육성자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최근의 잇단 교권 침해 사건은 교사와 학생-학부모간에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스승에 대한 믿음의 산물인 인간교육이 실종될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체벌이나 꾸지람을 했다는 이유로 여중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가 하면 학생으로부터 체벌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업중인 교사를 연행하는 등 '교권침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6일 올들어 이같은 사례가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교총에 따르면 올해들어 접수된 각종 교권침해 사례는 ▲부당징계, 사직강요 등 신분피해 30건 ▲학교안전사고 피해 20건 ▲폭행피해 12건 ▲명예훼손 12건 등 모두 70건으로 작년 한해동안의 34건에 비해 2배이상 늘었다는 것. 특히 학생, 학부모에 의한 폭행피해와 체벌 등에 대해 관련기관에 고소 또는 제보, 교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명예훼손 사건은 작년 각 2건에 비해 5배나 급증했다.

교육부와 교총, 서울시교육청, 전교조 등은 이와 관련 "교사들의 교권이 무너질 때 교육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면서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상호존중과 사랑으로 신뢰를 회복해 교권 침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참선교육'은 사제지간이 하나되게 한다. 사진은 김재영 前 동덕여고 교사의 참선 지도장면.

일선 학교에서는 시교육청이 체벌을 전면 금지하면서 이같은 현상이 촉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체벌금지'가 언론을 통해 발표되면서 학생들이 이전에 볼수 없는 거친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 여기에다 연초부터 시작된 촌지파동과 각종 교육개혁 조치 등으로 인해 교단을 죄악시하는 분위기마저 형성되면서 교사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현실이 밑바탕에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부모들이 인성 교육을 포기한 데 있다. 선생이 들지 못하는 매를 대신 들어야 할 부모들이 가정교육을 포기한 것이다. 모두가 내 아이 기죽이지 않으려 기를 쓸 뿐 남에게 갖추어야 할 기본적 예의조차 가르치지 않는다.

교육전문가들은 "교과 위주의 학교교육을 전인교육으로 개편하고 가정교육을 강화하며, 폭력문화를 없애나가는 것이 교권 회복의 한 방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람 만들어 달라고 회초리를 선물하는 학부모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는 학생, 교사 스스로 참된 교육자상을 확립하려는 노력과 청소년들을 '된사람'으로 키우려는 사회전체의 공동노력이 있을 때 참교육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불교의 눈 "스승을 존경하고 봉양하라"

"제자는 스승 있는 곳에서 거친 말을 하지 못하며, 스승의 꾸짖음에 대꾸해서는 안되며, 스승의 상석을 먼저 닦아서 먼지나 개미 따위가 없게 해야 하며, 스승에게 자주 가서 필요한 것을 물어야 한다."(선공경경) 선생에게 대드는 학생, 교사를 폭행하는 학부모들이 되새겨야 할 법문이다.

"스승 공경하기를 부처님 공경하듯 해야 한다"(무진의보살경)는 가르침대로 "제자는 마땅히 다섯가지 일로 스승을 바르게 존경하고 바르게 봉양해야 한다. 모르는 점은 반드시 밝혀서 질문하며, 배움을 반드시 사랑하며, 일을 반드시 민첩히 처리하며, 그릇된 행위가 반드시 없게 하며, 스승을 반드시 공양해야 한다."(선생자경) "스승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스승을 보았을 때는 곁에서 섬기고 보지 못할 때는 가르침을 생각하여, 효자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같이 하며, 사람들이 음식을 생각하는 것같이 해야 한다."(중십경)

친환경농가에 보조금 지급

농림부, 내년부터

내년부터 환경규제지역에서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에 ha당 52만4천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농림부는 20일 상수원보호구역, 팔당·대청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지역 등 환경규제지역을 중심으로 1단계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실시하고 2000년부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내년에 친환경농업직불제가 시행되는 농지는 1만572ha로 국내 전체 농경지 면적 1백92만4천ha의 0.55%를 차지한다.

보조금은 일반농업과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 생산되는 농산물 소득 차액만큼 산정됐으며, 친환경농업을 실시하는 면적에 비례해 전액 국고에서 지급된다.

친환경농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받으려는 농민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을 구성해 다음달 2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작목의 특성이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해 작목반 등을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도 신청할 수 있다.

환경호르몬 예방법

"플라스틱 멀리하라"

"어린이에게는 플라스틱 대신 천연 소재의 장난감을 주세요."

국립독성연구소 박귀례 박사는 최근 출간된 〈소비자를 위한 식품의약품 정보〉 겨울호에서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인체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박사는 가능한 한 먹이사슬에서 낮은 단계(동물보다는 식물쪽)에 있는 음식을 섭취할 것을 권유했다.

또 ▲전자 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음식물을 플라스틱 대신 사기나 금속용기에 담아 넣고 ▲강력 세척제를 사용하지 말며 ▲치과 치료때 아말감 충전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권유했다.

샴푸는 저독성·항균성 제품을 사용하고 살충제가 뿌려지게 마련인 골프장에서는 입에 손이나 골프공 등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창문에 PVC로 된 블라인드를 가급적 설치하지 말도록 했다.

700 폰팅서비스 금지

정보통신부는 700 전화정보서비스 가운데 남녀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서비스가 불건전한 폰팅으로 변질 되고 있다고 판단, 내년 1월1일부터 신규사업자에 대해 700번을 통해 나이와 성별,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금지시킨다고 21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내년 1월부터 성(性)과 관련된 정보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정보는 관련협회에서 보완조치한 뒤 다시 심의를 받도록 했다.

미성년자에 마약팔면 최고 사형

법무부·복지부, '마약류 관리법' 국회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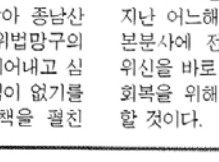
성장기 청소년들의 마약류 복용은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심각히 저해하고, 환각상태에서 강력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청소년들의 마약 복용을 뿌리뽑기 위해 앞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팔거나 투약하는 사람은 최고 사형에 처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1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마약류 판매사범의 처벌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통과되는 대로 내년 7월 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미성년자들에게 필로폰, 코카인, 헤로인등 마약류를 판매 또는 조제하거나 투약시킬 경우 현행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대폭 강화했다. 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사범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송년칼럼

궂은 일은 강물에



유익서
〈소설가〉

강물은 잠시도 쉬지않고 흘러간다. 시간도 그와 같다. 강물은 무엇이라도 아래로 아래로 흘려보낸다. 시간의 강물도 그와 같아서 아무리 잔혹하고 처참한 일도 쉬지않고 흘려보낸다. 계절의 변화는 물론 생명가진 것의 나고 죽는 순환의 철칙을 반복하며 흐르는 시간의 강물은 사람이 짓는 어떠한 일도 쉬지않고 흘려보내기 마련이다. 이와 같이 조계종 사태도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마침내 불퇴전의 신심이 정법을 받들고 현현하여 종단질서는 회복되고 승가의 화합은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사태가 교계 자체의 노력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고 공권력에 의해 진압되는 불행을 당하였다. 교계내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고 상처만 크게 남은 것이다. 텔리비전 화면을 가득 채운 아수라장의 총무원 청사와 일부 스님들의 자해공갈단같은 행태를 보며 국민들은 불교를 어떻게 생각했겠는가. 꼭 이래야만 했던가.

조계종 사태로 인해 불교의 위신은 실추될 대로 실추되었다. 불교복지재단이나 자선기관에는 후원의 손길이 끊어지고, 서점의 불교관계 책 판매까지 격감하였다 한다. 부도를 맞은 이, 직장을 잃은 이,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노숙자 등 온 국민이 IMF 고통을 호되게 겪고 있다. 이렇듯 온국민이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참스님'의 따뜻한 구제의 손길이 얼마나 절실히 요구되겠는가. 국민들의 고통과 시련을 함께 나누지 않고 도리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집단적 폭력을 행사한 스님들을 누가 '승보'로서 우러러 보겠는가.

> "참스님의 손길 절실히 요구 본분사 전심전력 중생제도 해야"

권력의 폐불훼석만이 법난이 아닐 것이다. 내부의 다툼 또한 법난에 다름 아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혹독했다는 북주 무제의 폐불훼석의 법난을 맞아 종남산 정애스님은 오로지 위법망구의 일념으로 자기 살을 베어내고 심장을 꺼내 불법의 그침이 없기를 외쳤다. 억불숭유 정책을 펼친 조선조 초 마하연의 석하스님은 법멸진일 유통교해의 일념으로 10년간 혀의 피를 내 화엄경 80권의 혈경을 이루어 보시하였다 한다. 그런 법난에는 미치지 못한 자중지란이라할지라도 종단을 바로잡고자 위법망구의 일념으로 자기를 희생하려는 '참스님'이 왜 나타나지 않는지, 그것이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다.

일찍이 만해선사께서는 〈불교유신론〉에서 스님들의 여러 한심한 작태들의 사례를 들어 논하였다. 얼굴에는 항상 일을 근심하는 기색을 나타내고 입으로는 시대를 걱정하는 말을 달고 다니면서도 정작 일을 하자고 하면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비열한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었다. 조계종 사태도 바로 그런 스님들 때문에 오래 끌며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눈총을 받지 않았는가.

일제초기, 이회광스님과 치열하게 종권 다툼을 벌이며 일본 불교와 야합하려던 용주사 강대련 스님을 불교계의 대악마로 지정하고 그의 등에다 북을 지워 종로통을 행진하게 한 불교유신회 젊은 스님들을 알고 있다. 이번 조계종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들에게도 바로 그런 명고축출 벌을 주면 어떨까. 그러나 어찌 처벌만이 능사겠는가. 가슴을 넓게 펴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아량을 베풀어 포용하여 종단의 화합과 질서회복을 위하는 것이 더 시급할 것이다.

이제 한해를 보내는 시간적 매듭을 힘차게 맺고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해야만 할 때다. 궂은 일은 다 지난 해의 강물에 띄워보내고, 총무원과 본사 주지들이, 문중과 문중의 어른들이, 영호남 사찰의 대표들이 무릎을 맞대고 지혜를 짜내 문제를 해결하자. 새해에는 사부대중들 모두가 지난 어느해보다 수행과 교화의 본분사에 전심전력하여 교계의 위신을 바로 세우고 불교의 신뢰회복을 위해 일념으로 정진해야 할 것이다.

뜻대로 사는 길 아·봐·타

Avatar.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꼭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까?
'나'가 누구이며,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깨달음이 당신의 소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봐타를 경험하세요!

- 아봐타는 신념이 경험에 우선한다는 일체유심조의 원리에 기초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의식개발프로그램으로 현재 61개국, 14개 언어로 전수되고 있다.
- 아봐타는 자신의 생각과 신념체계를 자유자재로 관리하여,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되어 원치않은 삶의 부분은 소멸하고, 원하는 삶만을 창조해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 아봐타 코스는 종교색이라곤 전혀없이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로부터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수행법으로 구도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 아봐타 코스는 불교 심리학을 실용화했으며 참선 수행등을 좀 더 보편화하여 평소 안고 있던 화두를 참구하는데 느낌을 보태어 깨달음을 점수케 한다.

"아봐타 코스는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다. 그러면서도 이 코스는 인간의식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해탈을 이루게 하는 힘을 넣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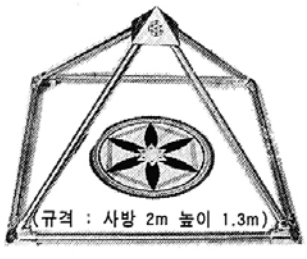
아봐타는 당신이 찾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당신을 찾아갑니다. 아봐타의 이름으로..

- 아봐타코스는 7~9일이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영축 아봐타센터에서는 매월 첫째 목요일 오전 9시에 코스를 시작합니다.
- 아봐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전화주십시오.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영축 아봐타 센터 0523)381-1143 011)882-1149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474(통도사 근처)

신비한 우주 에너지(빛) 발생장치, 명상용 ®

수정 피라밋 히란야!



재질순동 천연수정, 히란야 10개 부착, 대형코팅 히란야 및 고급 기에너지 발생 테이프 증정~!

* 피라밋 히란야 「의료용 '氣' 발생기구」: 특허청 의장 특허등록 NO. 204454, 223495, 227171, 227172, 227173

- 피라밋과 히란야 사용시 원인불명의 두통, 불면증이 해소되고 치매예방 및 호전이 가능하고 체질이 급격히 개선된다.
- 깨달음과 영적각성 및 차크라 개발을 촉진시키는 고차원의 빛 에너지가 대량 생성된다.
- 인체에 유해한 수맥을 차단하며 컴퓨터, TV등 전자제품의 인체 유해전자파를 중화·소멸시킨다.

우주문명과 피라밋 히란야
문덕 출판사

한국 피라밋 히란야 체질개선 연구회
부 설 문덕출판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305-1 보라B/D 303호
TEL. 792-0960, 0966
창원지원: 0551)268-5338, 부산동호회: 051)517-0236

天下大道 육신통(육경신) 대용맹정진 정진대법회



心力通天大道 육신통. 안,이,비,설,신,의에 입문하여 천안통, 천이통,타심통,숙명통,신족통,루진통을 성취하여 저허공에 달린 대천세계신령스러운 태양의 天氣를 참마음을 가진 입문자들에게 신선,도인,선사,성현의 경지를 닦은 선덕미묘법으로 천백억화신,유,불,선,도의 힘을 얻어 생애의 죄업과 인류의 영혼과 지옥의 영가해탈법과 천지만물 도통법을 얻는 대비밀장임을 명심할지여다! 특히 경신일에는 각종병마와 혼미해진 정신과 잡신에 끄달리는 신병과 신출괴몰한 비법은 귀신도 알지 못하며 이기도는 모든 종교를 초월하여 지도자는 물론 한가지 소원과 수준높은 道를 通하여 재벌과 명예는 못되드라도 德높은 道人에 입문하여 만인의 스승이 되여 중생구제와 도덕성 회복하는 道人이 되시며 자아완성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강의 : 예단경 직강
예단경은 천지만물이 태어나서 죽어 없어질 때까지 사용하는 경을 태일법사가 직강

●입 재 : 99년 양 1월 7일 (음 12.20) 해시
●해 제 : 99년 양 1월 8일 (음 12.21) 해시
●회 비 : 1박 2일 침식제공, 편한 옷차림, 5만원.
●기도처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60-188(구 모자원고개하차)
(주)02-821-6622 / (야)02-923-3110
016-239-3110
度皇宮 달마심기선무기공회
대 한 불 교 달 마 선 원
천하대도 육신경 도통 회장 태일법사 합장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북한산 줄기

상운사 골짜기
千年의 푸르름
하늘을 이고 가는데

솔나무 한그루 위로
백로 한가로히 춤추며
백운대 峰 아래 큰바위

물길을 열고 흐르는 듯
그 자리 자취 장관이로다

흐르는 물줄기 작은 연못
송사리 떼 노닐며
상운사 대웅전 뜨락 아래

피빛으로 물든 동백나무
관음보살의 미소로
삶의 고뇌 녹일 때

구름도 비켜가고
초겨울 바람
살갗 스친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 영 숙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 숙 (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주·야 (02)634-4910

무인년 불교계 점검 '송구영신'

불교방송 송년 특집프로 다채



◇불교방송은 연말연시를 맞아 다양한 장르의 특집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가수 이근찬씨가 '백팔가요'에서 애창곡을 들려주고 있다.

트롯트·클래식 결산…건강법 소개도

불교방송(사장 성낙승)은 30일~1월3일까지 음악·대담·보도·교양 등 다양한 장르의 연말 연시 특집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번 특집프로에는 올 한 해동안 청취자들이 선호했던 클래식과 가곡을 선정해 방송하는 '귓가에 남는 그 선율'(30~31일, 오전9시5분~오전10시)을 비롯해 그동안 청취자의 심금을 울렸던 트롯트곡을 정리하는 '트롯트 결산 98'(30~31일, 낮12시20분~오후2시), 청취자들이 뽑은 애청 가요를 들려주는 '올 한해의 다시 듣고 싶은 노래'(30~31일, 저녁 8시5분~저녁9시) 등이 마련된다.

또 트롯트 가수들의 한해 활동을 점검해 보는 '즐거운 노래, 트롯트 99'(1월1일~2일, 낮12시10분~오후2시)와 아시아 각국의 민속음악을 소개하는 '새아침의 여행'(1월3일, 오전9시5분~오전10시) 등이 신년특집으로 꾸며진다.

정부의 실업 대책과 올 한해 불교계에 일어났던 중요 사건을 통해 송구영신할 수 있는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도 방송된다. 이 가운데 김대중대통령 집권 1년을 결산하는 '국민의 정부 1년 정치권을 결산한다'(30일, 오후7시~오후8시)와 조계종 사태를 진단해 보고 미래의 바람직한 종단상을 제시해 주는 '무인년 불교계를 결산한다'(31일, 오후7시~오후8시)는 명쾌한 해설을 통해 청취자들의 주파수를 고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생긴대로 건강법 조성태박사의 겨울철 건강 지키기'(30~31일, 오후 3시5분~4시55분), '행복스튜디오가 뽑은 올해의 10대 뉴스'(30~31일, 오전11시10분~낮12시), '무명을 밝히고, 이웃과 함께'(30~31일, 오후 5시10분~오후6시) 등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어려울때 더욱 소중한 부처님가르침을 전합시다

현대불교신문 '1구좌 1천원 법보시운동'…12월 5만구좌(누계) 돌파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불교계마저도 불화와 반목, 대립속에서 혼미를 거듭하고 있어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탐진치가 범람하고 소외와 갈등이 심할 때일수록 우리는 부처님법에 의지해 살길을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유훈으로 남기신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의 가르침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에, 현대불교신문은 97년 6월부터 부처님 가르침이 전달되기 쉽지 않은 군부대나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및 해외교민시설 등을 대상으로 '신문 보내기 법보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불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동참금액을 대폭 낮춰 '1구좌당 월1천원'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아진 법보시는 12월 15일자로 5만구좌를 돌파했습니다.

우연히 접하게 된 한마디의 가르침일지라도 그것이 마음밭에 뿌려지면 반드시 싹이 터서 크나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부처님 가르침을 다양하게 담고있는 현대불교신문을 만나게 된다면 크나큰 인연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법보시 하시는 분들은 보시의 공덕을 짓게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더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군부대에 신문보내기 기금마련 하루찻집이 현대불교 신수회(회장 이영자) 주최로 열렸다. 사진은 12월 5일 원성스님이 현장에서 그린 자신의 그림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현대불교를 받아보고

용기·희망얻어 갱생의 삶 꿈꿔

청송에서 온 편지

저는 한때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크나큰 죄업을 짓고 그 악도에서 벗어나려고 일심으로 참회정진하고 있는 수인입니다.

이곳까지 현대불교신문을 보내주시는 이름모를 청명한 불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적지않은 감동과 지혜를 안겨준 현대불교신문 가족들과 법보시하신 분의 덕분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용기와 희망으로 새로운 갱생을 꿈꾸며 살아가게 되었음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보다 더 힘들게 사시는 분들에게 조그만 도움도 줄 수 없는 몸이지만 지금까지 받아온 많은 분들의 따뜻한 사랑을 앞으로는 갚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더욱 더 참회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홍돌이〈청송교도소 불교회장〉

감동과 자비법음에 따뜻한 겨울

원주에서 온 편지

라니뇨 현상 때문에 올해 겨울은 몹시 추울거라는 예보가 있었지만, 우리 원주교도소 불자님들은 따뜻한 겨울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천원 법보시 후원자'들이 보내주신 현대불교신문을 서로 돌려 읽으면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우리들에게 밝은 지혜와 참된 삶의 지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불자님들은 아직도 따스한 마음을 잃지 않고 내일의 밝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갈망하면서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준 현대불교신문사의 고마움에 감읍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정철주〈원주교도소 불고반장〉

중생위한 무주상보시에 감사

춘천에서 온 편지

지나온 한해동안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하여 무주상보시하여 주신 바다같으신 은혜에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해드립니다.

다가오는 연말연시에도 부처님의 자비하심과 은총의 광명이 함께 하옵시기를 기원드립옵니다.

새해에는 하시는 일일마다 무한한 발전을 바라옵니다.

김종한〈춘천교도소 불교회장〉

수행 채찍…베풀어 준 은혜 감사

목포에서 온 편지

평소 베풀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최종해〈목포교도소 불교교리반〉

새해도 지혜 가르침 널리 펴길

대전에서 온 편지

한해동안 부처님의 지혜의 가르침을 많이 주시어 고마움과 감사함을 드리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현대불교신문이 더 좋은 부처님 감로수가 되시옵고 편집국 가족 모두가 건강하시옵고 부처님의 복도 많이 받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옵소서.

신종찬〈대전교도소 수형자 불교반장〉

'법보시' 이렇게 보냅니다

발송단체명	부수	발송단체명	부수	발송단체명	부수
군법당	213	장애인복지	12	복지관련대학	43
경찰서	240	부랑인복지	3	불교병원	65
교정청	2	청소년복지	18	국군병원	45
교도소	128	자역복지	21	경찰병원	6
구치소·감호소	77	사회복지	26	기타 사회단체	137
소년원	13	신용협동조합	8		
감별소	6	사회복지협의회	14	947건 1,212부	
아동복지	38	종별협회	9		
노인복지	24	기업복지기관	65		

(98년 9월1일 이후)

법보시 후원자 명단

현대불교신수회(이영자 이매림 김재화 목영태 이란 조명숙 이희명화 최성구) 간종흠 강경중 강말숙 강미영 강민정 강병현 강북복지관 강성욱 강숙희 강순영 강신택 강옥구 강인성 강인숙 강장욱 강정기 강정화 강정희 강지숙 강춘계 강태근 강태복 강현숙 강황진 경순자 고계환 고광진 고덕현 고영배 고영이 고은주 고재선 고필선 구필회 권갑남 권계순 권동희 권미경 권복자 권성행 권순 권순혁 권연지 권영숙 권영현 권오진 권옥숙 권은경 권진순 권차순 권춘순 기현정 김경선 김경수 김경숙 김경열 김경옥 김경혜 김경훈 김경희 김광숙 김광순 김광태 김교안 김국중 김규정 김근삼 김근영 김금순 김기춘 김길운 김남석 김대현 김덕임 김두영 김록인 김명덕 김명훈 김문자 김미란 김미명 김미선 김미숙 김미순 김범수 김병서 김병주 김병철 김복남 김봉윤 김봉해 김상덕 김상림 김상분 김서분 김석순 김석용 김선남 김성경 김성민 김성순 김성자 김성진 김성혜 김성희 김수영 김수희 김순남 김순녀 김순덕 김순련 김순식 김순옥 김승재 김승지 김식자 김신엽 김애란 김애리자 김애자 김양순 김여경 김연득 김연자 김연희 김영란 김영만 김영배 김영삼 김영숙 김영순 김영식 김영아 김영자 김영희 김옥 김옥경 김외선 김용구 김용범 김원순 김원용 김윈우 김유학 김윤성 김윤중 김윤환 김윤희 김인성 김인희 김일동 김자경 김정란 김정선 김정숙 김정은 김정이 김정자 김정주 김정희 김제철 김종미 김종애 김종옥 김준만 김준모 김준엽 김준형 김준희 김지헌 김철수 김춘호 김춘화 김춘희 김태현 김태훈 김택곤 김한나 김헌 김현수 김현숙 김형창 김형철 김혜경 김혜기 김혜숙 김혜옥 김호 김호영 김호종 김화남 김화수 김활수 김희남 김희수 김희순 나숙희 남성수 남성진 남수경 남수미 남일우 남철수 노만호 노유택 노윤택 노진희 노향순 노혜숙 농협익명 덕순화 덩형관 도옥희 도재권 동사섭 류경훈 류봉수 류영란 류정님 류조형 마정혜 마진호 명세정 모영희 목포지사 무명 문명순 문병기 문상철 문숙자 문순조 문화자 민경주 민소영 민승자 민응식 박경선 박경숙 박광용 박광호 박금숙 박남순 박내순 박명의 박미경 박봉주 박상규 박상기 박상섭 박석열 박성례 박성수 박성진 박수진 박숙경 박승희 박신영 박양님 박양임 박양자 박영애 박영준 박옥남 박용무 박용숙 박용자 박원규 박윤기 박윤식 박익형 박재련 박재진 박정산 박정순 박정자 박제원 박종두 박주연 박준호 박진환 박찬연 박찬혜 박현혜 박철수 박춘자 박태규 박필원 박현순 박현주 박혜명등 박혜숙 박혜진 방금순 방명섭 배동금 배병진 배성호 배연수 배춘자 백상준 백성옥 백양심 백유선 백현기 백혜원 박경선 법인스님 법현스님 변미자 본사직원 본원신도 봉철웅 부산신도회 부산지원사당5동법회 상미숙 서귀연 서말희 서병학 서부웅 서옥경 서울은행 서윤아 서정숙 서준 서진 서최선 서춘건 서형관 서혜빈 석해월 선유진 선장재 선정호 선현자 설갑문 설정수 설지석 성동환 성민자 성재영 성필제 성호승 손금화 손봉희 손상률 손정숙 손혜숙 손화자 송규환 송미애 송복희 송양숙 송연숙 송인영 송정구 신기호 신미향 신복순 신상섭 신순희 신시균 신원민 신유진 신윤진 신재철 신조현 신진임 신택건 신호용 신흥재 심광엽 심단희 심묘희 심성학 심희주 안성모 안영선 안진후 양병덕 양영애 양은숙 양의군 양정순 엄정임 영등포법회 오동규 오두환 오미환 오병현 오선희 오송준 오순자 오승종 오주희 오진희 오창일 오창희 오현승 오현자 오형만 용산구 용환웅 우경애 우금식 우상용 울산한마음 원정옥 유금자 유미양 유선재 유양상 유은경 유인묵 유재춘 유정연 유정용 윤경애 윤경희 윤기수 윤병창 윤병혜 윤상문 윤석범 윤성 윤옥희 윤인자 윤재경 윤제학 윤준상 윤지웅 윤지은 윤창섭 윤태원 윤향숙 은경애 이강희 이경민 이경숙 이경아 이경원 이경인 이경자 이계선 이관형 이구자 이귀숙 이규만 이규환 이금순 이금주 이기오 이기철 이대섭 이덕의 이동기 이명규 이명순 이명자 이묘연 이미경 이미나 이미자 이번택 이범규 이병만 이보경 이복순 이봉우 이분순 이상란 이상숙 이상윤 이성재 이승자 이숙희 이순량 이순옥 이순자 이순천 이순호 이순희 이승은 이승훈 이신정 이씨 이아리 이양희 이연옥 이영숙 이영순 이영조 이영희 이오석 이옥영 이옥형 이옥희 이유순 이윤옥 이은주 이은진 이의남 이인상 이인숙 이임순 이장혁 이재국 이재윤 이재화 이점자 이정녀 이정례 이정수 이정숙 이정순 이정자 이정혜 이정희 이종돈 이종석 이종철 이준석 이준재 이준희 이중근 이지영 이지형 이진경 이진수 이진영 이진철 이창운 이창희 이창호 이철주 이태우 이태인 이태훈 이태희 이필순 이한희 이현숙 이현실 이현안 이현양 이현주 이형호 이혜란 이혜숙 이화숙 이화영 이효순 익명 인천신행회 임기남 임명옥 임명진 임선원 임소연 임옥재 임완숙 임우식 임종미 임춘심 임해순 임형대 임희자 장금강심 장미 장미숙 장점 장정숙 장정자 장정희 장축자 장해기 전계연 전규백 전병임 전복순 전삼우 전순남 전승현 전연석 전연택 전위자 전정희 전현수 전현진 정계영 정구순 정금관 정금란 정동한 정모아 정문식 정미경 정미련 정미향 정미형 정민아 정복순 정분선 정삼준 정상열 정숙점 정연동 정연봉 정연석 정연태 정연희 정영기 정옥녀 정옥찬 정윤옥 정점오 정정국 정정숙 정정자 정진욱 정필수 정필순 정학선 정해정 정해택 정현동 정훈채 조경자 조귀자 조남섭 조남주 조미란 조미숙 조상호 조양식 조영숙 조옥희 조원희 조유복 조윤숙 조은희 조은미 조정현 조혜숙 조혜연 지로봉사모임 지유미 지청인 진경수 진영숙 진옥례 진육상 진원중 진재영 진재용 차동호 차상환 차용욱 차현주 채희순 천재경 천현숙 천화조 청주교도소 초경락 최경진 최범순 최병언 최복내 최상철 최서윤 최석원 최성근 최성휴 최심형 최영도 최영명 최영봉 최영숙 최은희 최재두 최재철 최재혁 최정근 최정기 최정문 최정희 최주현 최행선 최형선 최희원 추철희 충남대교수불자회 표혜명 하금자 하명자 하홍용 한국여성불교 한기선 한마음선원 한명숙 한미순 한병소 한상현 한숙희 한순자 한아름 한임련 한철희 한춘영 한태희 한효심 함광점 함기석 함명억 함영숙 함지윤 허명희 허상임 허선숙 허성국 허수자 허재승 허종환 허찬응 허희숙 현수천 현월스님 현추월 혜월당 홍기장 홍명숙 홍소순 홍순아 홍영순 홍영호 황금철 황기용 황영분 황옥란 황옥석 황옥순 황점숙 황정옥

〈9월1일~12월15일·744명〉

건강 365일 〈41·끝〉 표고버섯



이만성 〈영재한의원 원장〉

콜레스테롤 감소·신진대사 촉진
심장병등 성인병 예방 치료 효과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피터슨 박사는 고혈압 환자의 식단에 2g의 표고버섯을 포함시켰더니 혈중 콜레스테롤이 15% 내외로 저하됐으며 혈압이 떨어졌다는 임상실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이 표고버섯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써 심장병, 동맥경화 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식품이다. 또 이 버섯에는 칼슘을 비롯해 체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비타민A, 비타민B 등이 들어 있다.

표고버섯은 참나무통에서 자라는데 참나무라 함은 도토리·상수리·떡갈나무 등을 통칭한다. 참나무에는 여러 가지 버섯 종류의 약재가 서식하는데 썩은 곳에서 자라는 '천마'라는 귀한 약재도 있다. 난초과의 다년생 식물의 하나인 천마는 중풍 고혈압 두통에 널리 쓰인다.

그러면 약재와 식용등에 널리 사용되는 버섯은 어떤 곳에서 자라는가?. 버섯은 주로 고목나무 썩은 곳에서 자란다. 이처럼 나무가 썩으면 버섯이 생기듯 사람도 속을 썩히면 신진대사가 원활치 못해 고혈압과 중풍이 오며 암과 담이란 것이 생긴다. 이 담을 양방 의학에선 콜레스테롤이라 한다.

참나무를 바닷물에 10년 이상 썩히면 침향이란 귀한 약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는 인체의 기를 잘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참나무에는 도토리가 달리는데 이것을 우려내 하수구가 막혔을 때 부으면 기름끼로 막혔던 하수구가 쉽게 뚫리기도 한다. 도토리가 공해물질인 중금속을 해독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도토리나무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표고버섯을 비롯해 천마 침향 등의 약재를 제공하며 도토리는 당뇨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등 버릴 데가 하나 없는 귀중한 나무다.

이 나무에서 나는 표고버섯은 송이버섯 상황버섯과 함께 버섯의 대부라 할 수 있으며, 어느 버섯이든 버섯은 모두 항암효과가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02)762-5510

주부 신행담 불성을 찾아가는길 ②·〈끝〉



그림·문병성

"마음 다스릴줄 아는 지혜가 곧 진리"
바른신행 비로소 눈떠

성년이 되면서부터는 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신행생활이 즐거웠다. 사찰에서 실시하는 성지순례, 방생법회 등 웬만한 행사는 빠짐없이 참여했다. 불교를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모든 생활을 절에서 시작하고 절에서 마감했다. 심지어는 아예 절에서 생활한 적도 있었다. 이같은 생활이 굳어지면서 선입견이 들기 시작했다. "이 정도면 더 이상 할 것 없다. 부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자연 신행생활도 게을러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주인처럼 사찰의 대소사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자는 신행생활의 척도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던 일이 생겼다. 매년 겨울이 오면 잊혀지지 않는 일이 하나 있다. 유난히도 추웠던 91년 겨울 어느날 전화벨소리가 길게 울렸다. 남편의 교통사고를 알리는 전화였다. 대형사고였다. 겨우 들이쉬고 내쉬는 숨간이 생존해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었다. 남의 일로만 여겨졌던 사건이 내게도 생긴 것이다. 그날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지 모른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눈앞이 캄캄했다. 그 때의 심정은 이 세상의 어떤 형용사로도 표현할 수 없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부처님, 부처님'만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날부터 매일같이 기도를 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찰을 다니면서 기도를 해 보았지만 그 때만큼 절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다. 처음에는 울음이 복받쳤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도 내가 기도하면 같이 합장을 할 정도로 모든 가족이 하나가 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들도 많아졌다.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던지 남편의 건강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적같이 남편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이렇게 겨울 한철 추위와 씨름하며 생사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드는 동안 나름대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신행생활은 오리에 불과했었다는 사실이다. 겉으로는 유유자적한 오리의 모습처럼 불자라고 자칭했지만 속마음은 오리가 떠있기 위해 부산한 발놀림을 하는 것처럼 산란한 마음으로 가득차 있었던 것이다. 겉과 속이 달랐던 것이다. 불자라고 절에 다니고 신행생활을 해 왔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신행생활은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제서야 마음이란 거짓이 없음을 알게 됐다. 마음은 더함도 덜함도 없이 내 자신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 마음을 바로 볼 줄 아는 것, 마음을 제대로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진리임을 체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나는 새로운 신행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온갖 욕심으로 가득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었다. 비로소 나는 불성을 찾아가는 길목을 발견한 느낌으로 앞으로도 불성을 찾아 열심히 정진할 것이다.

박정선〈경북 경주시 동부동〉

불·부다피아

http://mall.buddhapia.co.kr

buddhapia shopping mall

인터넷 불교 백화점 부다피아 쇼핑몰이 새로운모습으로
99년 1월 4일 개점 합니다.
싸고 다양한 불교 용품과 더불어 각종
정보란, 천불전 사이트 법당등 쇼핑을 하시면서
볼 수 있는 볼거리도 제공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 주십시오.
찾아오실 주소는
http://mall.buddhapia.co.kr 입니다.

문구암스님 범음·범패집


S0080004

인간문화재 문구암 스님께서 직접 녹음하신 카세트 테잎 1칩

· 불공의식, 삼신이운, 영산작법, 대령, 관욕의식등 분야별로 녹음되었습니다.

가격 : ₩ 50,000

1. 불공의식
2. 삼신이운
3. 신중청 · 신중권공
4. 상단청
5. 상단권공 · 거목
6. 대령 · 관욕의식 I
7. 대령 · 관욕의식 II
8. 대령 · 관욕의식 III
9. 영반 · 복청소리 · 대천수소리
10. 영산작법 I
11. 영산작법 II
12. 영산작법 III
13. 영산작법 IV · 지장청사 I
14. 지장청사 II · 지장권공 I
15. 지장권공 II
16. 전시식
17. 배송
18. 운심게
19. 법사이운 · 명전점안
20. 증성 · 천수작법 · 오잡

대나무 잔


S0090002

완전 자연산 대나무로 가공한 제품 대나무 한 마디를 가공 하므로 크기(지름)는 일정치 않으며 차와 대나무 향이 어우러진 차 맛이 일품 입니다.

크기 9(세로) 5~7(지름)㎝

가격 : 낱개 ₩ 8,000

법성게 걸망


S0010009

S0010010

크기 500×460 (㎜)

색상 회색, 밤색, 진베이지색

S0010011

가격 : ₩ 15,000


S0010008

생광석 108염주

생광석에서 방사되는 세포 활성 에너지에 의하여, 생광석 108염주와 일체된 부위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

1 손에 쥐고 기도하시면 손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지며
2 목에 거시면 목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집니다
3. 어깨 부위에 올리 놓으시면 어깨 갈림이 현저히 줄어들며
4 팔목이나 팔에 감으시면 팔목이나 팔의 통증에 큰 도움이 되며
5 피로가 풀신 덥히고 기분이 상쾌하며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가격 : ₩ 35,000

수월관음좌상

어래의 정지에 들지않고 중생제도에 원을세운 관음보살을 항상 염송하고 의지하며 공경하인 고난과 불장이 사라지고 해탈을 얻게된다
(본작상은 수월관음 직상으로써 연꽃위에 앉아계시며 물에 비친 달은 관하고 계시는 모습이다.)


S0020006


S0020005

크기 260×300(㎜)
수월관음좌상(채색)
가격 : ₩ 120,000

크기 260×300(㎜)
종류 수월관음좌상(금색) 가격 : ₩ 9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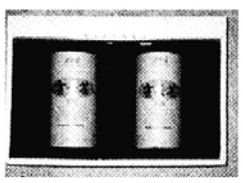
거산죽염

선조들의 비전 비방


S0090013

죽염은 우리 선조들이 애용한 健康鹽(건강염)제조 비방에서 전래된것으로 생명유지의 필수불가결한 鹽性(염성)을 강화시켜 주고 인체내에 부족하기 쉬운 각종 천연미네랄이 풍부하게 구비되어 있는 신비의 건강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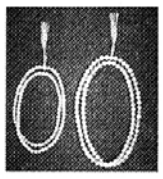
원산지 국산 가격 ₩ 30,000



(지리산 야생 수제녹차) 작설차

지리산 화개동 청정지역의 앞은 이슬을 머금고 자란 야생 찻잎을 정성껏 채취하여 수천년동안 이어온 전통 제다법 그대로 빚어낸 최고급 수제(手製) 녹차입니다

우전 : ₩ 80,000 중작 : ₩ 60,000 (2통 1세트)
세작 : ₩ 45,000 대작 : ₩ 40,000 (2통 1세트)



건강 옥 염주

옥을 지니고 있으면 여러 질병을 예방해 준다고 하였다 이미 알려진 사실로서 몸에 지니면 기를 빈신하여 고혈압.두통.스화불량.신경통 등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며 보석에 비금가는 대단한 아름다움을 겸비하고 있다

종 류 청옥 백옥염주(小) ₩ 30,000
청옥 · 백옥염주(大) ₩ 40,000

체질 처방 비디오 테잎

- 자신에 맞는 체질 처방으로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얻는다.


S0090012

저자
· 경희대 한방병원 원장 송일병 교수
· 경희대 분리소법과 신현대 교수
· 경희대 사상의학회 회장 고병희 교수
· 상지대 체질의학과 김달래 교수

가격 ₩ 70,000 (가방 포함)

제1부 나는 어떤 체질일까?
· 체질이란 무엇인가?
· 왜 체질을 알아야 하는가?
· 일반인도 체질의학을 활용할 수 있는가?
· 사상의학이란?
· 체질 감별법
· 자신의 외모심성 병증으로 체질 진단
· 체질병 특징

제2부 체질처방 건강 장수법
· 체질에 맞는 섭생이란?
· 체질에 맞는 보약과 운동은?
· 체중조절에 도움이 되는 보약
· 체중감량에 좋은 운동
· 체질에 맞는 육류.곡류.채소. 과일.해물.차 등
· 건강 장수 비결

제3부 체질처방 다이어트
· 살찌는 체질?
· 체질과 비만의 관계
· 조리법이 비만을 부른다
· 체질에 맞는 다이어트 조리법
· 다이어트 음식
· 살빼는 인간차
· 초지서 하는 물리요법 7가지
· 지압으로 빼는 군살
· 비만의 원인부터 억제하는 씨앗요법
· 살 빼는 심리요법

제4부 자연처방 식이요법
· 비만은 종합 질병이다
· 다이어트의 부작용
· 선택이 중요하다
· 절식요법이란?
· 쉽게 할 수 있다는데
· 살빼는 민간차
· 기별고 상쾌한 기분으로
· 생태학적 영양학의 식생활 실행조건
· 멋지게 보내는 하루

묘법연화경 책자

언제 어디서나 휴대할수 있는 포켓용 경전 입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경우 원하는 문구를 책 뒤에 넣어 드립니다


S0100001

크기 : 4.5 (가로)㎝, 6.2 (세로)㎝, 547쪽 가격 : ₩ 4,000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한국 전통 미술의 백미를 현대 미술로 재현하여 귀한 분들께 마음의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골동품형 S0020001
개금형 S0020003
브론즈코팅형 S0020002

가격
(코팅형, 골동품형)
₩ 350,000
(개금)
₩ 580,000

•재질 100% 청동 •종류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크기 40.5 ㎝



선화로 가는길 四君子

"사군자"를 통하여 선화의 세계로 발걸음을 내딛는다
국내 최초의 사군자 기법의 체계화 단순화 기법의 안내서가 이닌
배우는 분의 창의력을 자연스럽게 유도해 주는 동반자격인 책

가격 : 최고급 양장
₩ 120,000 (부록포함)
타블로이드 판 / 253쪽

五福臨門 猛虎圖(오복림문 맹호도)


S0090010

산죽 푸르른 산중에
맹호 노하여 위용 떨치니
뭇새들 놀라 흩어지고
여러 짐승들도 달아난다
산비탈 치달리는 맹호앞에
찬바람 휘몰아 치니
여러 짐승들은 두려움에 떤다
사방의 산야는
싸늘히 푸르고
해질녘 찬바람은
댓닢을 흩날리는데
어지러운 세파에 맹호의
웅대한 기상은
천만리에 위용을 뽐친다
욕심 사방을 진동한다지만
맹호는 구름과 같이 어울린다
호풍이 한번 휩쓰게 불 때
천하의 사악한 무리들은
모두 놀라 쥐 구멍을 찾는다

응 도 액자용
크 기 92㎝ × 61㎝
가 격 : ₩ 6,000

묘법연화경 (전7권)


S0100004

가격 : ₩ 140,000 (복장용)

기도 청자 세트

하나 하나 도공이 직접 구워낸 이쁜 기도 청자 세트
· 양.음각 세공을 도공의 손으로 직접 조각하였습니다
· 제품 하나하나 도공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 제품마다 정성이 가득합니다.

용 도
· 추석 등 명절 선물용, 이외 기도, 기정 기도, 제사, 산소등 용도다양

프랑제질
· 천연 오동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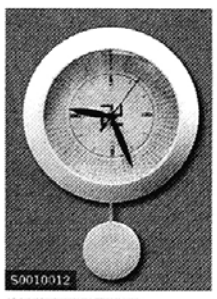
규 격
· 청자향로(8㎝×5㎝) 1개
· 청자촛대(6㎝×4㎝) 2개
· 양초 청 각 한질
· 촛대 비품먹이2개

가격 : 1세트 ₩ 25,000


S0010019

육바라밀 벽시계

항상 보는 시계에서 정진의 힘을 얻는다!


S0010012

부처님의 말씀 육바라밀과 브왕삼매론을 시계에 접목시켜 디자인하였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부처님의 말씀을 항상 가정에 두시고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지신의 마음을 다스릴수 있는 기회가 되실것입니다

· 육바라밀 생사의 고해를 건너 이상경인 열반의 세계에 이르는 실천 수행법인 육바라밀(六波羅蜜)은 보시(布施) · 지계(持戒) · 인욕(忍辱) · 정진(精進) · 선정(禪定) · 반야(般若)라고 하는여섯 가지 실천덕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50개이상 주문시 원하는 경전문구 삽입 및 디자인 해 드립니다.

색상 : 백색원판에 4도칼라
크기 200×260×60㎜
원판내용 : 육바라밀 브왕삼매론

가격 ₩ 15,000

강력한 신소재 전자파 제거장치

인체의 뇌파는 미세한 마이크로 웨이브 이지만 핸드폰은 900메가헤르츠의 전자파를 발산하여 뇌종양 유산등의 병을 유발합니다 본 제품을 붙이기만 하면 안심! 핸드폰을 들고 붙이기 전에 오링테스트 해 보고 붙이고 나서 오링테스트 해 보시면 깜짝놀랄 정도로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S0090007

강력한 커릴리안(KIRILIAN)이 유해전자파를 흡수 용해합니다


S0090004

모든 전자기기의 성능이 좋아집니다.


S0090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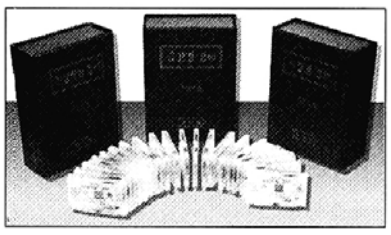

S0090006

용도 휴대폰, 헤어드라이기, 컴퓨터, 전기면도기, 진공청소기 TV 믹서 등과 수맥파

규격 2개 1세트

가 격 : ₩ 9,000

무비스님 특강 녹음테잎



무비스님의 경전강의를 접해 보셨습니까?
비쁜일상 생활이지만 잠시라도 시간을 넘수 있다면 혼집한 마음을 조용히 하고 꼭 들어 보십시오 무비스님이 직접 전해주는 깊로수 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금강경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S0080001
■ 지장경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S0080002
■ 진심직설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S0080003

화엄큰스님의 祖師西來意 달마도 보급

(순금 패스프트로 만들었습니다)

화엄큰스님 달마도를 항상 가까이 두고 공부한 덕으로 심신의 건강을 가꾸시고 지혜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부처를 보려거든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라

달마의 심비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가꾸시고
지혜의 눈을 가꾸시고
지혜의 눈을 얻어
개탈을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99.9%GOLD

특 징 순금을 최대한 얇게 뽑이 주머니속, 지갑속에 넣어다닐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재 질 순금99.9% 크 기 5.2㎝ × 7㎝
가 격 : ₩ 20,000 S0090003

순금 99.9%

경전카드

부처님의 광대무변한 원력이 항시 지켜드릴 것입니다 각 사찰이나 단체에 맞는 별도의 도인과 글씨도 가능 합니다


S0090014

가격 : ₩ 15,000 순금 99.9%


S0090019


S0090016


S0090017


S0090018


S0090015


S0090020

앞치마

연꽃을 이용하여 디자인한 실용 앞치마


원안


내부그림 S0090008


S0090009 내부그림

가격 ₩ 5,000
색상 : 자주색
재질 : T/C (면 혼합)
(100장 이상 주문시 원하는 인쇄 가능)

관세음보살보문품 족자

이 경전은 관세음보살이 32가지 모습으로 나투시어 자비로 중생의 재난을 구제하고 소원을 모두 이루어 주신다는 절대신앙을 바탕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보문품이 널리 독송된데는 다음과 같은 까닭이 있는데, 이 경전을 외우고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일곱 가지 모진 재난을 피하고, 탐 진, 치의 심독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소원이원만하게 이루어진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중생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관세음보살은 32가지의 모습으로 화현하신다는 것입니다.



색상 : 진녹, 검정
바탕색에 금색 인쇄
크기 : 55㎝(가로) 140㎝(세로)
재질 : 후로킹
특징 : 변색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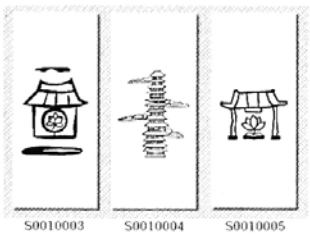
S0030001 검정
S0030002 녹색

내부그림



가격
₩ 30,000
(족자걸이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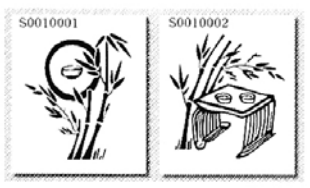
기도포


S0010003 S0010004 S0010005

다양한 불교적인 문양과 그림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기도하실때 한길 더 부처님과 가까워 질 수 있습니다

대(大)
기장 84㎝ 폭 39㎝
가격 ₩ 1,600

※ 원하시는 문구를 넣어드립니다 (100장 이상 주문시)


S0010001 S0010002

다포

기장 50㎝ 폭 39㎝
재질 면
가격 ₩ 800

※ 원하시는 문구를 넣어드립니다 (100장 이상 주문시)


S0010006

반야심경 종 차걸이

다양한 칼라 디자인


S0010020(검정돌)
S0010021(밤색돌)
S0010022(무명돌)

종 류 검정, 빔색, 투명
가격 : 낱개 ₩ 3,000

반야심경 향로

청동제품으로 향로 주위에 반야심경 경전 문구 인쇄

가격 : ₩ 25,000
S0010007



단주 열쇠고리

맑은 종소리가 들는 이의 마음을 편안히 해주는 제품입니다 (증여 반야심경 인쇄)

가격
낱개 ₩ 9,000

※ 금색종

서옹 큰스님 불(佛)자 액자

서옹 큰스님의 불(佛)자를 공예작가 법오선생이 동판으로 각은 작품입니다. 소장하시면 큰스님의 맑은 기운을 느낄실 수 있습니다

재질 동 S0030004
특징 수공예 작품
규격 39㎝×43㎝

가격 : ₩ 50,000

"7년 묵은 병에 3년 묵은 쑥을 먹어라" (중국 침학자 명자)

-해풍에 3년 말린 사자발 약쑥 액기스-

천호 액기스

· 피부미용 및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으며, 술 담배 많이하는 남성은 더욱 좋습니다
· 랙으로 쑥탕의 느낌을 그대로 볼수 있습니다

기술제휴 한의학 박사 천락원(원방천락병원장)

가격 : ₩ 50,000
(100g×60개입) S0090011

50원으로 사찰·사무실·자택을 지키는 방법!

KTI 2000 자동호출 경보장치

삐삐, 핸드폰만 있으면 집안 걱정이 사라집니다.

· 이제, 도난사고의 불안이 사라집니다.
· 이제, 바가지 경보장치가 사라집니다.
· 자동호출 경보장치, KTI 2000-첨단센서로 외부침입을 감지, 즉시 지정된 전화기, 핸드폰, PCS, 호출기의 번호로 통보해드립니다.
· 누구라도 손쉽게 설치할 정도로 사용이 편리하며, 설치가 없어 다른 경보장치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 실속있고' 간편한 첨단 경보장치, KTI 2000

IMF시대, 내집은 내가 지킬 때입니다!

KTI 2000의 다양한 용도

-사찰, 가정 및 점포의 무단침입, 강·절도 방지
-어린이, 노약자의 긴급호출 기능
-재산, 장비, 시설 보호 및 기밀보안
-아파트 경비원과 연계 가능
-공장단지의 완벽한 경비시스템
-현장음을 일반전화, 핸드폰, PCS, 호출기와 연계, 직접 저장청취기능
-사찰, 일반주택, 아파트, 사무실, 점포, 공장, 관공서 등

특허출원번호 : 국내 98-23050, 중국 981167950
일본 1998-230146, 대만 97113017

KTI 2000

가격 ₩ 138,000

한국불교의 현황을 집대성한 1998년 판

S0100002

4×6배판 / 1144쪽 / 양장제본
가격 ₩ 120,000

1) 한국불교의 현황 : 최근의 한국불교계 흐름을 악술
2) 종단 : 불교종단 50여곳의 현황을 수록.
3) 법인 : 불교관련 법인 150여곳의 현황을 수록.
4) 불교단체 / 기관 : 불교단체 및 기관 4,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5) 불교관련업체 : 불교관련 업체 1,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6) 사찰 : 국내외 사찰, 포교당 13,000여곳의 목록을 수록.
7) 인명 : 승가 및 재가불지 여명의 개인 인명자료를 수록.
8) 불교문화재 : 초판 이후 추가 지정된 200여건의 불교관련 문화재 목록을 수록.
9) 불교도서논문 : 초판 이후 추가 간행된 3,200여건의 불교관련 단행본 및 박사학위논문 목록을 수록.
10) 한국불교연표 : 초판 이후 한국불교 관련 사건을 수록.

우리 기술로 만든 한방 미용 비누

S0090001

· 독특한 향+부드러운 촉감 +미용과 면역기능
· 피부미용에서 미백효과는 물론 자연면역기능까지
· 한방 재료 추출물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 99.9% 천연 소재 사용

■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금학박사 이 기 영
'오보크린'은 금리로 인해 손상된 피부를 재빛이 넣어내고 피부에 함으된 영양을 공급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력과 탁월기능까지 부여한 첨단생명공학적 고기능성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 명 준
대기 및 실내에 산재한 각종 유해 중금속입자 및 오염물질을 신속하게 제거해 주는 '오보크린' 건강미용비누는 이용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 강원대학교 축산기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 면
세균비누는 이용률수풍이지만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한준성물질과 피부노화방지물질 등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건강기능성비누'는 처세대 아이템이 상품이다

가격 : ₩ 18,000 (1세트 : 3개)

해맞이법회 "새희망 솟네"

향일암 낙산사 천룡사등 법회 잇달아
음악회 제야의 종 타종 철야정진 행사

새해를 맞는 불자들의 자세는 남달라야 한다. 기묘년 새해에도 각 사찰과 단체에서 일출도 감상하고, 신심도 굳건히 다지는 해맞이 법회를 준비했다. 붉게 타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99년 한 해의 계획도 세워보자.

향일암 여수시와 함께 31일~99년 1월 1일까지 향일암 일출제를 연다. 송년음악회와 제야의 종 타종, 야외영화제, 일출맞이 비나리 기원 고사, 소원성취 문구 날리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0662)650-5546 향토문화답사회도 향일암 일출을 감상하고 선암사와 태안사를 참배한다.(02)732-5590 동신항공 두어도 향일암 일출코스를 마련했다.(02)631-2211

낙산사 낙산사는 99년 1월 1일 자정 타종식을 시작으로 소망기원 성취기도, 새해 촛불밝히기 등 해맞이 대법회를 봉행한다.(0396)672-2448 부산불교교육원은 31일 양양 낙산사로 무박 2일 일정의 새해맞이 불교문화기행을 떠난다. 낙산사에서 새벽예불을 드리고, 동해의 일출을 감상한다.(051)466-4080 두레도 31일 낙산사 일출여행을 떠난다.(02)712-5812

대청봉 용진신행회는 기묘년 새해를 대청봉에서 일출과 함께 한다는 계획이다. 31일 출발해 오색-대청봉-봉정암 숙박-수렴동-백담사를 거쳐 99년 1월 2일 서울로 돌아온다.(02)279-1191

대흥사 터사랑은 두륜산 대흥사에서 새벽을 맞이한 후 보길도행 선상에 올라 기묘년 새해아침을 맞이할 예정이다.(02)725-1284



◇해맞이 법회에서 일출도 감상하고, 신심도 다지며 남다른 새해를 맞이하자.

경주 남산 부처님마을은 경주 남산 천룡사에서 새해맞이 철야법회를 봉행한다.(0561)743-3285

석굴암 통도사 부산포교원도 31일 경주 석굴암에서 제야의 종 타종식과 함께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을 계획이다. (051)816-2241

보리암 트랙코리아가 남해 금산 보리암 일출을 감상하는 코스를 (02)743-7631, 여행자클럽도 2박3일 코스를 준비했다.(02)278-0551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신행 캘린더

12월31일 (목)

■제주불교어린이지도자 연수회=오후 6시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제5회 제주불교어린이지도자 연수회가 제주 고관사에서 열린다. (064)702-4233

1월1일 (금)



◇겨울 선수련회에서 참선 실수와 발우공양을 직접 체험해 보자.

■길상사 겨울 선수련회=길상사 겨울 제15차 선수련회가 4일까지 길상사 설법전에서 열린다. 일반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참선 실수와 발우공양, 108참회기도, 불자기본예법 등을 지도한다. (02)3672-5945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제26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가 3일까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열린다. (02)433-1506

1월2일 (토)

■남허보리암 철야기도 및 칠불사 참배법회=용진항공여행사는 기묘년 새해를 맞아 남해 보리암 철야기도 및 칠불사 참배법회를 오전 7시에 떠난다. (02)279-1191

1월3일 (일)

■회룡사·망월사 산행법회=금강메아리는 회룡사와 망월사로 신년 산행법회를 떠난다. 오전 9시30분 의정부 회룡역에서 집결한다. (02)772-9517

■전등사, 선원사터 참배=답사여행의 길잡이 터사랑은 새해를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새해맞이 강화도 나들이를 떠난다. 전등사와 선원사터 등지를 참배하고, 강화전적관과 초지진 등도 둘러본다. (02)725-1284

1월4일 (월)

■스카우트불교지도자회 동계 수련회=한국스카우트불교지도자회는 6일까지 2박3일간 충북괴산 다보수련원에서 동계수련회를 개최한다. (02)292-8502

1월6일 (수)

■동방불교대학 불교미술과 졸업작품전=동방불교대학 불교미술과 졸업작품전시회가 공평아트센터에서 10일까지 열린다. (02)763-0229

■천태종 교원불자 수련법회=천태종 총무원은 8일까지 부산 삼광사에서 제1회 전국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교원불자 동계수련법회를 실시한다. (0444)420-7309

게 시 판

♣ 알림

△금강경 실천 수련회=바른법연구원은 99년 1월 22일~25일까지 생활속 〈금강경〉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한 제2기 겨울수련회를 경기도 고양 수련원에서 갖는다. 대상은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책을 읽고 내용에 공감한 불자로 접수마감은 99년 1월 16일까지. (0344)63-2872

△무료 자아강화프로그램=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어린이들의 심리검사를 통해 장점과 약점을 파악해 적응력을 키워주는 무료 자아강화프로그램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02)421-6077

△잠재의식 최면 강습=한국감성연구회 김택관부회장은 99년 1월 12일부터 3주동안 자기최면과 전생퇴행 등 잠재의식의 실체를 체험하는 최면술 강습회를 연다. 015-8350-4433

♣ 모집

△경력 편집자=도서출판 민족사는 경력 2년이상의 여성 편집자를 모집한다. 맥킨토시와 IBM 컴퓨터 편집 가능자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 된다. (02)732-2403

△동산불교대 신입생=동산불교대학은 2년과정의 불교대학 제14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정규반과 통신반 과정으로 불교학개론과 포교방법론, 비교종교론 등을 배우게 된다. (02)732-1206

△국청회 불교교리 수강생=국청회는 99년 1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불교교리대강좌를 실시, 수강생을 모집한다. (02)730-1249

△자원봉사자=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무료급식, 밑반찬배달, 주민도서실 정리 등을 지원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421-6077

♣ 답사

△실크로드 불교문화 유적 답사=한국언론자료간행회는 99년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서부와 남인도 지역 및 스리랑카를 답사하는 실크로드 불교문화 유적답사단 참관인을 모집한다. (02)723-3113

98 종단결산

실직자 돕기·전산화 등 내분에 묻혀

조계종 조계종은 상반기 동안 불교관련법 개정과 종무전산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종무행정 프로그램 보완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종단 홍보 토대도 마련했다. 또 성보전산화 작업도 계속 추진했으며 관련 자료집도 발간했다. 불교교리서와 의식집을 발간해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훼불사태에 대한 대처를 위해 종교편향대책위를 구성하기도 했다. IMF로 인해 속출한 실직자와 노숙자를 위한 대책에 앞장선 조계종은 노숙자 구호시설인 '보현의 집'과 '희망의 집'을 13곳이나 개설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조계종은 9월부터 정화개혁회의 출범 및 청사접수 등으로 분규에 휩쌓이며 어느해 보다 혼란한 한해를 보냈다.

총무원 선암사로 · 득도수계산림

태고종 태고종은 선암사를 둘러싸고 조계종측 주지 세민스님과 대치하면서 긴장된 한해를 맞았다. 태고종은 선암사를 지키고 조·태분규를 종식키 위해 총무원을 서울에서 선암사로 옮기고 총무원장 인곡스님이 주지에 취임하는 등 종단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태고종은 선암사 성역화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그 밖에도 태고종은 전국 각 사찰 단위로 국난극복법회 봉행, 경제난 극복에 종도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도 했다. 반면 합동득도수계산림과 연수교육 등을 제외하고 종단적으로 뚜렷한 사업성과 없이 한해를 마무리했다는 지적도 있다.

관문사 낙성 도심포교시대 개막

천태종 올 4월 관음존상 봉안식을 계기로 최첨단 메머드급 사찰인 관문사의 면모를 드러낸 천태종은 부산 삼광사, 대구 대성사, 대전 광수사와 더불어 전국 포교거점을 마련했다. 이로써 본격적인 교세확장의 발판을 다진 천태종은 홈페이지 개설과 복지시설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정보화시대 영상포교의 막을 연 동시에 천태사상과 종단홍보, 포교활동에 가속을 붙였다. 특히 각 사찰별 특징을 살려 무료교양강좌와 무료영화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을뿐만 아니라 가족단위 신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사회 복지 · 북한포교활동 성과

진각종 진각종은 조계종에 이어 교계로써는 2번째로 복지법인 진각복지회를 설립하고 수재민돕기 자원봉사활동, 실직자 아동일시보호소 선재의 집 개원, 소년소녀가장돕기 모금활동 및 바자회 등 활발한 복지사업 전개를 통한 대사회활동에 눈을 돌린 한해였다. 또 종학연구실을 개편확대한데 이어 종단발전기획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내실을 다지기도 했다. 또한 진각종은 통일대비 포교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 국제불교연구소를 설립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실직자쉼터등 경제난 극복 동참

관음종 홍파 총무원장을 비롯 각 종무원장, 각 부장 등 신임집행부를 구성한 관음종은 전국순회법회 및 승려·교임 연수교육 실시 등을 제외하고서는 특별히 주목할만한 종단차원의 행사와 사업은 없었다. 그러나 단위사찰별로 실직자쉼터 및 무료급식소를 설치해 경제난 극복에 동참했다.

복지관 위탁운영 사회사업 활발

총지종 총지종은 종조인 원정대종사의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이념을 바탕으로 1월21일 실직자를 위한 지원시설인 '오뚜기모임터' 설치, 본격적으로 사회적 역할 모색에 적극성을 띠었다. 이같은 교단차원의 사회적 위상강화 노력은 사회복지법인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장학사업, 유치원운영, 무료급식, 노인회관 자매결연, 실직자 후원사업 등을 통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됐다. 12월10일에는 강남구청으로부터 역삼노인복지관을 위탁받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우리 시대의 원효
이기영교수의
불교개론강의
불연이기영전집 제24권, 상권 293면, 8,500원 / 하권 363면, 9,500
한국현대 불교학계의 거목이었던 불연 이기영교수의 불교관을 집약한 이 책은 불교가 어떤 점에서 진리인가 하는 그 요체를 알기 쉽고 명쾌하게, 그리고 신념에 가득찬 목소리로 설하고 있다.



불교는 새로워져야 한다!
이지러운 한국 현대불교계에 고하는 제언
다시 쓰는 한국불교유신론
불연이기영전집 제18권, 333면, 9,000원

이기영교수의 삶과 사색
내 걸음의 끝은 마음에 있나니
불연이기영전집 제17권, 329면, 8,000원

한국불교연구원
TEL : 3411-6167,6168
FAX : 3411-6164

동양철학 길잡이 ~
사/주/박/사 사주박사
위기가 낡는 기회,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인생의 등대가 되어 줄 오묘한 진리, 역학의 세계
역학의 등불을 사주박사가 들겠습니다.

동양철학 수천년의 寶書를
가장 빠르고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정상의 역학 전문 소프트웨어 사주박사
생활의 필수품 컴퓨터에서
역학의 진리를 펼쳐보십시오.

▶ 사주박사는 출시8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가장 완벽한 역학 컴퓨터 소프트웨어입니다.
▶ DM발송 및 고객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사찰 운영에 불편이 없습니다.
▶ 정서 수백권을 참고하여 수록된 해설자료는 백과사전 49권 분량에 달합니다.
▶ 사주원국(용신), 종합해설, 행운, 대운, 세운, 육효, 척전즉시운, 택일, 궁합, 감명, 사명, 귀곡산명술, 기문둔갑 오운육기, 자미두수, 토정비결, 당사주, 만세력

정가
<사주박사 5.0 전문가용> 150만원 ▶특별할인가 79만원
<사주박사 5.0 평생칙자용> 300만원 ▶특별할인가 150만원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9-6 평화 B/D 7층
☎ 02) 522-3268 FAX. 02) 522-3263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 야 심 경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難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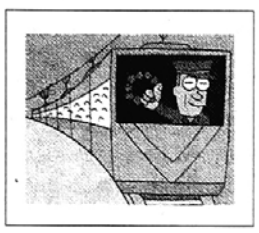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 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특 전
전수중 일정한 기간에 불교문화원 회원과 한국불교 선묵가협회 초대작가로 추천함.
한국 수맥파 방지 충연합회 인증 100% 효과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주)(02)242-0331,242-0255
(야)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생활속의 보살행 정토 가꾼다







현대불교 캠페인 '작은 실천 큰 기쁨' 반응

남모르는 자비행 발굴 생생히 전달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의 삶' 확산

본사가 연중기획으로 매주 1면에 게재해 온 '작은 실천 큰 기쁨'은 남몰래 자비행을 실천하는 불자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자비실천행의 확산을 도운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 불자의 선행이 소개되면서 그로 인해 또다른 선행을 발심하는 불자들이 본사로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고,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점심을 굶는 결식학생들에게 몰래 도시락을 전달하는 서울 옥수복지관 효인스님의 숨은 이야기(196호)가 보도된 후 교계복지관을 중심으로 결식학생을 돕기위한 일대일 결연맺기, 도시락 후원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기도 했다. 노인들에게 생선공양을 해 온 최세영씨의 보시행(165호) 덕분에 강원도 속초복지관 은빛노인대학은 지역노인복지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JTS 북한 나진-선봉 탁아소와 유치원 어린이를 후원하는 양윤덕씨(178호)는 보도이후 동참자들이 더욱 늘어 현재까지 나진지역의 10개 탁아소를 후원하고 있다.

염주를 직접 만들어 군부대와 복지시설 등지서 포교활동을 해 온 지하철 기관사 강부동씨(197호)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서 재소자 포교 활동중인 동방불교대학 홍성북차장에게 염주만드는 법을 전수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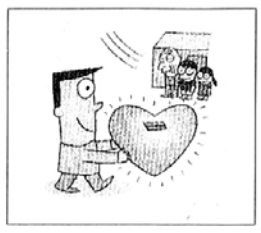
노인실직자에 100원짜리 곰탕을 파는 추이자씨(190호)는 "요즘들어 노인뿐만 아니라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실직자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또 찬불가 테잎을 직접 제작해 장애인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전달해 온 경남 밀양의 최대혜심보살(198호)은 보도 이후 함양 보문사 스님과 신도들이 찾아와 찬불가 합창을 지도 해달라는 요청까지 받았다.

이밖에도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야채가게를 운영하는 강중남씨 부부(179호)는 보도 후 "주변 사람들이 남은 야채를 더 많이 모아줘서 자광원을 비롯 보다 많은 복지시설에 부식을 전달하고 있다"고 전해 왔으며, 임종전 유언으로 자신의 시신을 의학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평소 소신대로 고려대 의대에 기증한 청련화보살(181호) 보도이후 유족들이 "고인의 거룩한 뜻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됐다"며 감사의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다.

보시통장을 만들어 불우이웃, 복지시설을 돕는 헤어디자이너스클럽 전상섭원장(186호)은 보도가 나간 후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너무 많아서 곤란을 겪기도 했다.

이렇게 경제한파로 황량해진 우리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 주었던 '작은 실천 큰 기쁨'의 주인공들은 지금도 자신의 생활현장에서 이웃의 아픔을 온몸으로 함께 나누며 살맛나는 정토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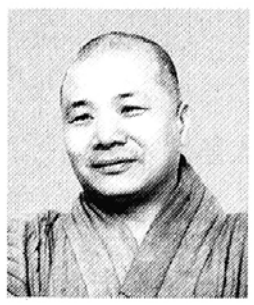




● '작은 실천 큰 기쁨'을 읽고 ●

"작은 선 쌓여 화엄세계 이뤄"

길상사 선원장 지묵스님



옛 말씀에, 비록 작은 선(善)일지라도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하며, 또한 비록 작은 악(惡)일지라도 작다고 해서 우습게 여겨서 행동으로 옮겨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한번에 큰 일을 해치우려고만 벼르다가는 결코 어떤 일도 이뤄내기 어렵다는 교훈이다.

작은 꽃, 이름없는 들꽃이 가득찬 세상은 아름답다. 반드시 화려하고 큰 꽃송이일 필요는 없다. 푸르고 누르고 붉은 꽃들이 가득 찬 봄산과 들은 화엄의 세계 .

세상 구석에서 선근(善根)을 심고 가꾸는 작은 보살의 손길은 비록 조그마한 데서 출발하였으나 이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하나에서 다섯으로, 열 백 천으로 확산되어 화엄의 세계를 이룬다. 미담은 또 미담을 낳고, 선근은 또 선근을 심기 때문이다.

그러나 얻었다 한들 본래 있었던 것이며 잃었다 한들 본래 없었던 것이라는 본래 공(空)한 도리를 잃는다면 아만과 제 고집만을 낳는다. 선을 행한 즉시 선까지 버려야 선행이다.

선을 행하는 데 습관이 안되어 잘 안된다는 이들이 있다. 작은 실천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작은 이웃의 미담을 통해서 용기를 얻는다면 다행이겠다. 작은데서부터 출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처음이 어렵다. 작은 인연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다. 자비보살의 훈훈한 인정을 느낄 때마다 '세상은 착한 이가 더 많다'는 걸 확인한다.

영주 관음사서 또 훼불

한밤중 괴한 침입
불상 · 목탁 등 부숴

훼불사건이 또 발생했다.

경북 영주시 이산면 관음사(주지 도기) 원통전에 16일 새벽 괴한이 침입, 불상과 목탁 등을 파괴하는 훼불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범인은 특수유리 속에 봉안된 관세음보살상을 망치로 눈 부분을 중점적으로 훼손했다. 또 원통전의 심우도를 훼손하고 목탁과 석탑안에 모셔진 석불 2기를 부수기도 했다. 특히 범인은 원통전에 봉안돼 있던 청동 관세음보살상을 훔쳐 사찰에서 50여m 떨어진 주차장 하수구에 버리고 달아났다. 이 청동 관세음보살상은 머리부분이 부서지고 어깨와 팔이 떨어져 나가는 등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파손된 채 발견됐다.

관음사 주지 도기스님은 "올해 영주시가 추진중인 시영 납골당 건립과 관련 관음사가 사찰 소유 토지 3백50여평을 무상 기증하고 납골당이 들어설 지역민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돌린 데 앙심을 품은 일부 지역민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범인이 남긴 것으로 파악된 방석의 발자국과 사건발생 시간인 16일 새벽 1시경 흰색 트럭이 절 입구에 있었다는 주민의 증언에 따라 평소 납골당 건립을 반대해 온 지역민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영주 관음사에 16일 괴한이 침입 관세음보살상의 눈 부분을 훼손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부여군 유적지 관리
새해부터 민간 위탁

부여군은 구조조정 등으로 인원이 감축됨에 따라 관내 주요 문화유적 및 사적지에 대한 단순업무를 내년 1월1일부터 민간 위탁관리로 전환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사적관리요원은 당초 사무실 직원을 포함, 부소산성 9명, 능산리고분군 5명, 정림사지 · 궁남지 등 기능직 · 일용직 등 38명이 근무해 왔으나 구조조정 등으로 10명의 요원이 감축돼 인원 부족현상을 겪고 있었다.

군은 이달초 민간위탁 대상사적지 부소산성부설 관광주차장, 능산리 고분군 관람료 · 주차료 · 매점, 정림사지 관람 · 주차료 등 3건에 대한 입찰을 통해 총 1억3천9백30만원으로 민간 징수 위탁관리업자를 선정, 내년부터 위탁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건봉사 통일관광지 조성

호국영령 위패관 · 사명대사비 · 전시관 등 건립

금강산 건봉사가 통일안보 관광단지로 조성된다.

고성군에 따르면 건봉사 통일안보 관광단지는 내년부터 1차사업으로 7억여원을 들여 6 · 25이후 조국수호를 위해 산화한 군장병 1백77명과 무명용사 등 건봉사에 안치된 호국영령 1천2백30여명의 위패봉안관을 마련한다.

또 임진난때 승의군을 모집, 봉기한 사명대사 기적비 복원과 수련원, 전적공원 및 전시관 등도 2007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중근 기자

외국인 근로자의 밤

통도사부산포교원 국제포교부(회장 이건웅)는 20일 법당에서 동남아 노동자를 위한 밤 행사를 열었다.

동남아 근로자 1백50명과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한 이날 행사는 각 나라별 노래와 춤 등 장기자랑 순서를 통해 많은 노동자들은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갑사 18세기 탱화 도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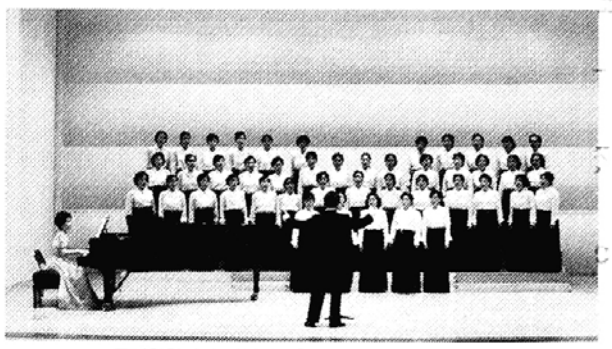
21일 오전 3시께 충남 공주시 계룡산 갑사 대웅전에서 후불탱화 1점이 도난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갑사 경비원 이모씨에 따르면 이날 새벽 경내를 순찰하던 중 대웅전 옆문 자물쇠가 풀려 있어 확인해 보니 후불탱화 아래위가 정교하게 잘린 채 없어졌다는 것이다.

도난당한 후불탱화는 세폭으로 이루어진 삼불회탱화 가운데 약사회상도로 가로 3m, 세로 5m 크기의 18세기 초반 작품이다. 문화재 지정은 안돼 있으나 제작 연대가 오래됐고 갑사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던 작품이어서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불탱화는 모두 세폭으로 영산회상도 아미타회상도 약사회상도로 이루어져있다.

경찰은 범인이 대웅전에 설치돼 있던 보안용 열감지기에 껌을 붙여 작동이 안되도록 한 점 등으로 미뤄 문화재 전문 털이범의 소행으로 보고 고미술상 등을 상대로 유통경로를 추적 중이다.

강지연 기자



◇금강합창단이 결식아동을 돕기위해 연 자선음악회.

진각종 금강합창단 결식아동돕기 음악회

진각종 금강합창단(단장 명선각)은 18일 대구 서구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결식아동돕기 자선음악회를 개최했다.

창단 10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음악회에는 소프라노 김해경씨와 금강합창단 사물놀이팀이 특별출연했으며 임익선의 지휘로 찬불가 가곡 민요 등 20여곡이 선보였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사찰앞 러브모텔 철회

울산 동구 방어동 관음사(주지 혜원) 앞 여관건립과 관련해 마찰을 빚어온 송인국 시의원이 22일 여관건립계획을 전격 철회했다.(203호 22면 참조)

송의원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여관 등 생활근린시설을 신축하려 했으나 신도와 주민들의 반발로 현직 시의원의 신분으로서는 더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워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중근 기자

불우이웃에 생계비 전달

대구 달성군 사암연합회(회장 인호 · 장원사주지)는 18일 관내 무의탁노인,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등 10여 가정을 방문, 총 1백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윤호 기자

고침 본지 202호 5면 '청불회 수련회' 기사중 봉선사 조실 월운스님을 '봉선사 회주 월운스님'으로 바로잡습니다.



● 한국 비구니 스님들의 구도 행장기

최초발굴

꽃(花)으로 태어나
꽃(華)이 된 존재, 비구니 스님

화엄경(華嚴經)은 세상 혹은 우주를 꽃으로 장식하기를 권하고 가르치는 경전이다. 꽃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한자에서는 가시적인 꽃을 화(花)로 나타내고, 비가시적인 꽃을 화(華)로 나타낸다. 두 꽃은 모두 아름답고 곱고 예쁘고 향기롭고 값진 것이지만, 뜻하는 바는 사뭇 다르다. 비구니 스님들은 꽃(花)으로 태어나 꽃(華)이 된 존재들이다.
한승원 '후기' 중에서

본래 마음자리를 밝히는 수행자로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전법자로서, 절을 일구고 지키는 가람 수호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당당한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비구니의 모습을 생생하게 되살렸던 것이다. 다소 흐트러졌던 수행자들은 이 책에 실린 선학(先學) 스님들의 삶을 지남(指南)으로 삼아 추스리고, 아직 불교와 인연이 닿지 않은 이들은 이 책을 읽고 발심의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생각한다.
광우스님 '추천의 글' 중에서

이 책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를 살다가신 비구니 큰스님들을 다시 뵙고 가르침을 듣게 해주고 있다. 저자가 이 책을 저술한 작업은 모래를 헤쳐 금을 찾는데 비유할 수 있을 만큼 온 정성을 다 기울였음을 볼 수 있다. 기록되어 전하는 자료가 부족하여 문하생들을 일일이 발로 찾아다니며 접할 수 있었던 모습들이었기 때문이다.
해주스님 '출간에 부쳐' 중에서

한·국·불·교·를·빛·낸·근·세·비·구·니

깨달음의 꽃

하춘생 지음 | 도서출판 여래 | 296쪽 | 값 7,800원

도서출판 여래 ·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1가 177번지 대영빌딩 201호 · 전화 (02)730-8976 · 팩스 (02)723-6801

"말없이, 틈없이, 끊임없이 정진합시다"

선 농 회 안 내

안거
○ 춘: 결제 (음) 2月 1日 ~ 해제 (음) 4月 1日
○ 하: 결제 (음) 4月15日 ~ 해제 (음) 7月15日
○ 추: 결제 (음) 8月 1日 ~ 해제 (음) 10月 1日
○ 동: 결제 (음) 10月15日 ~ 해제 (음) 1月15日

백일기도
○ 춘: 동 안거 해제일 ~ 하 안거 결제일
○ 하: 하 안거 결제일 ~ 하 안거 해제일
○ 추: 하 안거 해제일 ~ 동 안거 결제일
○ 동: 동 안거 결제일 ~ 동 안거 해제일

법회
육바라밀법회: 모 시 (月): 초발심 · 지 계 (火): 화엄경 · 인 욕 (水): 법화경 · 정 진 (木): 선어록 · 선 정 (金): 금강경 · 반 야 (土): 철야정진
정기법회: 월요법회: 매주월요일 오전 10시 · 특별법회: 신상 애상 강변 야외 · 초하루법회: (음) 1日 오전 10시 · 약사재일: (음) 8日 오전 10시 · 지장재일: (음) 18日 오전 10시 · 관음재일: (음) 24日 오전 10시
※ (오후반 2시 · 저녁반 7시)

• 경 제: 개인의 자율성을 인정하되, 대중에게 알리고 스스로 지킵시다.
• 방 부: 본방 대참 중심으로 하고, 출입 자재는 별도로 합니다.
• 기도시간: 새벽 4시 / 오전 10시 / 오후 2시 / 저녁 7시
• 운 력: 일이 있으면 힘을 하고, 일상생활에 들어 갑니다.
• 기타사항: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처리합니다.

송금계좌: 우체국 농선회 102095-0003495
문의전화: (02) 발명선원 922-1101 · 선농회 922-0921 · 농선암 363-9626 (FAX) 936-1914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30기 佛敎儀式(범음 · 범 패) 학인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작 법 반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 정규과정(1년제) 추가모집
● 의식전문법사과정(2년제)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교육기간 : 3개월(각과정)
◆ 원서접수 : 1998년 12월 14일(토) ~ 99년 1월 11일
◆ 개강일시 : 1999년 1월 12일 오후 5시 정각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 · 서신문의 하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극장 옆 경동빌딩 3층
☎ (02) 741-0495, 0496
해동불교 범음대학
海東佛敎儀式敎育院

'10년 포교'와 맞바꾼 '아수라장'

23일 조계사 이·모·저·모

화염병-물대포-최루액 등 난무 신도들 울분 못참고 끝내 통곡

경찰이 조계사에 첫 투입된 23일 새벽 4시25분부터 정화개혁회의측 스님이 오전 10시 특수기동대에 의해 검거되기까지 5시간여 동안 조계사 경내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유리병과 돌, 화염병이 난무하는 가운데 공권력과 정화회의측 스님들이 대치했으나, 결국 청사 내 스님들의 전원 연행으로 강제퇴거 집행은 막을 내렸다.

이날 현장을 지켜본 한 시민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불교가 국난극복을 위해 나서지는 못할 망정 이래서는 안된다"며 "스님들끼리 싸우는데 든 엄청난 비용을 노숙자를 위해 사용했다면 불교위상이 한층 더 강화됐을 것"이라고 안타까와 했다.

○… 새벽 4시25분께 병력 5천여명을 동원해 조계사 출입을 통제하며 작전을 시작한 경찰은 10시쯤 조계종총무원 청사 서쪽에 고가사다리차 2대를 동원해 특공대 80여명을 옥상으로 투입하면서 본격화됐다. 같은 시각 경찰은 청사 1층 창문을 포크레인으로 들어내고 1백여명의 경찰을 투입해 '양면작전'을 펼쳤다. 청사진입 직후 10분도 안돼 승려들을 연행하며 작전을 종료.

○… 오전 6시쯤부터 경찰이 청사 앞에 쌓인 폐건축자재를 포크레인으로 치우며 접근해오자 정화회의측 한 승려는 "가까이 오면 할복하겠다"며 준비한 칼로 배를 그어 경찰을 한때 긴장시켰다. 이 스님은 경찰에 의해 검거돼 가면서도 "이렇게 물러날 수 없다"고 소리치며 거칠게 몸부림쳤다. 경찰이 접근해 올때마다 정화회의측 스님들은 유리병과 기와조각 화염병 등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취재진에게도 병을 던져 항의를 받기도 했다.

○… 8시30분 강석영 서울지법 집달관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의 주장은 항소심에서 다투라"며 "법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1차 경고 방송. 이에대해 정화회의는 선무방송을 통해 "조계종의 정통성은 종정스님과 원로회의에 있다"며 "본안 관결 때까지 현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맞섰다.

○… 정화회의측 스님들은 9시20분께 1층에 설치해놓은 바리케이트에 불을 붙였으며, 치솟기 시작한 검은 연기는 금새 청사 전체를 덮으며 급박한 분위기. 유리창을 통해 불길이 치솟는 모습도 보였으나, 바로 투입된 소방관에 의해 불길은 5분여만에 꺼졌다. 한 신도는 "한국불교가 타고 있다"는 말로 처참한 심경을 토로했다.



◇경찰투입 30분만에 총무원청사에서 저항하던 정화개혁회의측 스님들이 모두 연행됐다.

○… 퇴거집행이 끝난 청사 내부는 여기저기 병이 나뒹굴고 돌과 기와조각, 옷 등이 널려져 있었다. 1층에서 5층까지 벽면은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다.

○… 이번 사태로 인해 아침부터 오전내내 조계사 앞 우정국로의 교통이 통제돼 출근하는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출근자 대부분은 불교가 이래서는 안된다며 우회하는 소동을 벌였다. 스님들이 연행되는 과정에서 사진기자들의 촬영이 쇄도하자 한 신도가 기자들에게 다가가 그만 찍으라며 하소연했다.

○… 조계사 경내에서 밀려난 조계사 신도 1백여명은 우정국로 도로에 모여 '경찰은 조계사에서 물러나라'고 쓰인 피켓 10여개를 들고 경찰의 조계사 진입에 대해 항의. 경찰에 의해 청사 접수가 끝난 뒤에도 신도들은 흩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총무원측 스님들이 지나가자 길을 막고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특별취재팀

사회복지 정보센터 24일 개원

조계종-종단협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24일 사회복지재단 법당에서 '불교 사회복지정보지원센터' 개원식을 가졌다.

이번 정보지원센터 개원은 조계종과 종단협이 지난달 13일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실직자 정보센터' 설립 지원단체로 선정돼 각각 9천만원씩을 지원받아 이뤄진 것.

정보지원센터는 앞으로 99년 봉축기간까지 '사이버 정보지원센터'를 개설, 기념사업으로 불교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하고 △정보네트워크 구축사업 △D/B 개발사업 △불교사회복지 현황조사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사업 △후원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각 종단의 사회복지 정보를 통합, 각 종단 및 사찰 사회복지활동의 체계화 및 정보·프로그램 공유, 업무협조, 사업연계, 연합활동 등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종단협은 이를 계기로 각 종단의 복지활동 필요성을 계몽할 계획이어서 불교 복지의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뉴스 & 뉴스

구미 금오복지관 수탁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18일 경북 구미시로부터 구미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자로 선정됐다. 이에따라 복지재단은 내년초부터 직지사운영위원회의 지원아래 선산 도리사가 위탁운영을 시작하도록 했다.

지하1층, 지상3층의 연건평 4백69평 규모의 금오종합복지관은 LG그룹에서 건물을 지어 시청에 기부한 것.

김재경 기자

관문사 청년회 창립

천태종 관문사는 20일 7층 대불보전에서 청년회 창립식을 가졌다.

운덕 총무원장을 비롯 도재 재무부장, 춘광 교무부장과 신도회 권무원 회장, 중앙청년회 이문재 회장 등 등 2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창립식에서 임명장을 받은 청년회 최기표 회장은 "기도하는 청년회, 신바람나는 청년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28일 '노숙자 송년의 밤'

승가원(이사장 지하)과 서울 강북구청(구청장 장정식)은 28일 강북구청 강당에서 노숙자를 위한 '희망의집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승가원 산하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 강북종합사회복지관, 번2·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소 희망의집 노숙자와 부랑인 등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송년의 밤은 소쩍새마을 원장 보각스님이 '희망의 법회'를 여는 등 화합의 시간으로 꾸며졌다.

김재경 기자

승가원 그룹홈 '겨울캠프'

승가원 산하 4개 그룹홈(강북, 성북 1·2, 종로그룹홈)은 21·22일 현대성우리조트에서 그룹홈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겨울캠프'를 실시했다.

시각장애인 4명, 정신지체장애인 6명, 지체장애인 1명 등 총 11명의 참가 장애인들은 자원봉사자들의 손을 맞잡고 스키 및 눈썰매 타기, 온천욕, 산정호수 관광 등의 프로그램을 즐기며 자활의욕을 드높였다. 김재경 기자

경인지역스님들 새싹포교 나섰다

어린이법회 활성화준비위 30여명 동참

서울·경기지역 어린이법회 활성화를 위한 준비위원회(위원장 법전스님·지장사 주지)가 23일 발족했다.

'새싹불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화두로 발족한 준비위원회에는 지원스님(삼보사 주지), 성광스님(화계사 부주지), 황학현(불교연구원 원장), 장명문(진선여고 교사)씨 등을 비롯해 서울·경기지역 어린이법회 지도자 30여명이 참여했다.

최근 불교연구원이 서울·경기지역 어린이법회 현황을 조사한 결과 50여개 사찰에서 평균 3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법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결과는 10년전 서울·경기지역 150여개 사찰에서 평균 1백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법회가 운영됐던 것과 비교해 67% 감소한 수치.

이에 따라 준비위원회는 침체된 어린이법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불교어린이지도자 양성 과정(교사대학) △수요강좌 △지도자연수 등을 상시 운영하고, 어린이법사위원회(가칭)도 설립할 계획이다.

제1회 지도자 양성과정은 99년 3월5일~5월28일 종로교육관에서 매주 월·수·금요일 실시된다. 99년 2월3일부터 시작되는 수요강좌에는 법회조직·교육론과 프로그램 개발법 등 어린이지도를 위한 실질적인 강좌를 개설한다. 지도자연수는 1월중 산정호수와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연수원에서 각각 두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pm)

국제종교연합 창설 추진

진월스님 한국지부 개설 준비 한창

세계 종교지도자들이 종교간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낼 국제적인 네트워크, 국제종교연합(United Religion, 이하 종교연합) 창설을 서두르는 가운데 국내 연락사무소 삼소방(간사 진월스님)이 개원됐다.

종교연합은 199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범종교합동집회에 참석한 달라이 라마(티벳 승왕), 스윙주교(성공회·미국) 등 세계 종교지도자들이 정치·군사력으로는 더이상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제안한 것.

이후 세계 종교지도자들은 종교연합준비위원회(회장 스윙)를 구성, 96~98년 연례정상회의를 열고 △종교연합헌장 초안 △연락사무소 등을 추진하며 2천년 6월중 종교연합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

진월스님은 "종교연합 한국지부를 설치하기 위해 삼소방을 개원한 것은 세계 종교계에서 한국불교가 능동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빠르면 2001년 민영교도소 문연다

빠르면 2001년 민영교도소가 문을 열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24일 "교도소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민영교도소를 도입키로 했다"며 "내년중 민영교도소 설립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영교도소는 내년부터 2~3년의 공정을 거쳐 3~4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생길 것으로 보인다. 도필선 기자

춘천에 천태종 삼운사 기공

2001년 가을 완공

메머드급 사찰이 강원도 춘천시에 건립된다. 천태종은 20일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590-18에 삼운사(주지 월도) 기공식을 가졌다.

천태종은 부산 삼광사, 서울 관문사 등에 이어 삼운사를 대지 1천6백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1천2백평 규모의 춘천지역 최대 사찰로 건립한다. 삼운사는 지하 1층에 어린이수영장을 짓고 현재 법회를 보고 있는 관음전을 허는 대신 사찰시민공원을 조성, 열린불교를 지향하다는 방침이다.

주지 월도스님은 "누구나 찾아와서 마음을 열고 복을 일궈갈 수 있는 개방된 쉼터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pm)

목탁소리 기자칼럼 1년

포교에 관심집중…종교편향도 많이 다뤄

목탁소리는 지난 1년간 기자들의 예리한 시각과 필치로 교계 곳곳의 가리워진 곳을 두드렸다. 전체 48건중 13건이 포교부분에 집중돼 여전히 포교가 불교최대의 과제임을 드러냈으며, 훼불과 종교편향 등도 7건이 목탁소리의 주제로 등장했다.

'50만원 든 한국불교 알리기'에서는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영문판(코리안부디즘)이 해외 각 대학도서관과 박물관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것과 관련 저비용 고효율의 불교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요원한 고시촌 포교'에서는 서울 신림동 고시촌이 포교불모지라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미동도 않는 교계를 꼬집었고, 17년간 지속돼왔던 미8군 법우회가 교계의 무관심속에 법사없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불교문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수립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발간된 청소년역사현장순례 자료집에 실린 34개 문화유적지 가운데 불교문화 유적지는 한 곳도 없는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했다. 또 골프장, 도로 건설 등 끊임없는 개발유혹으로 몸살을 앓는 가야산 보호의 근본대책 마련과 정부당국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훼불부추기는 하늘나라' '훼불 강건너 불인가' '종교편향 위의 자리 종교간의 벽' '종교편향과 자성론' 등의 칼럼에서는 훼불 및 종교편향사례 방지를 위해서는 교계내의 대책마련이 최우선 과제임을 지적했다.

최근 조계종 사태의 뒷얘기는 폭력사태에도 불구하고 뒷짐만 지고 있는 경찰을 '이상한 공권력'을 통해 비판했고, 불자들의 비애를 '소리죽인 나는 불자'에서 담았다.

이밖에도 '인터넷 사찰이름보호'를 통해서는 중요 사찰의 도메인 이름이 이미 도용된 일을 들어 정보화 시대의 층아로 떠오른 인터넷에서 불교계가 무형의 자산을 지켜나가기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처럼 목탁소리는 앞으로도 정법의 목탁을 계속 울려, 불국정토 건설에 매진할 것이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pm)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활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활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활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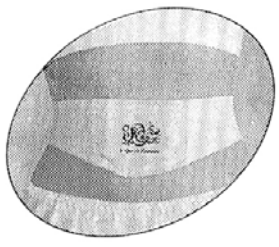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자연향) 테크팬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향비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악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놀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서초구 김미선)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빈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입 문

■신심명/
대원 문재현 역저



신심명 본문에서 삼조 승찬 대사께서는 45대치법을 양끝을 들어 양끝을 쓸어버리고 있다. 그리하여 한결같이 양끝이라 할 것이 본래 없는 본연(本然)의 경지를 이르고 있는 것이다.
역저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는 이러한 신심명을 주해의 한 종로 회통하고 본연을 누리는 송으로 농(弄)하셨다. 지극한 도라는 얼굴에 몇 겹 두꺼운 칠관을 깔지 않고는 이를 수 없다 하였으니 이러할 때 무어라 해야 할고.
최상승법이란 이름조차 설 수 없는 그것을 알고자 하는가.
금강경의 부처님께서 자리 펴 앉으신 일상과 불이(不二)의 도리를 묻는 문수의 물음에 답한 유마의 묵연, 그리고 신심명 마지막 장, 대원 선사의 통쾌한 웃음이 있다. 이 웃음을 보라!
바로보인, 10,000원 (02)597-2460

상을 지우는 불교 다가가기

■진연스님의 불교이야기
/진연스님 지음



불교를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아무리 쉬운 책을 보아도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다. 불교가 어렵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어렵다는 마음의 상을 지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자 진연스님(천안 성불사 주지)은 바로 그런 마음을 경계하며 이 책을 읽으라고 권한다. 그러면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쉬운 용어로 불교의 교리와 사상을 개괄하고 있어 초심자들이 읽기에는 그만인 입문서다. 부처님 일생과 계율, 업, 윤회, 자비, 보살 등을 주제로 불교사상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특징. 일상에서의 참선과 화두, 마음 닦는 길도 제시하고 있다.
혜음, 8,500원 (02)563-0222

에 세 이

나에 대한 믿음과 희망

■오는 세상 편안하신가
/묘심화법사 지음



희망보다는 좌절의 쓴 맛을 곱씹는 시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증표 하나쯤은 가지고 다니며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희망한다. 묘심화법사는 그 증표는 바로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념 그리고 희망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스포츠서울에 '영혼 4차원의 세계'를 연재하고 있기도 한 묘심화법사는 이 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트레로 주어진 운명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마음'을 주제로 인간과 정신의 세계를 조망한 부분도 흥미롭다.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과 시련을 한탄치 말라. 자신에게 묻고 답할 수 있도록 되라"는 것이 저자가 말하는 핵심이다.
누림, 7,500원 (02)323-2100

법화경의 설명, 이해하기

■양약을 먹지 않는 지구 촌놈들/
혜성스님 지음



사람은 아프면 약을 먹는다. 저자는 나라가 어지럽고 사람들이 갖가지 고통을 받고 괴로워 할 때도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약은 다름아닌 〈묘법연화경〉. 묘법의 양약을 먹으면 낫지 않는 병이 없고, 소멸되지 않는 업장이 없고, 오지 않는 복이 없으며, 찰 이지 않는 공덕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법화경은 받아 지니기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 책은 그런 법화경을 쉽게 설명한 책. 법화경의 구조와 묘법연화경의 대의를 간단히 설명하고 저자가 나름대로 법화경을 수행해 오면서 얻은 이해와 법의 가피력을 담았다. 재미있는 글귀가 많다.
위음왕 12,000원 (051)625-9085

기 타

피라미드 에너지 - 의문 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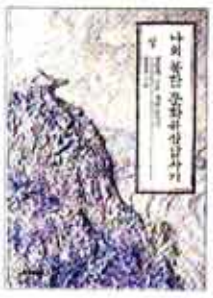
■신과학으로 풀어보는 피라미드 에너지/
허창욱 지음



한국 과학자의 시각에서 피라미드 에너지의 신비를 풀어낸 책. 피라미드 에너지를 소개하는 해외 자료들 중에서 충분한 검증과 실험을 거친 것이 전무한 실정. 그러나 이 책은 막연하게 피라미드의 신비한 현상만 강조하고 있지 않다. 피라미드 에너지의 현상과 근원을 신과학의 시각으로 추적하면서 국내외의 관련자료와 주장을 흥미롭게 비교·비판하고, 아울러 공간 에너지와의 연관성 속에서 과학 혁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현직에서 신과학의 이론과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저자가 수년간 수집하고, 연구하고 또 직접 실험 과정까지 거치면서 쓴 이 책은 피라미드 에너지에 대한 독자들의 의문을 시원하게 풀어준다.
모색, 9,000원 (02)765-7438

북한문화유적 답사기

■나의 북한 문화유산 답사기/유홍준 지음



자기 고향인 사리원 성불사에 꼭 가 보리며 고향 사랑과 자랑을 늘어놓던 북한 고려항공 여승무원. 이 책에는 북한의 문화유적과 사람들의 표정을 따뜻하게 읽어 내려간 저자의 느낌이 그대로 담겨있다.
고구려의 옛모습을 다시 복원해 놓은 광양의 정릉사, 묘향산의 보현사와 8각13층석탑 그리고 안심사 상원암, 서산대사의 금강굴 등 불교문화유적과 광양 매성신성, 묘향산, 조선중앙력사박물관, 강서의 고구려 벽화무덤 등 북한의 대표적인 문화유적도 저자 특유의 구수한 입담으로 만날 수 있다. 최근의 북한 문화유적을 알기에는 그만인 책.
중앙M&B, 9,000원 (02)751-9114

본 지면은 출판사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신간도서의 홍보기회를 제공하고 독자들에게는 정리된 책의 내용을 미리 파악하게 하여 꼭 필요한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획기사형 광고면입니다.

■참여문의 : 현대불교신문 영업부 ☎ 02)732-1522(직)

금주의 명저순례

역사에서 찾는 과학정신

■수렁속에 푸른꽃불/명현스님 지음



고해의 바다에서 업보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존재의 이유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참자아를 찾아 가는 길을 제시하는 구도소설. 이 소설은 실종된 자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것은 업장의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덕의 갈망을 말한다.
수천의 삶과 진공의 끝없는 구도의 걸음을 통해 저자는 사람으로 태어나 나 자신도 모르게 받아들여야 했던 수많은 관념들, 한 걸음 더 나아가 과거생으로부터 지고온 업이란 관념의 덩어리를 부수어 버리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펼쳐지는 하얀 여백. 그 마음의 여백에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유. 이 소설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동남기획, 7,000원 (02)465-5128

잡아함 1,362경에서 가려뽑은 금쪽 같은 말씀 100가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홍사성 지음



세상이 어수선하고 삶이 버거울 때, 막연한 불안 속에서 이정표를 찾을 수 없을 때, 생각나는 분, 부처님. 부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경전을 읽는다. 아함부 경전에서 부처님은 마치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침을 베풀 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설법을 하신다. 난해하고 형이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때 그때 일어난 사건을 소재로 삶의 진상이 어떠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솔직하고 간명하게 말씀하신다.
이 책은 아함부 경전 가운데서도 가장 원형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잡아함 1,362경에서 특히 마음에 와닿는 100개의 경전을 골라 간단한 독후감을 덧붙인 것이다. 독자들이 보다 쉽게 경전을 읽을 수 있도록 원뜻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윤문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장승 8,000원/(02)723-1679

과거의 거울 - 현재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종본스님 지음



버지니아 대학의 사회심리학자인 이언 스티븐슨 박사 연구팀은 윤회설에 대한 연구끝에 놀랍게도 전생을 기억하는 20여건의 사례를 밝혀내고, 그 이야기를 책으로 펴낸 바 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고 했다. 뭐도 그렇고 업도 그렇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전생에 관한 갖가지 이야기들을 묶은 책.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에게 전생 이야기는 터무니없이 들릴지도 모른다. 과거사를 알고 싶으면 지금 현재를, 미래사를 알고 싶으면 현재 자기의 행동을 살피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 이 책도 바로 현재를 바르고 선하게 살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다는 의미에서 펴냈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우리출판사 8,000원 (02)313-5047

금주의 추천도서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성취하는 한국불교 최고의 기도처 36곳

■한국불교기도성지/정성운외 지음.



불교에서 기도는 하화중생(下化衆生)을 위한 불보살의 원력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 중생이라도 지옥고를 받는 자가 있으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 병든 사람을 모두 구제하겠다는 약사여래, 천개의 눈과 손으로 중생의 고통을 살펴 어루만져 주겠다는 관세음보살의 원력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불보살의 원력은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 갖가지 모습으로 나투어 감응하신다. 사찰에 전해오는 수많은 영험담이 이를 증명한다.

이 책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5대 적멸보궁을 비롯해 전국의 유명한 관음·지장·약사·문수·나한 기도성지 등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성취하는 한국불교 최고의 기도처 36곳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불교계 잡지·신문의 전문기자가 필자로 참여, 발로 쓴 생생한 정보가 가득한 이 책에는 신비로운 기도성취 영험담, 절의 역사, 문화재, 절을 찾아가는 길 등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불교시대사/값 7,000원/(02)730-2500

曹溪宗團의 和合僧伽具現을 촉구한다.

지루하게 끌던 조계종 총무원 폭력사태가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일단락되었으나 승단의 자정능력을 상실한체 공권력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면서 실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

제29대 총무원장선거로 발생된 조계종단의 폭력분규사태는 조계종단 내부의 문제를 넘어서 전국은 물론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었으며, 국내외적으로 한국불교가 설 자리를 잃게 되는 엄청난 과오를 범했다.

1,60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바탕으로 빛나는 민족문화를 창조하여 이끌어 온 한국불교는 고래로 외부의 영향에 의한 쇠퇴와 불운이 있긴 하였으나 현대에 이르러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조계종단 폭력분규와 같은 일로 불교의 명예가 실추되고 국민들과 사회로부터 설자리를 잃는 불우한 일은 일찍이 없었다.

더욱이 내분이 있을때마다 대화와 타협으로 종단사태가 수습되지 못하고 급기야는 공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수습되어짐으로써 교권은 더없이 실추되고 2천만 불자들은 가슴에 멍이들게 되었으니 과연 이러한 것이 大慈大悲요 傳法敎化라고 말할 수 있는지 조계종단에 강력히 묻고 싶다.

일반성직자도 아닌 출가수행자의 모습은 "상구보리하화중생"하며 "화합"을 통한 원융무애한 삶 자체임은 모두가 알고 있는 승가본연의 모습일진대 한국불교 중심종단으로서 제역할을 망각하고 종권에만 탐착하여 수행자의 본분을 저버리고 끝내는 승가의 화합을 파괴하므로써 사부대중의 불신을 도살시키고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일부 권승들은 이제 불교계를 떠나야 한다.**

금번 폭력사태를 야기시킨 조계종단은 국민들과 사회에 참회하고 대오각성해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의 폭력과 불명예가 생기지 않도록 조계종단의 원로대덕스님들과 중진스님들이 솔선하여 **육화정신으로 종단의 대화합을 이루고 작금의 한국불교를 바로세워 불교가 중흥발전되고 정토사회가 이루어지도록 지혜를 모아 용맹정진해야 할 것이며, 다시는 이땅에 폭력권승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번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중자애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후로 폭력과 불법이 난무하고 한국불교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이 발생한다면 한국불교 제종단들은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밝혀둔다.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곡덕초파정일호륜공화진정광덕우화정봉오공곡우안
대한불교	천태종	총무원장	인운성홍혜혜대법일지무남금법혜대송정일혜해성혜
대한불교	진각종	통리원장	홍전김이김정김정배총송전손이이이윤이윤이김권신
대한불교	관음종	총무원장	
대한불교	일승종	총무원장	
대한불교	보문종	총무원장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대한불교	법상종	총무원장	
대한불교	원융종	종 정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장	
대한불교	총화종	총무원장	
대한불교	진언종	종리원장	
대한불교	용화종	총무원장	
한국불교	법륜종	총무원장	
대한불교	본원종	총무원장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장	
보국불교	염불종	총무원장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장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장	
대한불교	열반종	총무원장	
대한불교	미타종	총무원장	
한국대승불교	여래종	총무원장	

(이상 23개 종단)

불기 2542년 12월 24일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일동